

2018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차 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 ° CONTENTS °

## 교과 스테디

4차혁명 (우수) .....	3
도레미파 (우수) .....	5
바이오 (우수) .....	7
유기 화학 1등과 함께하는 통학러들 (우수) .....	9
김소예소예 .....	12
독신만세 .....	14
맨보얼 .....	16
물약일체 .....	18
병태의 노력천재들 .....	20
생물 남바 쓰리 .....	22
아동바등 공부 할래 .....	24
약물학 보개기 .....	28
에이쁘리 .....	30
원준이와 아이들 .....	32
유레카 .....	33
인생공부 .....	35
하리보 .....	37
영유아 .....	39
화학 보개기 .....	40

## 비교과 스터디

상식 보개기 (우수) .....	45
토익을 패고다 (우수) .....	48
밤샘스터디 (우수) .....	50
Amazing medical .....	52
CBT2 .....	53
Fairy .....	55
toeic Avengers .....	57
구구공 .....	59
보산타임즈 .....	62
상록한국사 .....	64
신약 .....	66
애증의 AED .....	67
투스 (김지연) .....	69
투스 .....	71
해움누리 .....	74

## 전공 튜터링

J호 (우수) .....	77
테이핑 마스터 (우수) .....	80
민주 믿고 간다 .....	82
바돌이 .....	84
박 터지는 흥터링 .....	85
탐구 .....	87

## 리딩 리더스

시렵자 (우수) .....	91
책속에 살어리랏다 .....	92
하리보 .....	93

##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박지민,이혜선 팀 (우수) .....	97
김은빈, 김재은, 박예지, 이지원, 이혜진, 허유미, 홍신영 팀 (우수) .....	102
김성민, 서승수, 유승원, 장희수, 조석현 팀 .....	105
김다솜, 최예진, 최은석, 황새잎 팀 .....	106
신은소, 윤시은, 조세연 팀 .....	107
김영인, 이찬미, 진선민 팀 .....	108
이예진, 김형진, 장승완, 오선유 팀 .....	111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토익 시작했으니 끝을 보자 (우수) .....	115
2급러들의 1급 도전기 (우수) .....	117
차팸아이 (우수) .....	119
Analysis Ability_CHAcademy .....	121
Reading Ability_CHAcademy .....	122
SOL(Supreme, Oustanding, Limitless) 브레인 .....	124
static_chacademy .....	126

갑돌이와 갑순이 .....	128
구구영 .....	130
식품기사 끝내자 .....	135
영미있는 영미팀 .....	140
전공이 안 되면 동영스쿨 .....	142
토익 끝내자 .....	144
화학플러스 .....	146

# 교과 스터디

구분	팀명	과목명	지도교수	팀원
1	4차혁명 (우수)	첨단의약품개론	서영거	손유나
				김성연
				김선우
				임혜영
				김은혜
				김소인
				신다영
2	도레미파 (우수)	토익	이예나, 성국형	박화정
				허성민
				박지수
				김채하
				이경건
3	바이오 (우수)	일반화학	홍수린	황상호
				박예지
				송민선
				박예림
4	유기 화학 1등과 함께하는 통학러들 (우수)	의약품합성학	김석호	신은소
				조세연
				하태욱
				김지수
				김태환
5	김소예소예	식품화학	이진희	박예람
				안현빈
				조소현
				김은정
6	독신만세	독성학	정기화	이소민
				정예지
				조예진
7	맨보얼	생화학	최영석	심민호
				조윤서
				한지수
				신대웅
8	물약일체	물리약학 2	손우성	박홍범
				김현민
				김효정
				송인석
				김태환
9	병태의 노력천재들	병태심리학	양영덕	홍혜린
				정유정
				정간욱
				김상욱
9	병태의 노력천재들	병태심리학	양영덕	김영진
				심민호
				최동현
9	병태의 노력천재들	병태심리학	양영덕	홍선기

구분	팀명	과목명	지도교수	팀원
10	생물 남바 쓰리	인체 생리학	양영덕	정민영
				이상민
				이건휘
				전상원
11	아동비등 공부 할래	아동간호학3	임지영	민정현
				박소희
				유세림
12	약물학 보개기	약물학	최현진	윤성은
				이희다
				최동현
				김영진
13	에이브리	데이터 경영분석	-	박수진
				이지연
14	원준이와 아이들	보건학, 보건의료산업 정보분석관리	정미현	홍원준
				박다영
				이현준
				박정찬
15	유레카	의약품 제조화학1	김석호	박준석
				김상욱
				김선우
				배상희
				유영운
16	인생공부	인체생리학	양영덕	김태환
				김상욱
				정유정
				홍혜민
				정간욱
17	하리보	생화학	최영석	박정민
				김유정
				김동길
18	영유아	의약품제조화학	김석호	이영미
				김상욱
				김은혜
				신다영
				유영운
				이유진
				한은채
19	화학 보개기	일반화학	김재환	이윤지
				김송현
				김유정
				손령애



## 비교과 스테디

구분	팀명	과목명	팀원
1	상식 보개기 (우수)	시사상식	권희주
			이정림
			이지은
			정진영
			조안나
2	토익을 때고다 (우수)	토익	구도희
			박준명
			박채원
3	밤샘스테디 (우수)	공모전	홍선기
			이영미
			송일량
			김소연
			정지은
			장윤지
4	Amazing medical	토익	임경진
			이희다
5	CBT2	토익	이다현
			이현영
			강윤근
6	Fairy	토익	박건
			백지원
7	toeic Avengers	토익	김진솔
			조재희
			이시은
8	구구공	토익	차지현
			안세정
			이채윤
			김영인
9	보산타임즈	기자단	이아름
			진선민
			조효선
			이영인
			김현진
10	상록한국사	한국사	박다영
			이기혁
			최세진
			박희정
			김소인
			신다영
			김은혜
김선우			
손유나			
임혜영			
김성연			

구분	팀명	과목명	팀원
11	신약	신문구독	김소인
			신다영
			김은혜
			김선우
			손유나
			박희정
12	애증의 AED	공모전	홍선기
			김소연
			이영미
			조해람
			정지은
			임경진
13	토스(김지연)	토익	김영진
			김지연
			김하정
			남소윤
			류수현
			박수연
14	토스	토익	이현영
			송인선
			유세림
15	해움누리	기자단	이찬미
			함영원
			홍원준
			박정찬
			박재혁
			이현준
			권수하

## 전공 튜터링

구분	팀명	과목명	지도교수	팀원
1	J호 (우수)	생화학		장윤정
				김수완
				지선영
				황민
2	테이핑 마스터 (우수)	스포츠테이핑과 보조기	정석률	윤지혜
				이도현
3	민주 믿고 간다	미생물학, 일반화학2		김민주
				곽채숙
				조윤주
4	박 터지는 흥터링	해부생리학	이민철	박수홍
				감동영
				김현진
				정재철
				김현진
				황지민
5	탐구	일반화학	홍수린	황동연
				연형준
				안민석
6	바돌이	면역학	임대석	송동욱
				이태환
				임준우

# 리딩 리더스

구분	팀명	팀원
1	시럽자(우수)	임혜영
		손유나
		신다영
		김은혜
		김소인
		김성연
		김선우
		박희정
2	책속에 살어리랏다	박수린
		임가연
3	하리보	박정민
		김유정

##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구분	팀원	학과
1 (우수)	박지민	보건복지행정학과
	이혜선	보건복지행정학과
2 (우수)	김은빈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김재은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박예지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이지원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이혜진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허유미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홍신영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3	김성민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서승수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유승원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장희수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조석현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4	김다솜	간호학과
	황새잎	간호학과
	최예진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최은선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5	신은소	바이오공학과
	윤시은	바이오공학과
	조세연	바이오공학과
6	김영인	간호학과
	이찬미	간호학과
	진선민	간호학과
7	장승완	스포츠의학과
	오선유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형진	보건의료산업학과
	이예진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구분	팀명	소모임 분류	팀원
1	토익 시작했으니 끝을 보자 (우수)	어학준비	박소희
			민정현
2	2급러들의 1급 도전기 (우수)	자격증 준비	박민하
			박현정
3	차림아이 (우수)	대외공모전, 학술대회 준비	홍선기
			김민지
			우나현
			임경진
4	Analysis Ability_CHAcademy	대외공모전, 학술대회 준비	이주현
			윤성은
			정지은
			박소영
			송일랑
5	Reading Ability_CHAcademy	대외공모전, 학술대회 준비	송선기
			김소연
			최문혁
			임경진
			조해람
6	SOL(Supreme, Outstanding, Limitless) 브레인	전공심화 학습	이영미
			김상욱
			박예람
			정진규
7	static_chacademy	자격증 준비	홍선기
			김소연
			최문혁
			임경진
8	갑돌이와 갑순이	어학준비	조해람
			김준혁
9	구구영	어학준비	김주영
			김경민
10	식품기사 끝내자	자격증준비	오현지
			김선유
11	영미있는 영미팀	전공심화	김세희
			이영미
			유영운
12	전공이 안 되면 동영스쿨	전공심화	홍선기
			김동영
			김지환
			윤지혜
			전우찬
13	토익 끝내자	자격증 준비	황규리
			김선유
14	화학플러스	전공심화	김세희
			박정민
			김유정



# 교과 스테디





교과 스터디

## 4차 혁명



- **학습과목:** 첨단 의약품 개론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8월 27일~2018년 12월 14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8년 10월 3일	17시 00분 ~ 19시 00분	과학관 105호	의약품과 약학교육 및 약사직능
2018년 10월 11일	16시 30분 ~ 18시 30분	과학관 105호 과학관 105호	최신 합성신약 개발 및 연구 동향 등을 공부하고 어떤 신약이 현대 사회에 필요한지 토론해본다.
2018년 10월 17일	17시 00분 ~ 19시 00분	과학관 105호	새로운 감염기술 제어와 항생제 내성 예방 방법
2018년 10월 31일	17시 00분 ~ 19시 00분	과학관 105호	BIOPHARMACEUTICS - 생물 약제학이란?
2018년 11월 14일	17시 00분 ~ 19시 00분	과학관 105호	ANO1을 표적으로 하는 건선 및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
2018년 12월 13일	17시 00분 ~ 19시 00분	과학관 105호	약물 전달체와 약효, 부작용 편의성

###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첨단 의약품 개론 과목은 기존의 지식을 그대로 습득하며 공부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최근 연구 동향을 살피며 조원들끼리 토론해가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며 공부하는 것이 적절한 과목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 조사해본 후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며 스터디를 진행하였다.</p> <p>그 결과, 기말고사 때 교수님의 강의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CTD (의약품 국제 공통 기술 문서)에 대한 문제에 어렵지 않게 답변할 수 있었다. 아마 교수님의 강의 자료만 보고서 학습을 했다면 쉽게 맞추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성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중간고사 이후 스터디를 제대로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고사 성적보다 더 향상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또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성적 상승뿐만 아니라 발표 능력, 자료 조사 및 활용 능력도 배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능력은 첨단 의약품 개론 과목에서는 발표 시간이 없어서 활용할 기회가 없었지만 다른 과목 수업 발표시간에 심분 발휘할 수 있었다.</p> <p>다음 학기에도 학습법 소모임을 활용하여 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학점도 상승시키며 발표 능력과 자료 활용 법등을 더 익혀보고 싶다. 또한 다른 동기들에게도 학습법 소모임을 적극 활용하라고 강력 추천하고자 한다.</p>
-----------------------	--

활동사진



교과 스터디

도레미파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미래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2일~2018년 11월 27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2	19:00~21:00	미래관 405호	토익part5~6를 풀고 채점 후 틀리고 헛갈리는 문제 위주로 토론
10/23	19:00~21:20	미래관 405호	토익part5~6를 풀고 채점 후 틀리고 헛갈리는 문제 위주로 토론
10/24	19:00~21:00	미래관 405호	토익part5~6를 풀고 채점 후 틀리고 헛갈리는 문제 위주로 토론
10/30	19:00~21:00	미래관 405호	토익part5~6를 풀고 채점 후 틀리고 헛갈리는 문제 위주로 토론
11/6	19:00~21:00	미래관 405호	토익part5~6를 풀고 채점 후 틀리고 헛갈리는 문제 위주로 토론
11/7	19:00~21:00	미래관 405호	토익part7를 풀고 채점 후 틀리고 헛갈리는 문제 위주로 토론
11/13	19:00~21:00	미래관 405호	토익part5~6를 풀고 채점 후 틀리고 헛갈리는 문제 위주로 토론
11/14	19:00~21:00	미래관 405호	토익part7를 풀고 채점 후 틀리고 헛갈리는 문제 위주로 토론
11/20	19:00~21:20	미래관 405호	토익part5~6를 풀고 채점 후 틀리고 헛갈리는 문제 위주로 토론
11/21	19:00~21:00	미래관 405호	토익part7를 풀고 채점 후 틀리고 헛갈리는 문제 위주로 토론
11/27	19:00~21:00	미래관 405호	토익part5~7를 풀고 채점 후 틀리고 헛갈리는 문제 위주로 토론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b>박예지</b> : 항상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 더 잘 맞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스터디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면서 자극받고 성취수준이 더 높아진 것을 느꼈다. 또한 조원들끼리 의견을 나눈 후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교수님께서 피드백 해주셔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p> <p><b>황상호</b> : 토익을 응시하기 전 학기 중에 준비를 하기 위해 스터디 활동에 처음 참여했는데 혼자서 강의를 듣고 문제 풀면서 하는 공부보다 조원들과 토의를 통해 정답을 찾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다소 취약하다고 느낀 파트를 잘 대비할 수 있었다. 소수로 진행되다 보니 교수님과 의 소통도 좋았고 토익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얻어갈 수 있어서 아주 보람찬 스터디 활동이었다.</p> <p><b>김재하</b> : 학기 중에 토익을 혼자 공부하기 힘들 것 같아 신청한 토익 스터디였는데 생각한 것보다 다른 조원들과 함께 토의를 하면서 정답의 근거를 찾고 해서 혼자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았다. 그리고 교수님이 함께</p>
---------------	--

	<p>하는 토익 스테디라서 조원들끼리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질문할 수 도 있었고 교수님에게 다양한 자료를 받아서 굉장히 유익한 스테디 활동이었다.</p> <p><b>이경건 :</b> 학교 다니면서 스테디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평소에 토익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도 교수님의 소개로 토익 스테디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스테디를 나가는 거라 그런지 어색하기도 했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토익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게 되었고 토익 스테디 그룹과도 친해지게 되었다 비록 스테디 기간 중에는 토익 시험을 치룬 적은 없지만 이번 스테디를 계기로 토익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 학기가 되면 동기들이나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다</p> <p><b>박지수 :</b> 이번 학기에 토익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학교를 다니며 처음 신청한 스테디였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 혼자 공부를 하면 게을러지기 쉽고, 계획했던 대로 실천하기 어려운데 일주일에 두 번 다른 학생들과 모여서 공부하기로 하니 억지로라도 나가서 공부하게 되었고 한 학기동안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원도 안다니고 영어 강의를 듣지 않는데, 조원들과 토의하거나 교수님께 질문하여 모르는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p> <p><b>허성민 :</b> 나에게 영어는 넘지 못하는 장벽과 같다. 고교시절에 영어가 내 발목을 잡았고, 대학생인 지금도 나를 잡고 있었다. 학창시절 내내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었기에 나에게 토익스테디는 큰 도전과 같았다. 처음에는 매우 하기 싫었다. 해야 하는 걸 아는데도 하기가 싫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토익 푸는 것에 익숙해짐에 따라 그렇게 영어가 두렵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토익 문제를 보고 풀다보니, 풀면서 재미도 느껴지고, 풀어서 맞았다는 성취감도 들기 시작했다. 토익스테디가 나의 점수를 많이 올리지는 못했지만, 영어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토익점수변화보다 더욱 값진 변화라 생각한다. 교수님도 매우 열정적으로 지원해주셨고, 팀원들도 끈기 있게 활동해주어서 감사하다.</p>
--	---

교과 스터디

바이오



- 학습과목: 일반화학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2일~2018년 12월 04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2	18:00~21:50	과학관218호	엔트로피의 전체적 변화
10/30	17:00~20:40	과학관218호	용해도, 몰랄농도, 총괄성, 화학평형
11/6	18:00~21:00	과학관218호	화학평형과 평형상수
11/20	17:00~22:50	과학관218호	산과염기, 반응속도
11/27	17:00~22:00	과학관219호	반응속도, 산화환원 반응식
12/4	18:00~23:00	북카페	문제풀이

###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스터디의 목표는 당일 복습을 통한 성적 향상이었습니다. 스터디 모집 전부터 매주 당일 복습을 하였고, 그 결과 전원이 성적 상승 및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p> <p>당일 수업한 내용을 나누어 공부하고, 그 파트에 대한 선생님이 되어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파트를 분배함으로써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맡은 파트를 공부하고 가르침으로써 그 파트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단점은 자신이 맡은 파트 외에는 다소 부족하여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파트에 대해 공부하는 속도가 달랐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념 설명 위주의 스터디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같이 문제풀이를 하는 스터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의논하여 다음 스터디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p> <p>저희가 경험했던 스터디의 효과는 첫째,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학은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지쳐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저희 스터디원은 저번 학기에 시험 범위를 다 보지 못 하고 시험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결성하게 되었고, 당일 복습이 목표였습니다. 우선 당일 복습을 통해 수업의 내용을 그날 그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편하게 의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화학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낮췄습니다. 그 결과 많은 화학 범위를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가르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을 하다보면 알고 있던 개념은 말로 뱉음으로써 더 뚜렷해지고,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개념을 알게 되고, 모르는 개념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문제를 혼자 풀 때보다 스터디원에게 설명해줬던 문제가 기억에 오래 남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해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을 정확히 이해시키려면 정확한 원리를 알고 설명</p>
------------------------------	---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리를 알고 푼 문제는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플러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도 플러스가 되는 win-win 공부법이었습니다. 셋째, 계획을 지키는 것에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나만의 계획은 세우기는 쉽지만 지키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터디에서 세운 계획은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지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습해오기, 문제 풀어오기 같은 계획을 세웠을 때, 지키지 않으면 모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계획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부의 양과 질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효과들이 모여서 성적 향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적이 세 단계나 오른 친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두 성적이 오르거나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를 통해 꾸준히 공부하고 성적 향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할 때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끝까지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망합니다.



교과 스터디

유기화학 1등과 함께하는 통학러들




- 학습과목: 의약품 제조화학1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11월 07일~2018년 11월 2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7	16:00~17:00	과학관 105호	여러 가지 파킨슨병 약물의 합성 방법에 대해 공부를 했다..
11/10	13:00~14:00	과학관 105호	여러 가지 부교감신경계 작용 약물의 합성 방법에 대해 공부를 했다.
11/14	16:00~17:00	과학관 105호	여러 가지 교감신경계 작용 약물, 세로토닌 수용체 작용 약물 등의 합성 방법에 대해 공부를 했다.
11/16	13:00~14:00	과학관 105호	여러 가지 국소마취약물, PDE관련 약물, 천식관련 약물 등의 합성 방법에 대해 공부를 했다.
11/21	16:00~17:00	과학관 105호	심장에 작용하는 다양한 약물의 합성 방법에 대해 공부를 했다.
11/23	13:00~14:00	과학관 105호	여러 가지 당뇨병 치료 약물의 합성 방법에 대해 공부를 했다.

활동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b>김지수(약학과 16):</b> 학우들과 의약품 합성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의약품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교감 신경계 작용 약물과 교감 신경계 작용 약물에 대해 공부를 할 때에 학우들과 정리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교감 신경계 작용 약물과 교감 신경계 작용 약물은 상대적으로 많은 의약품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조원들과 약물의precursor를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해당 약물의 메커니즘을 공부한 결과, 약물의 합성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스터디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학우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실력을 쌓아나갈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p> <p><b>김태환(약학과 16):</b> 의약품 합성학 스터디를 이끌어 나가면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고, 통학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전 학기에는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통학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학기에는 통학을 했기 때문에 통학하는 시간으로 인해 공부를 할 시간이 줄어들 것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원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성실한 태도에 힘입어 약학과 3학년 과목 중에서 비교적 어려운 의약품 합성학을 열악한 조건에서도 원하는만큼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심장에 작용하는 약을 조원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약학도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학습지원센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훌륭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학생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p>
-------------------	--

	<p><b>박예람(약학과 16):</b> 평소에 의약품 합성학에 매우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스터디를 통해 의약품 합성학을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약학과에서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접했던 다양한 약물들을 합성하는 방법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훗날 novel한 합성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조원들과 합성 방법에 대해 토의를 하면서 의약품 합성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를 통해 스터디의 아주 큰 장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과 공부를 할 때에, 공부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준 학습지원센터에 감사하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p> <p><b>안현빈(약학과 16):</b> 직전 학기에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이번 학기에 의약품 합성학을 공부하면서 유기화학과의 연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우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합성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번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스터디에서 학우들과 의약품 합성학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의문이 생기면 논문을 찾아보면서 조원들과 토의를 했고, 이는 합성에 대한 직관력을 늘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조원들과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보람차다고 느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p> <p><b>하태욱(약학과 16):</b> 주로 혼자 공부하는 것에 익숙했으나, 이번 스터디 기회를 통해 협력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의약품합성학처럼 체계적인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요구하는 과목을 조원들과 함께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조원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했으며, 동시에 실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번 학기에 의약품 합성학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였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학습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다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학습지원센터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b>활동사진</b></p>	<p>스터디를 위해 성실하게 준비를 했으며, 한 번도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모인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단지 학점만을 위해 암기형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조원들과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면서 의약품 합성학에 대한 고찰을 해볼 수 있었기에 더욱 유익한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이번 스터디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합성학에 대한 공부를 이어 나가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조원은 아니지만 함께 학년을 올라갈 학우들과도 자료를 공유하여 함께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고, 앞으로도 공부를 할 성실한 조원들의 사진입니다.</p> 





교과 스터디

## 김소예소예

- **학습과목:** 식품화학
- **학습장소:** 학관, 상록학사 셀프주방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4일~2018년 12월 06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10/04	16:30~18:00	학관	소모임원들과 앞으로 어떻게 스터디 모임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의논하고 학습 틀과 룰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18/10/11	16:30~19:00	상록학사 셀프주방	식품의 갈색화현상 (Browning)에 대해 공부해오고 자료들을 공유하며 튜터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주고 질문을 받았다.
18/11/01	16:30~18:20	상록학사 셀프주방	식품의 지방질에 대하여 공부해오고 자료들을 공유하며 튜터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주고 질문을 받았다.
18/11/08	16:30~18:20	상록학사 셀프주방	식품 유지의 물리적인 성질에 대하여 공부해오고 자료들을 공유하며 튜터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주고 질문을 받았다.
18/11/15	16:30~18:20	상록학사 셀프주방	식품 유지의 화학적 성질과 쇼트닝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공부해오고 자료들을 공유하며 튜터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을 받았다.
18/11/28	18:30~20:00	상록학사 셀프주방	소모임을 끝내기 전 화식 통해 그동안 가졌던 스터디 모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8/12/06	12:00~13:30	학관	기말고사 전 마지막 스터디 활동으로서 기말고사 시험범위를 한번 정리하고 물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b>팀장 소감 :</b> 스터디를 제안하고 기획한 사람으로서 팀원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준비했던 것 같다. 시간을 맞추거나 스터디를 진행할 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부족했던 팀장 밑에서 팀원들이 그래도 잘 따라 와준 것 같고 나름 성공적인 스터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한 명도 스터디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주었고 트러블 없이 잘 끝마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다. 성적이 나오기 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이다 보니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나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었고 우리 팀원들 모두 이번 스터디를 통해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p> <p><b>팀원 소감(종합) :</b> 이번에 스터디를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식품화학이라는 과목이 워낙 생소한</p>
-----------------------	--

단어도 많고 복잡한 화학적인 메커니즘이 들어있어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팀장이 잘 풀어서 설명해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팀장이 준비를 잘해 와서 한편으로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해야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하는 자극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 중간 맛있는 것을 사줘서 너무 좋습니다 ㅎㅎㅎ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습니다

활동사진



저희 팀의 장점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전원 출석했다는 점입니다. 팀원 중 한명이라도 시간이 안 맞으면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모임도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기 마련이며, 전 내용을 몰라서 다음 내용에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튜터가 되어 설명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는 팀원들이 있어서 그냥 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팀장인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팀원들이 그 기분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교과 스터디

## 독신만세

- **학습과목:** 독성학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1일~2018년 12월 03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 10. 01	17:00~19:00	과학관 105호	독성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책과 필기를 통해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여 학습.
18. 10. 08	17:00~19:00	과학관 105호	독성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책과 필기를 통해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여 학습.
18. 10. 22	17:00~19:00	과학관 105호	독성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책과 필기를 통해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여 학습.
18. 10. 29	17:00~19:00	과학관 105호	독성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책과 필기를 통해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여 학습.
18. 11. 05	17:00~19:00	과학관 105호	독성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책과 필기를 통해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여 학습.
18. 11. 12	17:00~19:00	과학관 105호	독성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책과 필기를 통해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여 학습.
18. 11. 19	17:00~19:00	과학관 105호	독성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책과 필기를 통해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여 학습.
18. 11. 26	17:00~19:00	과학관 105호	독성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책과 필기를 통해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여 학습.
18. 12. 03	17:00~19:00	과학관 105호	독성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책과 필기를 통해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여 학습.

###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독성학은 약학에 대해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 병태생리학과 약물학, 예방약학, 약제학 등이 총망라된 과목으로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학습의 효과가 더 커지는 과목이다. 따라서 교과 스터디를 통해 각자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함께 의논하고 찾아보면서 학습하는 것이 독성학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독성학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업을 들은 후 각자 정해진 분량까지를 공부한 뒤에 서로에게 설명해주면서 자기 자신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설</p>
-----------------------	---

	<p>명을 통해서 상대방도 몰랐던 부분이나 흥미로운 부분들을 기억하게 되어 암기를 쉽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통해서 공부한 결과 다른 교과들의 공부에서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두세 배 더 효과적으로 학습이 가능하였다.</p> <p>독성학 시험기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공부를 했다.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서로 문제를 내며 o, x형태를 통해 자신이 복습한 내용을 다시 점검하였고, 혹시 꼭 미리 알아 둬야할 부분이 생기면 서로에게 구두로 문답하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성학 시험 대비를 통해 따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시험공부를 할 수 있었다.</p> <p>뿐만 아니라 독성학 시간에 필수적으로 해야 했던 개인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주제를 정하거나 정해진 주제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를 교과 스터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 서로 상대방이 발표할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며 어떤 내용이 보완되어야하고 어떤 내용을 더 숙지해야할지 피드백을 통해서 발표를 할 때 한결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발표 전에 미리 발표과정을 연습해보면서 어떠한 발표자세가 좋은지 또한 발표내용을 암기하는 정도가 적절했는지를 서로 알려주었다. 그로 인해서 정규 수업시간에 교수님 앞에서 독성학의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다른 학우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때에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학우들에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 원활히 설명할 수 있었다.</p>
<p><b>기타</b></p>	<p>교과스터디를 통해서 독성학뿐만 아니라 약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스터디에 자주 참여하여 학교 교과과정을 철저하게 복습하고,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정진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p>

- 학습과목: 생화학
- 학습장소: 차콰이어방
- 학습기간: 2018년 09월 10일~2018년 12월 12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09.10	17:00-21:30	차콰이어방	14.1 Glycolysis - 김현민 14.2 Feeder Pathways for Glycolysis - 김효정
18.09.12	17:00-21:30	차콰이어방	14.3 Fates of Pyruvate - 신대웅 14.4 Gluconeogenesis : Precursor for Carbohydrates - 박홍범 14.5 Pentose Phosphate Pathway - 송인석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각자 해당되는 부분 공부 후 설명함
18.10.08	19:00-22:00	차콰이어방	16.1에서 Acetyl CoA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16.2 에서는 TCA cycle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16.3에서는 regulation, 16.4 The Glyoxylate cycle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18.10.15	19:00-22:00	차콰이어방	17.1에서 Fatty acid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후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 학습 17.2에서 분해된 fatty acid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룸 17.3에서는 이 CAC가 돌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에너지를 생산할 무언가인 ketone body에 대해,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성되며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공부하였다.
18.12.04	20:00-2:00	차콰이어방	22.1에서 질소 고정과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학습 22.2에서 고정된 질소가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데 어떻게 쓰이며 아미노산 각각이 어떤 precursor로부터 생성되는지 학습 22.3에서는 아미노산으로부터 porphyrin, creatine, phosphocreatine, plant substance 등이 어떻게 합성되는지 학습함.
18.12.12	21:30-4:00	차콰이어방	저번에 스터디 했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시험 전날이어서 어떤부분들을 꼭 외워야 하는지와 각 파트들의 내용이 어떤식으로 출제될지에 대해 분석하여 준비된 내용들을 토대로 스터디 부원들에게 설명해주었고, 학습내용은 저번 스터디와 동일하다.

활동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b>박홍범</b> - 올해 초반에 스터디를 시작할 때는 다들 서툴러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준비 과정이 힘들어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1년의 시간 끝에 제법 그럴싸한 스터디를 하게 되면서 도움도 많이 얻게 된 것 같아 기쁘다. 내년에도 기회만 된다면 스터디를 계속하고 싶다.</p> <p><b>김효정</b> - 혼자 공부하기 힘들 때 스터디가 큰 힘이 되어주었다. 특히나 슬럼프의 시기 때에는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자신들이 공부한 내용을 알려준 덕에 두 학기의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다.</p> <p><b>송인석</b> - 학기 초엔 생화학에 흥미가 없었다. 암기 위주의 과목이다 보니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감도 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던 찰나,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생화학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된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p> <p><b>김현민</b> - 1학기 때는 스터디에 성실히 참여한 편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환경들 탓에 따로 공부를 한 경우가 많았고, 대개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2학기에 들어와서 스터디를 하려고 파트를 나누는데, 사다리타기를 하는 족족 핵심 파트들만 걸렸다.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이어나갔는데, 나중엔 그렇게 공부했던 내용이 이어지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p> <p><b>신대용</b> - 1학년 때부터 스터디를 같이 하자고 친구들에게 말해왔었지만,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공부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많은 분량을 미리 공부해서 알려주기도 하였고, 다른 일들로 내가 너무 바쁠 때는 미리 공부한 친구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돌아켜봤을 때 스터디는 탁월한 선택이었음이 분명하다.</p>
-----------------------	---


<p>활동사진</p>	
-------------	--

- 학습과목: 물리화학 2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11월 07일~2018년 12월 07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 7	17시~18시	과학관 105호	약학에서 이용되는 물질 이동현상의 주제는 정제, 산제 및 과립으로부터의 약물의 방출 및 용출; 동결건조, 한외여과 및 다른 역학적 과정; 연고 또는 좌제 기재로부터의 약물방출; 수증기, 기체, 약물, 부형제의 코팅, 포장, 필름을 통한 통과; 생체조직에서의 약물의 흡수와 분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11.23	17시~18시	과학관 105호	Liquid interface에는 액체-액체 계면과 액체-기체 계면이 있으며, Solid interface에는 고체-액체 계면과 고체-기체 계면이 있다. Liquid interface의 예로는 유제 emulsion (액체-액체), 대기에 노출된 수면 (액체-기체)이 있다. (이하 생략)
11. 26	17시~18시	과학관 105호	질량 작용의 법칙에 의하면 화학반응의 속도는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A와 B의 분자수(a와 b)의 역으로 한 각각의 반응물에서 몰농도의 곱에 비례한다. 반응물의 하나가 대단히 과량으로 존재하여 농도가 일정하거나 거의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에 그 반응은 유사차수 반응(겉보기반응)이라고 부른다. (이하 생략)
12.01	1시~2시	과학관 105호	콜로이드입자에 하전이 있고 없음, 그리고 그 하전의 크기는 콜로이드 계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콜로이드계의 안정화는 다음과 같은 두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 분산입자에 전기적 하전을 주는 방법이 있고 2) 또 하나는 입자 주위를 보호 용매층으로 둘러싸아 운동의 결과로 입자가 서로 충돌할 때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다. (이하 생략)
12. 6	5시~6시	과학관 105호	분산매의 점도는 용매화되지 않고 대칭성인 소용매성 콜로이드입자에 의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소용매성 분산은 아주 낮은 농도의 전해질에 의해서도 매우 불안정하다. 이 효과는 입자의 전하가 중화되기 때문이다. 소용매성 콜로이드는 보호 효과를 가진다. (이하 생략)
12. 7	5시~6시	과학관 105호	현탁제 (비응결입자 50% 이상 농도) 뉴턴 흐름보다 기울기 작음, 처음에는 점도가 없는 것처럼 잘 밀리다가 어느정도 힘 이상에서는 더 이상 속도 증가 하지 않음. 밀집되게 충전된 입자들이었다가 느슨하게 충전되어 확장된 입자들이 되고, 입자 공극 부피는 증가하고 기체는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굳어져서 점도가 커진다. (이하 생략)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물리학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어렵기로 유명한 과목이었다. 하지만 교과스터디를 통해 같이 물리학에 대한 마인드 맵 등을 그려보면서 중요한 원리들을 확실히 깨우칠 수 있었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알아가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가 되었다. 특히 유동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어려웠는데 텍스토로피, 소성흐름, 유사소성 흐름등을 배우면서 정확히 많이 암기 할 수 있었다.</p> <p>앞으로도 차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교과스터디를 한다면 모두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거라 믿는다.</p>
<p><b>활동사진</b></p>	

교과 스터디

**병태의 노력 천재들**

- **학습과목:** 일반화학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09월 25일~2018년 11월 27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 09. 25	18:00~20:00	과학관 105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8. 10. 02	18:00~20:00	과학관 105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8. 10. 23	18:00~20:00	과학관 105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8. 10. 30	18:00~20:00	과학관 105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8. 11. 06	18:00~20:00	과학관 105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8. 11. 13	18:00~20:00	과학관 105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8. 11. 20	18:00~20:00	과학관 105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8. 11. 27	18:00~20:00	과학관 105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이번 '병태의 노력천재들' 스터디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업적으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약학과 공부를 하면서 많은 학업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병태생리학의 경우 상당히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법이 필요하였다. 스터디 활동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여러 학우들과 학습을 통해 업무분담 및 내용의 요약정리와 같은 활동으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더불어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였다. 수업시간 내용을 정리한다고 해도 잘못 이해하거나 오개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학우들과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정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일정시간 일정분량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고 매주 튜</p>
-------------------	--

	<p>터 역할을 로테이션으로 하여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스터디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한다.</p> <p>매주 진행되는 튜터링 활동은 스터디 원들이 학습내용을 구성원들 앞에서 발표 및 요약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내용적인 발표와 정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발표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 실제 학습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여부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스터디원들의 학업적 성취도 증대 및 향상을 이루어 내었다.</p> <p>정규 스터디활동 시간 이외에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같이 함으로써 스터디원들의 자연스러운 공부 환경을 조성하였다. 스터디 활동시간 만으로는 완전한 이해와 학습을 마무리 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같이 학습하는 시간이 많아서 지치지 않고 많은 시간 학습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선의의 경쟁심과 더불어 동질감이 형성되어 급우들 간의 친밀감과 우애가 향상되었고 자율적인 공부 분위기가 형성되어 스터디 교과목 이와 다른 전반적인 과목들에 대한 학습 습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내었다.</p> <p>결과적으로 이번 스터디 활동을 통하여 스터디원들 모두가 지난학기보다 일정 수준의 성적향상을 이루었고 스터디 초기에 목표한 개인의 학업성취 달성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학업적인 성과와 더불어 학우들과의 교우 관계가 더 깊어 질 수 있었고 어려운 공부를 보다 긍정적이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p>
<p><b>기타</b></p>	<p>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초기에 학업성취도를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구성원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성취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스터디를 통해 정리된 자료들을 향후 후배들에게 학업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집단 학습효과를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던 공부의 잠재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좋은 기회에 대하여 주변 학우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p> <p>앞으로도 차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람 있고 즐거운 학습과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러한 여건을 마련해 준 학교에 감사를 표한다.</p>

교과 스터디

## 생물남바쓰리

- **학습과목:** 인체생리학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24일 ~ 11월 28일
- **학습일지**

스터디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24	16:30~17:30	과학관105호	Arrhythmias(부정맥)의 원인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부정맥의 원인, 판막의 이름, heart sound, murmur, volume-pressure 그래프의 해석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10/31	16:30~17:30	과학관105호	Hemodynamics(혈류역학)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혈압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세동맥의 압력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11/7	16:30~17:30	과학관105호	배운 부분에 대한 복습 및 질문시간을 가졌습니다. <Edema , Control of blood flow>. 부종이 생기는 4가지 이유, 혈압을 조절하는 메커니즘3가지, 혈류량을 조절하는 3가지 메커니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11/14	16:30~17:30	과학관105호	배운 부분에 복습 및 서로 질문을 했습니다. <Structure of the lung, spirometer of the lung>. 폐포, 폐의 구성성분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계면활성제와 관련하여 폐포의 안정성을 공부했습니다.
11/21	16:30~17:30	과학관105호	림프계에 대해서 배운 내용에서 서로 궁금한 내용을 교수님께 질문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림프관의 기능과 평활근을 통한 림프관 혈류량의 조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11/28	16:30~17:30	과학관105호	동맥 압력수용기 반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동맥의 carotid sinus와 aortic baroreceptor에서 압력을 인지하여 신경을 통해 교감, 부교감 신경의 활성을 조절하여 변화한 압력에 대해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인체생리학은 판서 형태의 수업이고 판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외워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쉬운 내용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적었지만, 어려운 내용에 대해 학습할 때는 공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스터디원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교수님께 질문하며 공부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틈틈이 모여 진행한 스터디 덕분에 시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p> <p>각 팀원들 모두 배운 내용을 나누어서 학습을 한 뒤에 모여서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공부를 아예 안하자는 않았지만, 자신이 맡은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p>
-------------------	--

감 있게 공부했습니다. 팀원에게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효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을 들으며 놓친 필기에 대해 스터디원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각자 시험에 출제될 것 같은 예상문제를 만들어 공유함으로써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혼자 공부했다면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스터디원과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을 정립했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는 초기에는 갈팡질팡 하기도 했지만 차수가 늘어날수록 저희만의 방식이 생겨 진행하기 수월했습니다. 보통 평소에는 공부를 하지 않다가 시험기간에 몰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한 인체생리학 만큼은 평소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았기에 내용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스터디원들과 이야기 해보았을 때, 모두들 스터디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지원해주신 지원금으로 팀원들과 즐겁게 회식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는데, 회식을 함으로써 더욱 힘을 내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 스터디

**아동바등 공부할래**

- 학습과목: 아동간호학 3
- 학습장소: 카페
- 학습기간: 2018년 10월 18일~2018년 10월 30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18	20시 15분 ~ 21시 15분	아탑역 카페	<p>[세균성 심내막염 복습하기] 교과서와 프린트를 정독한 후 각자 돌아가면서 퀴즈를 출제했다. 세균성 심내막염의 정의, 병태생리, 임상증상, 진단, 치료적 관리, 간호중재 부분을 읽고 이해하고 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퀴즈로 출제하였다. 맞추지 못했을 경우 출제자가 자신이 낸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p> <p>퀴즈1. 세균성 심내막염의 Full term과 원인균은? 정답: bacterial endocarditis, 가장 흔한 원인균은 녹색 연쇄 상구균 (streptococcus viridans), 황색 포도 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칸디다 알비칸스와 같은 진균류이다.</p>
10.18	21시 30분 ~ 22시 30분	아탑역 카페	<p>[가와사키질환 복습하기] 아동기 흔히 발생하는 전신적인 급성 열성 발진성 혈관염인 '가와사키 질환' 부분을 교과서와 프린트를 정독하고 각자 돌아가면서 퀴즈를 출제했다. 가와사키 질환의 정의, 병태생리, 임상증상, 합병증, 진단, 치료적 관리, 예후, 간호중재, 퇴원 부분을 읽고 이해하고 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퀴즈로 출제하였다. 맞추지 못했을 경우 출제자가 낸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어서 중요한 부분을 공유하고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p> <p>퀴즈1. 가와사키 질환의 임상증상 최소 5가지 서술하시오. 정답: 딸기 혀, 수포형성하지 않는 발진, 손 및 발바닥에 홍반, 손과 발의 부종, 경부림파절 종창, 결막 충혈</p>
10.22	20시 00분 ~ 21시 00분	아탑역 빙수가게	<p>[아동기 빈혈 복습하기] 아동기에 발생하는 빈혈은 성인의 빈혈과는 다르다. 발생원인, 호발연령, 치료방법 및 예방법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교수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를 중점적으로 학습했는데, 프린트에 영어가 많고 내용도 간결하게 쓰여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아동간호학 2권을 활용했다. 빈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자 읽고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부를 한 뒤에는 서로 이야기를 하며 수업시간에 필기한 부분,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 책에는 없는</p>





			<p>데 프린트에는 있는 부분 등등에 대해서 대화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p> <p>-학습내용</p> <p>1)빈혈-적혈구의 양 또는 헤모글로빈 농도가 정상이하로 감소된 것, 영아기와 아동기에 가장 흔한 혈액학적 질환이다.</p> <p>2)분류기준-원인에 따라 적혈구의 손실, 적혈구의 파괴, 적혈구의 생성 저하로 나뉘며 이는 간호계획의 방향을 알려준다. 형태에 따라 적혈구의 크기, 모양, 색깔로 나뉘는데 이는 빈혈의 원인을 밝힐 때 사용된다.</p> <p>3)Average value 값-적혈구는 450만~550만/mm(3제곱), 헤모글로빈은 11.5-15.5g/dl.</p> <p>4)병태생리-혈액의 산소 운반능력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세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소량이 감소한다. 이는 서서히 진행하여 아동은 적응하게 되나, 임상 증상이 나타날 만큼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면 조직의 저산소증이 유발된다.</p> <p>5)증상-순환계는 피부창백, 저산소증, 청색증(동맥혈의 산소와 결합되지 않은 헤모글로빈의 양 증가), 빈맥, 신부전 등등, 신경계는 두통, 현기증, 집중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등이 나타난다.</p>
10.22	21시 00분 ~ 22시 00분	야탑역 빙수가게	<p>[철분결핍성 빈혈 복습하기]</p> <p>앞 시간에 빈혈을 공부해서 전반적으로 빈혈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은 후, 빈혈의 유형중 하나인 '철분결핍성 빈혈'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 퀴즈를 내었다. 프린트와 전공책을 이용해서 이해한 후에,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퀴즈를 냈다. 문제를 낸 사람은 정답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았다.</p> <p>퀴즈1. 철분결핍성 빈혈을 위한 간호중재 3가지를 말하시오. 정답: 철분결핍성 질환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철분 강화된 조제유를 사용하고 고형식음식을 주도록 권장한다. 철분제제 투약은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약 2~3개월 동안 계속 공급한다.</p> <p>퀴즈2. 혈청철분농도, 헤모글로빈, 저장된 철 중에, 아동의 빈혈 치료 시에 먼저 채워지는 순서대로 말하기. 정답: 헤모글로빈-혈청철분농도-저장된 철</p>
10.23	19시 30분 ~ 20시 30분	야탑역 카페	<p>[아동기 전염병 복습하기]</p> <p>수업시간에 받은 아동기 때 유행하는 전염병에 대한 유인물을 활용했다. 전염병은 총 8가지로, 디프테리아, 성홍열, 수두, 풍진, 홍역, 이하선염, 소아마비, 백일해로 구성된다. 동그들이 조별로 조사하고 발표 후, 교수님이 중요한 내용과 빠진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었다. 교수님께서 재차 강조해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각 전염병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유인물을 각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후, 퀴즈를 내서 중요 포인트를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했다.</p> <p>-정리한 중요포인트 예시</p> <p>성홍열: A군 연쇄구균(GABHS), 비말전파, 발진- 수포형성하진 않음, 갑작스런</p>

			<p>고열 이후 흰 딸기혀에서 붉은 딸기혀로 변화하는 것이 특징. 예방접종이 없다. 항생제 치료 필수. 항생제 투여 1~2일후 까지 전염력이 있다. 가와사키병과 구별 필요함.</p> <p>-위와 같이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및 바이러스의 명칭, 전파방법, 양상 및 증상, 간호중재, 예방법, 언제까지 전염이 가능한시기인지 등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암기했다.</p>
10.30	12시 50 분 ~ 13시 50분	학교 강의실	<p>[아동기 전염병 문제풀기] 수업시간에 받은 유인물로 복습 후,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고시 문제집을 다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를 읽고 나서 각자 돌아가면서 문제의 답과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답을 확인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보면서 왜 답이 아닌지, 왜 답인지, 왜 틀린 답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총 20문제를 같이 풀고 토의를 했다.</p> <p>문제1) 8세 여아는 3일전부터 발열, 두통을 보이다가 전일부터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접하는 부위에 심한 발진, 딸기 모양의 혀 등의 증상으로 성홍열 진단하에 1인실로 입원하였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1)방문을 자주 열어 환기한다 - 전염력이 강하므로 환기는 최소화 한다 2)예방접종을 통해 예방가능하다 - 성홍열은 예방접종이 없다 3)환아 접촉시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한다 4)치료를 시작하고 일주일간 호흡기 격리가 필요하다 - 항생제 치료 후 1~2일까지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환아의 이동은 최소화하며 이동 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정답</p>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b>민정현:</b> 이번 교과스터디를 하면서 아동간호학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선 3명이 함께 시간을 정해 놓고 문제 맞추는 공부 방법은 서로 서로 자극이 되어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다. 아무래도 조원들이 열심히 해주어서 나도 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하게 되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간호학과의 경우 학사 일정이 다른 학과와 달라 서둘러서 모든 만남을 끝내야 했던 점이 조금 촉박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또 이런 스터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좀 있으면 아동간호학 성적이 나오는데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p> <p><b>박소하:</b> 일단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서 개인이 혼자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특히 혼자라면 미리 안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을 내서 하게 되어서 뿌듯했다. 아쉬운 점은 간호학과 3학년은 시험기간이 빠르고 실습을 하다 보니 11월, 12월까지 쪽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도 배려해주셨고 좋은 프로그램이라 다음에도 하게 된다면 기회가 되면 신청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되면 좋겠다~</p> <p><b>유세람:</b> 내가 제일 기피했던 아동간호학이 우리의 스터디 과목으로 선정되었다. 시험기간에 닥쳐서 급하게 공부하는 과목이라 조금 걱정되기도 했다. 스터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모르는게 많지 않을까. 아동간호학이 너무 싫어서 스터디도 하기 싫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동기들이랑 시간을 정하고 하니깐 안하거나 미룰 수 없었고, 공부할 땐 집중해서 공부하고 집중이 안될 땐 조금 얘기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해서, 아동간호학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한</p>
--------------------------	---



	<p>가지 아쉬웠던 점은, 간호3학년은 실습 한 달이 끼어서 중간기말 시험을 앞당겨서 보게 되어서 그게 스터디 모임 일정을 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다. 신청하고 승인되고 나니, 곧 기말이고 기말 끝나면 바로 실습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야 해서 조금 당황했던 것 같다. 다행히 일정 조율이 잘 되어 스터디 잘하고 끝마칠 수 있어서 좋았다.</p>
<p>활동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한 동기들이랑 같이 해서 스터디 모임약속 정하기도 쉬웠고,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했다. 서로 궁금한 점, 잘 알고 있는 부분 등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li> <li>- 아직 성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로 중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에서 시험문제가 여러 문제 나왔고, 호발연령, 원인 균 및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 퀴즈를 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li> <li>- 스터디 모임을 위해 학교 밖에서도 모여서 밥 먹고 카페 가서 공부하니까 더욱 친해진 것 같고, 혼자였다면 계속 미뤘을 아동간호학 공부를 미리 복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li> </ul>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교과 스터디

**약물학 뽀개기**

- 학습과목: 약물학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6일~2018년 12월 14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8.10.6	17-19시	과학관 1층	약물학 32장. 남용약물과 오피오이드 수용체 복습.
2018.10.7.	17-19시	과학관 1층	약물학 책장호르몬 및 항 당뇨병약 복습
2018.10.30.	20-22시	과학관 1층	약물학 33장. 혈구감소증에 사용되는 약물 복습
2018.11.6.	20-22시	과학관 1층	약물학 39장.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및 부신피질 길항약 복습
2018.11.12.	20-22시	과학관 1층	약물학 35장. 이상지질혈증 치료약 복습
2018.11.28.	20-22시	과학관 1층	약물학 36장. NSAID, DMARD, 비아편유사 진통약 및 통풍치료약 복습
2018.12.14.	3-5시	송우리 스타벅스	약물학 시험에 대한 피드백. 다음학기 약물치료학 과목을 위한 방학중 약물학 복습 계획 수립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교과목 스터디를 통해 동기들과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 뿐만 아니라 약물학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약물학과목은 과목특성상 양이 방대하고 암기할 내용이 많아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를 동기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 스터디를 하고 공부하니 혼자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었다.</p> <p>이번 학기 스터디는 약물학 후반부 범위인 32장부터 42장까지의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혼자 공부하기 어렵거나 양이 많은 32장, 33장, 35장, 36장, 39장 및 43장은 스터디 시간에 함께 복습하고 공부하였다. 스터디 내용은 복습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의 필기와 약물학 교재, 그리고 선배님께 받은 약물학 요약정리파일을 보면서 모르는 내용을 정리하고 또한 서로에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p> <p>또한 매 스터디마다 스터디 조장을 정하여 그 때 그 때의 스터디를 주도하고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제도가 조원들의 책임감을 느끼고 스터디를 더 돈독하게 지속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p> <p>또한 직접 말하면서 설명해주다보니 설명해주는 사람도 머리에 더 잘 정리가 되었고 설명을 듣는 조원도 내용의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스터디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회차 스터디까지는 복습내용의 정리를 직접 노트 혹은 한글 파일, 스터디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였다. 이는 약물학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공부시에 큰 도움이 되었고 향후 5학년 과목인 약물치료학을 공부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p> <p>차근차근 공부한 결과 조원 모두 약물학 과목의 이해도가 훨씬 증가하였고 방학 중에도 약물학 복습 정리를 하려고 계획 중이다. 열심히 노력한 조원들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으며 이번 약물학 기말고사 성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본다.</p>
-------------------	--

열정으로 똘똘 뭉친! “약물학 보개기”팀! 우정 돈독! 공부 열심!

활동사진



교과 스터디

## 에이쁘리

- **학습과목:** 데이터 경영분석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11월 26일~2018년 12월 11일
- **학습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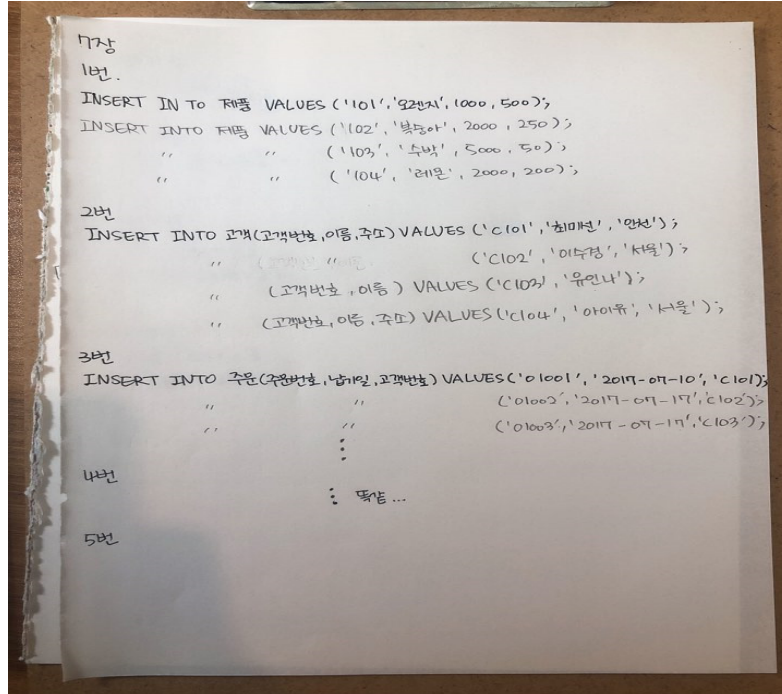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26	3:00~6:30	카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11/28	4:00~6:00	미래관201호	데이터모델, 릴레이션 개념
11/30	2:00~5:00	카페	관계대수, 테이블 관리
12/3	12:00~1:30	미래관201호	컴활 1급 필기 2과목 '사용자 지정 서식'
12/4	11:30~1:00	카페	데이터 관리- 데이터 입력, 데이터 수정, 데이터 삭제
12/11	10:00~11:30	카페	데이터 검색 -기본적인 SELECT 명령문 -WHERE 절을 이용한 조건 검색

###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b>이지연 :</b> 데이터 경영분석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나서 강의 커리큘럼을 봤을 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학습지원센터에서 학습법 소모임을 한다는 것을 보고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데이터 경영분석은 공부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스터디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려주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스터디를 처음 하는 것이어서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우선 서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같이 만나서 스터디 할 때는 서로가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유했다.</p> <p>만약 혼자 공부 했을 때라면 오래시간 걸려서 이해하고 공부해겠지만 스터디를 하니 내가 놓친 부분도 공부를 할 수 있고, 혼자 공부했을 때보다 이해하는 시간도 빨라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스터디를 하고 싶다.</p> <p><b>박수진 :</b> 교과목 스터디를 진행하니 시험 일주일전이나 이주일전에 시험범위만 베퉼기해서 공부했던 공부법을 버릴 수 있었다. 또한 계획한 스터디 시간외에도 수업 시작 전과 후 시간에 수업내용을 복습하거나 예습해 수업의 집중도가 좋아졌다. 서로의 암기법이나 요점정리를 공유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배운 개념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자 동일 개념인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증 준비도 쉽게 도전 할 수 있었다. 자발적으로 기말고사 이후 스터디 시간을 만들어 필기부분을 모두 공부했기 때문에 2019년 첫 시험인 1월 달에 컴퓨터활용능력</p>
-------------------	---

1급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같이 도전해보려고 한다. 스터디원 모두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해 유족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한 학기동안 열심히 스터디를 준비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공유해준 팀원 지연이와 즐겁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학교 학습지원센터에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활동사진



교과 스터디

**원준이와 아이들**

- **학습과목:** 보건학, 보건의료산업 정보 분석관리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11일~2018년 12월 06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11	21:00~23:00	미래관4층	보건학(1.공중보건~2.역학 및 감염병 관리)
10/18	12:30~15:20	미래관209호	보건학(건강증진)
10/25	12:40~15:20	과학관507호	정보분석관리(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의 개념 및 쿼리)
11/14	16:30~19:10	미래관2층	보건학(기생충감염관리,인구학)
11/19	18:00~20:00	미래관209호	정보분석관리(DBMS 품 작성 및 관리)
12/6	16:30~18:30	미래관209호	산업보건,보건교육과 모자보건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이번 스터디를 계획하면서 학습목표는 “각 수업내용의 목표와 중요성을 학습하자.”에 집중했고 또한 성적을 b+이상 맞는 것에 집중을 했고 다들 본인이 맡은 역할에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했으며, 학습 목표(B+)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손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p> <p>저희 스터디 조는 한정된 장소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답형식으로 서로 질문도 해주고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눈높이 맞게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가 청소년 시절부터 활용했던 공부법등을 사용해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동기들과 학습 하면서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p> <p>학과동기들과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지루하기만 했던 학습활동이 친구들과의 친목도모 활동처럼 느껴지고, 과목 별로 서로 다른 필기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누구한명도 손해 볼 것 없는 활동이었으며, 조원모두 원원전력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p> <p>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공부가 귀찮았던 일상에 의무감을 부여해 주었으며 제 학습방식의 터닝포인트가 된 활동이었습니다. 조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암기 싸움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여된 라이벌 의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매우 만족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인드로 조원들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며, 기회가 된다면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다방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p>
<b>기타</b>	<p>이번에 스터디를 한 결과물을 통해서 다음 스터디를 위해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골라내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 더 나은 스터디를 만들 계획이다.</p>

- 학습과목: 인체생리학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11월 07일~2018년 12월 11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7	17시~ 18시	과학관 105호	근육은 인체를 구성하는 4개의 조직 중의 하나다. 화학에너지로 힘과 움직임 만들어내는 능력이 대부분 세포에서 제한적이지만, 근육세포에서 이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근육은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힘과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또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이하 생략)
11.23	16시-17시	과학관 105호	electrical activity of the heart에 대하여 배웠다. 즉, cardiac action potential in myocardium cell에 대하여 배웠다. phase 0부터 phase 4 까지 있다. phase 4에서는 심장 세포는 RMP(Resting membrane potential) 상태이다. (-90mV) 이 시기 동안에는 K <sup>+</sup> 이온에 대한 막 투과도가 점점 올라간다. (이하 생략)
11.27	16시-17시	과학관 105호	부정맥의 원인  원인 1) Altered SA rhythm a. ECG의 형태는 같다. b. Heart rate 이 변한다 ( simus-tachy cardia : HR>100 , simus-bradycardia : HR<60 ) c. R-R interval이 원래 1초 정도인데 줄어들어서 1초 미만으로 됨 (이하 생략)
12.03	4시-5시	과학관 105호	Muscle Physiology 근육의 신호전달 기작을 파악하고 필기를 통해 복습하였다.
12.6	19시-21시	과학관 105호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기작-> 심장의 valve가 열리거나 닫힐 때 발생한다. 제 1심음: mitral valve close, 제 2심음: Aortic valve close (이하 생략)
12.11	19시 -20시	과학관 105호	4) Heart failure (심부전, 심장기능 상실)  Heart failure -> Cardiac output rkat -> AP 감소 -> 사구체여과율 감소 -> water loss감소 -> blood volume 증가 -> Pip 감소 -> Edema (이하 생략)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인체생리학은 암기량이 매우 많아 어렵기로 유명한 과목이었다. 하지만 교과스터디를 통해 같이 인체생리학에 대한 백지복습을 하면서 중요한 원리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가 암기가 잘 안된 부분을 알아가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가 되었다. 특히 심장의 수축주기와 그에 따른 PQRST파 대한 이해가 많이 어려웠는데 스터디에서 각각의 상황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서로가 가르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었다.</p> <p>앞으로도 차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교과스터디를 한다면 모두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거라 믿는다.</p>
<p><b>활동사진</b></p>	



교과 스터디

## 영유아

- **학습과목:** 의약품제조화학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09월 24일~2018년 12월 03일
- **학습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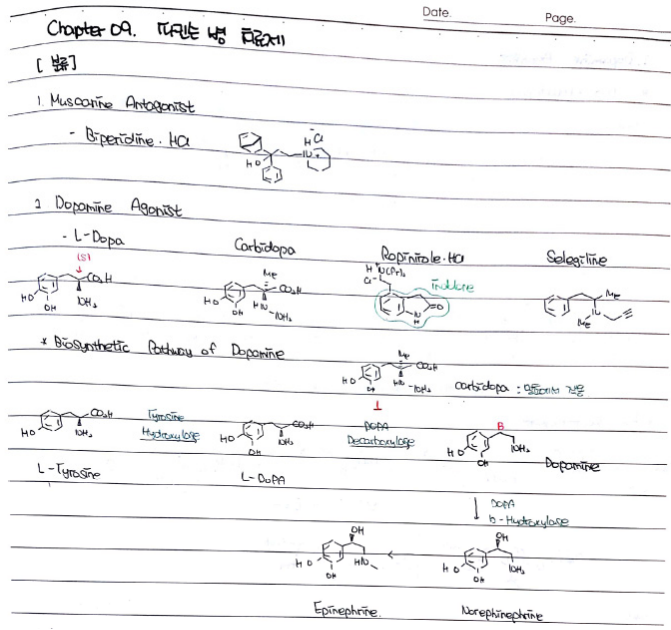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9/24	15 : 30 ~ 17 : 30	과학관 105호	수업시간 필기를 서로 공유하여 놓쳤던 부분을 확인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10/8	15 : 30 ~ 17 : 30	과학관 105호	중간고사를 앞두고 서로가 잘 이해가지 않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헛갈렸던 내용에 대해서 보다 확실히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중간고사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11/11	15 : 30 ~ 17 : 30	과학관 105호	중간고사 이후 다소 느슨해졌던 공부 습관을 서로의 필기정리 공유를 통해 다시 한 번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11/19	15 : 30 ~ 17 : 30	과학관 105호	의약품의 메커니즘이 복잡해짐에 따라 수업시간에 놓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정리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1/30	15 : 30 ~ 17 : 30	과학관 105호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기말고사에 대비하여 약물의 구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12/3	15 : 30 ~ 17 : 30	과학관 105호	기말고사를 앞두고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각자가 돌아보고, 이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방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1학기의 유기화학과는 달리 합성학은 유기화학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는 과목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간과 기말을 합쳐 구조만 150개가 넘는 약들을 다루다 보니 이 것 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필기를 하려고 해도 분명 놓치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p> <p>이러한 부분을 스터디를 하면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잘 이해 가지 않았던 내용을 수업 이후에 바로 공유함으로써 수업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었고, 더욱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밀리지 않고 정리를 함에 따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약대 공부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선배들의 말이 가장 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전자이동을 하나하나 신경써가면서 그렸던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에 보다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p>앞으로 있을 4-1학기의 합성학 수업뿐만 아니라 선배들이 양이 정말 많다고 했던 이 외 여러 과목들도 동기들</p>
-------------------	--

과의 협업을 통해서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가면 더 오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한 학기였고, 그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이 스터디였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사진



	의약품합성학 2주차(180903)	2018-09-30 오후 5:23	Adobe Acrobat Doc...	2,669KB
	의약품합성학 CH04,05	2018-10-16 오전 12:...	Adobe Acrobat Doc...	2,376KB
	의약품합성학 CH06,07	2018-10-16 오전 12:...	Adobe Acrobat Doc...	2,126KB
	의약품합성학 ch09,10	2018-11-19 오후 10:...	Adobe Acrobat Doc...	1,588KB
	의약품합성학 CH12	2018-11-25 오후 3:05	Adobe Acrobat Doc...	1,545KB
	의약품합성학 CH14,15,16	2018-11-29 오후 8:37	Adobe Acrobat Doc...	2,465KB
	의약품합성학 Ch17~19	2018-12-15 오후 8:30	Adobe Acrobat Doc...	1,585KB
	의약품합성학11장	2018-11-19 오후 10:...	Adobe Acrobat Doc...	1,812KB
	의약품합성학CH03	2018-09-30 오후 5:23	Adobe Acrobat Doc...	2,032KB
	의약품합성학Ch08	2018-10-16 오전 12:...	Adobe Acrobat Doc...	1,121KB
	의약품합성학ch13	2018-11-25 오후 3:05	Adobe Acrobat Doc...	1,649KB

위 그림과 같이 체계적으로 합성학을 정리 할 수 있었습니다.

- **학습과목:** 의약품 제조화학1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9월 27일 ~ 12월 3일
- **학습일지**

스터디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9 / 27	15 : 30 ~ 17 : 30	과학관 105호	수업이 끝나고 그날 각자 필기한 내용을 공유하고, 합성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됐던 부분을 서로 가르쳐 줬습니다. 또한 각 화합물의 이름과 구조를 매칭 시켜 보고 암기했습니다. 더불어 유기화합물의 기본 골격을 조사하여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10 / 1	16 : 00 ~ 18 : 30	과학관 105호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되짚어 본 후 지나치고 넘어갔던 부분을 다시 짚어보며 이해했습니다. 중간고사에 임박해서 많은 약물의 이름과 구조를 외우기에는 벅하다는 것을 알기에 팀원들과 구두 테스트를 보며 마무리 했습니다.
10 / 8	15 : 30 ~ 18 : 00	과학관 105호	다가오는 중간고사에 대비하여 1학기 때부터 배웠던 인명 반응을 다시 한 번 훑어보고 각 챗터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공유하며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약물을 보고 역합성 과정을 토론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1 / 5	15 : 30 ~ 17 : 30	과학관 105호	그동안 배웠던 의약품의 작용기전과, 구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전자이동을 근거로 메커니즘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질문으로 남겨주신 것을 같이 조사하며 이해했습니다.
11 / 19	15 : 30 ~ 17 : 30	과학관 105호	심장에 작용하는 약물은 크게 4군으로 나뉘는데 각 군의 약물이 어떤 기작으로 작용하는 지 파악하며 스터디 전까지 연습해온 것을 공유하고 서로 공유했습니다. 또한 다시 한 번 약물 구조와 이름을 매칭 시키는 연습을 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12 / 3	15 : 30 ~ 17 : 30	과학관 105호	기말고사에 대비하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챗터를 총망라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스터디 노트를 이용해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시하며 오개념을 고쳐줬습니다. 시험에서 특히 전합성이 어려운 문제인데 출발물질과 마지막 생성물질 두 개만으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을 하며 암기했습니다.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의약품 합성학은 일찍이 선배들이 겁을 줄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거치면서 시험 범위에 다소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해왔고 팀원들 모두가 의기투합하여 잘 참여해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학기 전공필수 과목 중 하나의 큰 산을 잘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팀원들이 돌아가며 튜터를 맡아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부담감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익숙해지고 점점 체계가 잡혀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1학기 때에 잘 하지 않았던 스터디 노트를 꼼꼼하게 작성하면서 수업필기에 스터디 내용을 더해 우리만의 참고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노트는 평상시에 복습할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좋았지만, 시험 시작 전에 빠르게 한 번 더 훑어볼 수 있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피피티를 제공 받은 것이 아니라서 전부 자신의 언어로 만든 노트였기 때문에 기억에 더 오래, 선명하게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했다면 불분명하게 이해되거나 알 수 없었던 부분을 교수님께 여쭙보거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오개념을 갖고 있거나 부족한 부분은 스터디를 하면서 팀원들과 착실하게 고치고 보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됐을 때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계속 진행하면서 역합성 과정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다른 과목들도 범위가 많이 늘어나서 공부할 양이 정말 많았는데 버려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쌓인 지식과, 스터디 노트를 통해 다른 과목에도 시간을 잘 배분할 수 있어 여러 모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기들도 저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답변해줄 때는 스터디에 대한 보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지원해주신 지원금으로 팀원들과 화식을 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에 다소 지치는 와중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팀원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스트레스 역시 풀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2) Gyalobenzoprine : CN6, Antriptiline 과 유사

• Dibenzosuberone 합성부터

\* 참고 AIBN? 전이 상태의 중합 반응에서, 개시제 역할을 한다.

NC(CH3)2C(CH3)2N(CH3)2 → N=N + 2 CH3C(CH3)2N(CH3)2

→ AIBN (Azobisisobutyronitrile)

제 11장 부교과 신경계 정용 양물

① 니코틴성 수용체 작용    ② 무아세틸성 수용체 작용    ③ Acetylcholinesterase (AChE) 이 작용

Neostigmine, Physostigmine, Edrophonium,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Tacrine, Memantine, Amantadine, Mestinon, Prostigmin, Diptropin, Neostigmine, Physostigmine, Edrophonium,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Tacrine, Memantine, Amantadine, Mestinon, Prostigmin, Diptropin

(1) Neostigmine Bromide → AChE inhibitor

스터디 노트 중 일부 발췌

개인 정보라 밝힐 순 없지만, 그리고 학점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팀원 중 하나는 기말고사에서 9등이 올라 만족할만한 성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좋았지만 스터디를 통해 탄탄하게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교과 스터디 **하리보**

- 학습과목: 생화학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10일~2018년 11월 31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월 10일	16시 0분 ~ 17시 30분	북카페	tca cycle
10월 17일	16시 00분 ~ 17시30분	분임 토의실	Fatty acid cycle
10월 31일	6시 00분 ~ 7시 30분	분임 토의실	the citric acid cycle에서 reactions of the citric acid cycle의 기전
11월 8일	7시 00분 ~ 8시 30분	북카페	ETC system과 전자 전달계
11월 25일	6시 00분 ~ 7시 30분	분임 토의실	bacterial photosynthesis
11월 31일	6시 00분 ~ 7시 30분	교내 분임 토의실	Eucaryotic Microbes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2학년이 학습하기에 조금은 어려웠던 생화학이라는 학문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동기들과 스터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알아 갈 수 있었으며 다음 수업을 대비하여 선행학습을 했던 것 또한 교수님의 수업을 따라가는데 있어 스터디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	---

교과 스터디

## 화학 뽀개기

- **학습과목:** 일반화학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09월 04일~2018년 12월 10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09.04	2시간	도서관	전체적인 스터디 계획 및 규칙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고, 규칙을 어길 시 어떤 벌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정하였다.
18.09.11 -18.10.02	3시간	분임 토의실	매주 하루 씩 모여서 돌아가면서 튜터링을 하였고, 그 주에 배운 화학 내용을 복습하였다.
18.10.09	9시간 30분	분임 토의실	화학 시험 예상 문제 제작 및 그 모범 답안 작성하고, 서로 모르는 개념들을 튜터링 해주었다.
18.11.05	3시간 50분	분임 토의실	중간고사 이후 기말 고사 준비를 시작했다. 일반 화학 20장을 시작으로 볼타전지와 기전력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18.11.12	2시간	예비 창업자 보육실 면학관 220호	일반화학 20장을 저번 주에 이어서 기전력과 화학 평형등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18.11.23	3시간	분임 토의실	일반화학 23장 설명과 일반 생물학 퀴즈 만들어 온 것을 풀었고, 일반 생물학 단어 시험도 보았다.
18.12.02	3시간 40분	분임 토의실	일반 생물학 27장 퀴즈 풀기 및 풀이, 일반 화학 20장, 23장 정리하기를 하였다.
18.12.10	3시간	학관 지하 회의실	시험 전 최종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A: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스터디의 공부 방법이 나와 맞아서 좋았던 것 같다. 2학년 때에도 스터디를 통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편안한 스터디 분위기를 통해 많은 스트레스가 없어서 마음에 들었다.</p> <p>B: 스스로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모르는 부분은 스터디 사람들과 물어보면서 소통하고, 다 같이 튜터링을 했더니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서도 모르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고, 덕분에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p>
--------------------------	--

	<p>C: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성적 향상이 있을 수 있었다. 스스로도 열심히 하였고, 모르거나 막히는 부분에는 다른 친구들과 상의하여서 열심히 해결한 덕분에 성적이 올랐던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D: 미리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다. 내 개인 공부가 부족했던 탓인 것 같다. 스터디에서 공부를 끝으로 하지 않고, 개인 공부와 복습을 철저히 하여 2학년부터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성적 향상이 있었긴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공부하도록 해야겠다.</p>
<p><b>기타</b></p>	<p>우리 스터디는 대체로 공부법을 스터디원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스터디원에게는 대체로 잘 맞는 편이었다. 또한 모르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p>







# 비교과 스테디



비교과 스터디

상식뽀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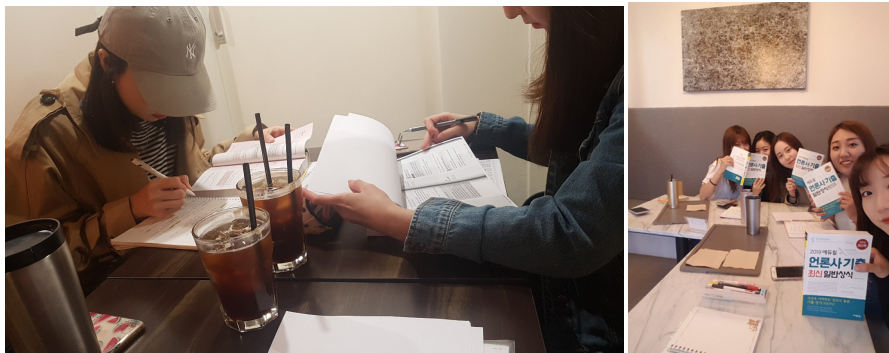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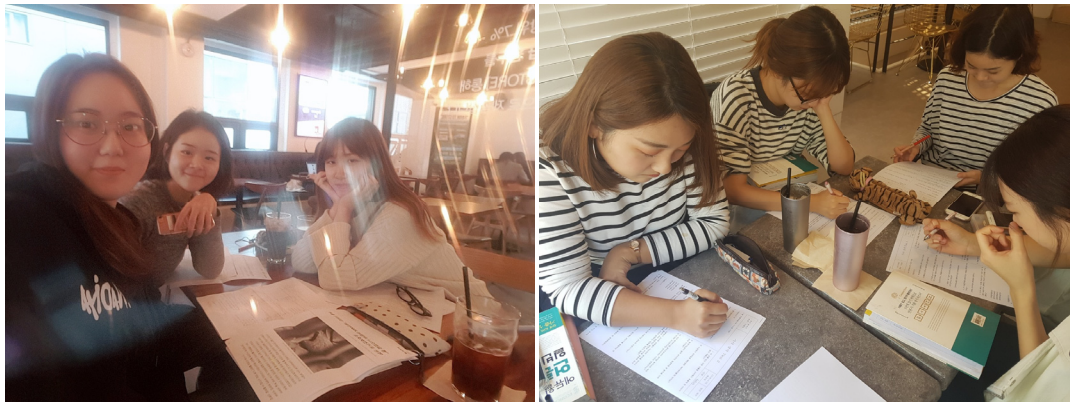


- 학습과목: 시사상식
- 학습장소: 카페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1일 ~ 11월 26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8.10.01.	오후3사~5시 30분	건대 카페 밀피	상식 스터디 운영 방식 결정 및 다음 스터디 범위 예습
2018.10.08.	오후3사~5시 30분	건대 카페 밀피	chapter 1 최다 기출 288선 / 노벨 평화상 수상자, 미미쿠키, 영화 암수살인
2018.10.15.	오후3사~5시 30분	건대 카페 밀피	chapter1최다기출288선/chapter2최신용어30선,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손실 보험 다이렉트, 중국산 통신장비, 수술실 CCTV, 고양 저유지 화재, 리벤지 포르노(불법촬영물, 디지털 성범죄), 음주운전, 어글리 열풍,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2018.10.22.	오후3사~5시 30분	건대 카페 밀피	정치 일반상식 및 강서구pc방 살인사건, 기독교 개종 난민, 택시vs카카오, 장애 아동 학대, 유기견 보호소의 황포, 서울교통공사 특혜, 사우디 언론인 살인 사건
2018.10.29.	오후3사~5시 30분	건대 카페 밀피	일반상식 경제 및 최신시사상식 (위안부 관련, 장성급 회담, 부산일가족살인사건, 서울 곳곳 남비논란, 의사구속, 당당위, JSA비무장화, 낙태죄, 신입원아 모집중단, 조선족) 브리핑
2018.11.05.	오후3사~5시 30분	건대 카페 밀피	일반상식 사회 파트 테스트 및 신빈곤, c정규직전환, 양진호 변호인단, 미국 중간선거, 아동수당 지급, 숙명여고 쌍둥이, 이용주 음주운전, 천식환자 대기 오염 원인, 노인복지,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2018.11.12.	오후3사~5시 30분	건대 카페 밀피	일반상식 국제, 문화, 매스컴 파트 테스트 및 기무사계엄명문건 관련, 경유차 퇴출, 고시원화재(소방시설허술), 레몬법 그루밍 성폭력, 중증외상센터의 현실
2018.11.19.	오후3사~5시 30분	건대 카페 밀피	일반상식 문화, 매스컴, 역사 파트 테스트 및 해경궁 김씨사건, 이수역 폭행사건, 포항약국흉기사건 재청원, 행복주택, 인천 중학생 추락사
2018.11.26.	오후3사~5시 30분	건대 카페 밀피	일반상식 스포츠, 과학 파트 테스트 및 kt화재, 수험표할인거래, 남북철도공동조사, 작품속 달라진 여성들, 통신 3사 협력,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노동정책

활동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b>권희주</b> : 5명 중 4명이 4학년이어서 자소서와 면접으로 피곤한 나날들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일반 상식 테스트에서 벌금을 낸 사람과 횡수가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 성실함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일까 싶었다. 또한 매주 월요일 3시에 지각하는 사람 없이 모두 매주 모여 스터디를 진행한 팀은 우리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니 매우 부듯하다. 혼자서 책 한 권을 보는 것은 힘들지만 함께 모여 돌아가면서 테스트 문제를 내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니 시간 가는지도 몰랐다. 문득 달력을 보니 11월 마지막 주인데다가 9번이나 모였다니! 외부에서 상식 스터디를 해봤지만 역시 친하고 편한 사람들끼리 같이 하니 재미있고, 어색한 시간 없이 바로 공부를 시작하면 되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p> <p><b>이지은</b> : 스터디를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해본 적이 처음이다. 우리끼리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고 쌓여가는 시험지들을 보며 부듯함을 느꼈다. 마지막 학기에 이런 것을 시작한 게 후회된다. 다만 활동비 10만원은 다소 적은 감이 있다! 팀을 적게 뽑고 지원금을 많이 주면 좋겠다. 우리 팀만큼 매주 모여서 열심히 스터디 진행한 팀은 없을 거라 자부한다! 정말 자랑스럽고 부듯한 스터디 경험이었다.</p> <p><b>이정림</b> : 스터디를 모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잘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한 명 한 명 성실하게 임해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공부와 함께 각종 시사이슈들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폭넓은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스터디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교내 소모임을 통해 공부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 해나가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졸업 전에 같은 과 친구들과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든 것 같아 부듯하고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p> <p><b>조안나</b> : 여럿이서 스터디를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과 9주 동안 즐겁게 시사상식 스터디를 했다는 것이 무척이나 부듯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단순히 공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생각의 깊이도 깊어질 수 있었고 여러모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였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p> <p><b>정진영</b> : 길게 느껴졌던 9주가 가을과 함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9주간 우리 사회의 동태를 살피고 여러 시사 이슈들을 파헤치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야기보다 작은 흥미거리들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곤 했는데, 월요일 3시만큼은 친구들과 사회이슈들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뜻 깊었다. 처음과 끝에 이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p>
<p>활동사진</p>	<p>정치, 행정, 법률, 북한, 안보, 경제, 경영, 금융, 무역, 사회일반, 노동, 복지, 환경, 국제정치, 국제경제, 문학, 철학, 마스크, 미술, 음악, 대중문화, 한국어, 세계사, 스포츠일반, 대회 종목별 스포츠, 기초과학, 정보통신(IT)에 대해 9주 동안 공부했다. 다양한 일반 상식에 대해 공부했고, 최신 시사 이슈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했다.</p>



비교과 스터디 **토익을 패고다**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과학관, 취업 창업 보육센터
- **학습기간:** 2018년 09월 28일 ~ 11월 23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9.28	14:00~16:00	과학관 305호	토익 모의고사 3회차 RC 문제풀이 틀린 문제에 관하여 논의(오답 풀이)
18.10.05	14:00~16:00	미래관 202호	토익 모의고사 4회차 RC 문제풀이 틀린 문제에 관하여 논의(오답 풀이)
18.10.26	13:00~16:30	취업창업보육센터	토익 모의고사 RC 5회차를 75분 동안 풀고 틀린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오답을 시행. 토익 YBM에서 인터넷 강의 수강하고 정리 함.
18.11.09	13:00~16:30	취업창업보육센터	토익 모의고사 RC 6회차를 70분 동안 풀고 5분 동안 정답지에 마킹함. 틀린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오답을 시행. 또한 토익 노하우에 대해 피드백을 통해 알아봄 토익 YBM에서 인터넷 강의 수강하고 정리 함.
18.11.16	13:00~16:30	취업창업보육센터	토익 모의고사 RC 7회차를 40분 동안 PART 6까지 풀고 이후 40분 동안 나머지 문제를 풀음. 5분 동안 정답지에 마킹함. 틀린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오답을 시행. 또한 토익 노하우에 대해 피드백을 통해 알아봄. 또한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짐 토익 YBM에서 인터넷 강의 수강하고 정리 함.
18.11.23	14:00~16:00	취업창업보육센터	토익 모의고사 8회차 RC 문제풀이 틀린 문제에 관하여 논의(오답 풀이)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이번 비교과 스터디를 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어서 혼자 했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었을 기간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하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못 풀었던 문제들도 많았지만 점차 횟수가 늘어날수록 시간도 여유로워지고 문제 풀이도 점차 쉬워진 것을 느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니 모르는 것도 공유하고 오답 풀이도 같이 하니 시간도 절약 되고 피드백도 빨리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각자 어디서 약한지 뭐가 더 필요한지를 문제를 통해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단어도 부족하고 문법도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
-------------------	---

천지지만 첫 회보다는 발전된 모습으로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다들 만족한 결과를 안고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습관을 가지도록 해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학습 지원 센터에게 셋 모두 공동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D

**구도하:** 저는 기본기가 많이 부족해 친구들과 달리 인터넷 강의로만 공부를 해서 문제를 같이 풀지는 못했지만 친구들이 이끌어주고 옆에서 질문하면 잘 받아주어서 다행히 토익에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를 매번 신청하면 꾸준히 못 하고 매번 몰아서 들었는데 시간이 따로 주어지니까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험을 응시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제 수준을 알 수 있었고 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지 아니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디가 아니었다면 시험을 빨리 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덕분에 빨리 제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원:** 이번 토익 스테디를 통해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토익을 공부하여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었고,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심심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공부를 진행하여 능동적인 공부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또한 다른 친구들의 공부법을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토익 스테디를 지원 받을 수 있어 금전적인 부분의 지원이 도움이 되었고, 덕분에 원해 온 토익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목표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체득한 공부법을 꾸준히 할 계획이며 더 높은 목표(950점 이상)를 향하여 조원들과 꾸준히 할 의향이 있을 정도로 토익 스테디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을 할 만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마음 맞는 친구들과 능동적인 공부를 실천 하는 시간이 되어 학습법에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박준명:** 혼자서 하기 힘든 토익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주도적인 학습을 하여 좀 더 발전 된 학습법을 터득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학기지만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이었으며 덕분에 친구들과 재밌게 토익을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터득한 공부법을 이용하여 좀 더 좋은 토익 점수를 얻도록 노력 해야겠다 깨달았습니다. 토익 스테디 동안 문제 푸는 시간을 맞추어 학습했지만,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니 긴장하여 목표 점수를 미치지 못한 점수를 얻어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비록 목표 점수를 얻지는 못했지만 토익 스테디가 없었다면 더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규 토익을 좀 더 많이 치루어 봐야겠다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토익 스테디를 같이 진행한 친구들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좋았으며 앞으로도 이번 조원들과 꾸준히 토익을 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비교과 스터디

**밤샘스터디**



- 학습과목: 공모전
- 학습장소: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09월 04일 ~ 10월 29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09.04	16:30	과학관102호	1논문 분석능력 향상
18.09.21	16:30	과학관102호	2논문에 대한 간단한 토론
18.09.28	16:30	과학관102호	3논문의 내용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 토론
18.11.13	16:30	과학관102호	4논문에 대한 간단한 토론
18.10.19	16:30	과학관102호	5논문의 내용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 토론
18.10.22	16:30	과학관102호	6 논문 분석능력 향상 및 소논문 작성
18.10.26	16:30	과학관102호	7논문 분석능력 향상 및 소논문 작성
18.10.29	16:30	과학관102호	8 논문을 읽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논문을 작성함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실제적으로 예전에 제약회사 인턴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중 하나를 소모임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논문을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기들 중에서 논문을 분석하는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동기를 모았습니다. 논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논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읽고 마지막으로 읽은 정보를 바탕으로 소논문까지 써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조원들의 소감을 통합해보았습니다.</p> <p>영어논문을 읽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다가왔지만 점차 익숙해질 수 있었다. 논문 요소 및 평가 등등에 대해서 의약정보학 수업 때 배웠었지만 잘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모임을 통해 다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평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p> <p>처음 읽어보는 논문에 전문용어들도 많아서 해석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단어를 찾아가며, 임상 시험에 대해서 더 찾아보기도 하며 논문을 읽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논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이외에도 임상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추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2학기 의약정보학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논문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논문들을 읽으며 실력을 길러나가고자 합니다</p> <p>약학을 전공으로 한 사람으로서 항상 최신의 약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병원, 제약회사, 공직 등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던 논문을 읽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학부 때부터 논문을 읽는 능력을 기르고 추가로 분석 능력까지 길러 앞으로 필드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아직 많은 논문을 읽</p>
-----------------------	---



지는 못했지만 하나의 논문을 읽더라도 분석틀을 이용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논문에 사용된 개념을 익혀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친숙해지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직접 논문을 써 보는 과정에서 논문의 구성이나 한계점 등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논문을 읽어봤지만 약학 연구에 관련된 논문을 읽는 것은 또 다른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읽게 될, 또 읽어야 할 논문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위해 논문 분석 스터디를 도전하였고, 그 능력을 한 단계 키운 느낌입니다. 논문을 단순히 여러 번 읽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의 분석을 공유하는 것이 나의 분석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논문을 읽고 분석해보고 다 같이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누적된다면 논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확실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사진



-대한약사회 학술제 포스터 논문 출품

비교과 스터디 **Amazing medical**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행복도서관,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17일 ~ 12월 09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10.17	18~20	행복도서관	토익 전차사
18.10.27	18~20	행복도서관	토익 실전문제 풀어보기
18.11.07	18~20	행복도서관	토익 Listening Part 2,3,4 공략
18.11.16	18~20	과학관	토익 Reading Part 5,6
18.12.02	18~20	과학관	토익 Listening part 5,6 + 토익 Reading Part 7
18.12.09	18~20	행복도서관	마지막 만찬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약학과와 간호학과의 만나 소모임을 진행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일 것이다. 여름방학의 특별한 인연으로 알게 된 우리는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도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했다. 차 의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습 스터디 소모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동생들에게 같이 하자 제안하였다. 포천에서의 마지막으로서 2학년 생활이 바빴던 동생들이었지만, 꾸준히 열심히 토익 스터디에 참여해주었다. 또한 보고서도 훌륭하게 작성해 주어서, 어메이징 메디컬팀의 팀장이었지만 어려움 없이 스터디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학교에서 이런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어, 교과 이외의 비교과에도 신경을 쓸 수 있게 해주고, 타과생들과의 연결고리가 단단해지게 만들어주어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 발전해서, 우리와 같이 타과생들이 모여 스터디를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p>
<b>기타</b>	<p>마지막 영수증 지참 서류 등 관련 서류들을 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어려웠다. 매 학기마다 소모임 프로그램이 올라올 때마다 관련 서류들을 새롭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p>

비교과 스터디 CBT2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면학관, 미래관,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09월 28일 ~ 11월 16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09.28	3시간 30분	과학관 305호	토익 모의고사 3회차 문제풀이
18.10.05	3시간 30분	미래관 216호	토익 모의고사 4회차 문제풀이
18.10.26	3시간 30분	면학관자습실	토익 모의고사 5회차 문제풀이 (강윤근, 백지원), ETS 토익 단기 공략 750+ (박건)
18.11.02	3시간 30분	면학관자습실	토익 모의고사 6회차 문제풀이 (강윤근, 백지원), ETS 토익 단기 공략 750+ (박건)
18.11.09	3시간 30분	면학관자습실	토익 모의고사 7회차 문제풀이 (강윤근, 백지원), ETS 토익 단기 공략 750+ (박건)
18.11.16	3시간 30분	면학관자습실	토익 모의고사 8회차 문제풀이 (강윤근, 백지원), ETS 토익 단기 공략 750+ (박건)

활동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b>강윤근 학생 :</b> 한 학기 동안 비교과 토익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인강으로 토익을 공부할까 하다 기술적인 문제풀이 방식을 익히기보다는 영어실력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독학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원하는 목표점수를 얻고자 토익 스터디를 시작하였고 효과는 좋았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독학과 가장 큰 차이를 느낀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나의 푸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배분 하는 연습을 꾸준히 6회 동안 진행하니 틀리는 문제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나기 직전에 본 토익에서 처음에 목표로 한 점수 이상으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상시와 시험장의 분위기가 달라 점수는 연습 때보다 못 나왔기에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꾸준히 연습하면 극복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토익 학원이나 인강을 많이 물어봅니다.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학원이나 인강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함으로써 본인의 점수를 향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성적을 늘리는 것은 장래성을 보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익 스터디에서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학습방법은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틀린 유형들을 묶어서 가장 많이 틀린 3가지 유형에 대해 집중 학습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b>백지원 학생 :</b> 토익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틀리는 문항 수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다만, 토익 신청기간을 잊고 있어 토익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만 이는 방향 중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공부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거나 인강, 혹은 학원 역시 같이하는 친구가 있지 않으면 꾸준히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러한 날에</p>
-----------------------	--

	<p>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했었지만 직접 스터디를 통해 공부하다 보니 정말 스터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동기들과 하는 스터디라 시간 약속을 잡아 공부하기 좋았으며 장소를 정함에도 큰 무리가 없었던 점이 토익 스터디를 하는데 있어 더욱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p> <p><b>박건 학생 :</b> 토익을 처음 공부하는데 방향이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토익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어 조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들과 토익 스터디를 함으로써 학습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익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계획함으로써 목표점수를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한 학기 동안 토익 스터디를 하면서 저의 토익 위치를 알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동기들에게 여러 좋은 학습법을 조언 받을 수 있었던 점, 차후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점들이 이번 한 학기 토익 스터디를 하면서 제일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p> <p><b>종합의견 :</b> 토익을 공부하면서 토익 교재나 토익 응시비 등을 현재도 학교에서 지원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인원에 따라 토익 교재와 응시비를 계산하면 조금은 모자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원비 면에서 좀 더 잘 해결이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스터디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닌 학교 스터디를 활용하여 학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스터디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토익을 학습하는데 있어 질문하거나 학습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줄 지도교수님이 계셨다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학을 하는 동기도 있기에 방과 후에 지도를 받는 것이 한계가 있었던 점도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수정 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개선되는데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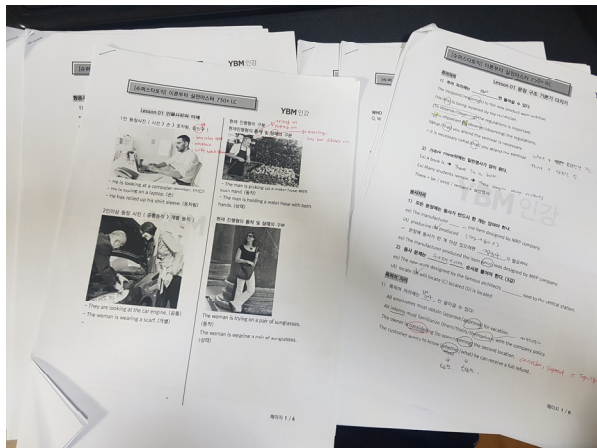
비교과 스터디 Fairy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학관, 셀프주방
- 학습기간: 2018년 10월 18일 ~ 11월 21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18	4:30-6:00	학관	RC lesson 5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대명사'로 인칭대명사, 재귀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관련 내용이다. LC lesson 1 파트에서 현재진행형의 동작 및 상태의 구분
10/25	6:00-8:00	학관	RC 단어테스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숙어 전치사 부분으로 외운거 테스트 하고 복습했다. LC는 1회차 스터디 때 풀었던 부분 스크립트 써오고 part2 풀기.
11/10	4:30-6:00	셀프주방	RC는 명사절VS부사절,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VS관계부사 듣기는 WHY/HOW/일반의문문/선택의문문, 부정/부가의문문
11/15	6:00-8:00	셀프주방	RC는 part6으로 넘어가면서 긴 문단에 여러 개의 문제를 푸는 형식을 연습하였다. LC는 첫 단어가 when,who,where 등 첫 단어를 들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었다.
11/20	4:00-6:00	셀프주방	Rc에서 문맥을 파악하면서 푸는 법-part6을 연습하였다. LC는 기출문제 한 회분을 연습하기로 하였으며, 영국이나 미국발음 차이나는 단어들을 정리하고 암기하였다.
11/21	6:30-8:30	셀프주방	RC는 15강(다중지문 전략 및 문제풀이) LC는 part인 11강(강연, 인물소개 / 광고, 방송)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Fairy팀의 토익 비교과 스터디는 팀원 둘 다에게 처음 시작하는 토익 공부였고, 첫 단추를 끼는 작업을 기초가 탄탄하게 잡아가며 진행하고자 개념과 LC와 RC의 문제 유형 파악을 목표로 시작하였습니다.

YBM 토익 인강을 함께 공유하며 각 회차마다 LC, RC 2강씩을 듣기로 계획하고 각자 인강을 들어오는 것으로 제대로 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 회차마다 팀원들은 이 약속을 지켜냈고, 원활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 강의를 통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워 와서, 서로 몰랐던 개념을 서로에게 알려줍니다.

보통 8문제정도 있는 연습문제들도 초반에는 10분에서 점점 8분으로 시간제한을 두고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념정도 덜 되어있는 상태이고, 처음 접하는 문제 유형이라 틀리는 개수도 많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 회차를 거듭할수록 유형 파악과 조금씩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들을 배우게 되었고, 틀리는 개수도 점점 줄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첫 토익 공부치고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터넷 강의에서 제공하는 (위에 사진 자료와 같이)프린트 자료들을 모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학기 중에 학점관리에만 집중하기도 바쁠 수도 있었지만, 팀원과 시간 관리도 잘 관리하여 토익까지 공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계획하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결과와는 무관하게 부듯한 시간이었고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곧 겨울방학인데, 이번 학기 중의 토익 스터디를 통해 다진 개념을 기반으로 더 심화된 과정을 밟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동계방학까지 더 갈고 닦아서 내년 1학기 개강하기 전에 좋은 성적을 받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개강 할 수 있도록 저희 둘은 노력할 것입니다.

비교과 스터디 **구구공**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분당학사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9일 ~ 12월 19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8.10.09	18:00~20:00	차의과학대학교 분당학사	-Orientation, 토익 만점자들의 학습방법과 현재 조원들 스스로의 학습 방법을 전패우공의 차원에서 되돌아본다.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학습계획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2018.10.16	19:00~21:00	차의과학대학교 분당학사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문법 풀이를 위한 고득점 문법 TIPS
2018.10.22	18:00~20:00	차의과학대학교 분당학사	고득점을 위한 단어 암기, 문법 파트 중 가정법 부분 공부하기
2018.11.	18:00~20:00	차의과학대학교 분당학사	단어를 사용한 예문 만들기, 기사 요약해보기 등
2018.12.17	18:00~20:00	차의과학대학교 분당학사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문법 풀이를 위한 고득점 문법 TIPS
2018.12.19	18:00~20:00	차의과학대학교 분당학사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문법 풀이를 위한 고득점 문법 TIPS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예전에도 동기들과 학습지원센터의 다양한 교과, 비교과 활동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취업을 앞둔 만큼 토익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학과 특성상 시간표가 매우 바쁘고 동기들끼리도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p> <p>특히 11월에 실습이 시작되면서 모임 날짜가 예정보다 조금씩 뒤쳐졌고, 결국 종강 1주일 전에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끝까지 이 비교과 스터디 모임을 끝마친 것이 뿌듯했다.</p> <p>아무리 같은 과고 같은 취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영어 실력이 달랐고, 주로 공부하는 교재나 내용은 똑같았지만 각자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질문 답을 하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 또한, 혼자 공부하면 단어 외우기를 미룰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시험을 보아서 조원 모두가 단어 외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책 외에도 기사 등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려고 노력도 해보았다.</p> <p>우리 조원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취업을 위해 토익 시험을 본다. 이 시험을 위해 준비한 만큼 이번 토익 시험에</p>
-------------------	---

서는 각자의 목표 점수를 넘고, 고득점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어라는 것은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과목이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공부를 한 만큼 이번 토익시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활동사진





비교과 스터디 **Toeic Avengers**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면학관, 미래관, 카페엔젤, 과학관
- **학습기간:** 2018년 09월 20일 ~ 10월 18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9.20	13:30~16:30	면학관 215B	파고다 토익 고득점완성 LC chapter1, 2 함께 풀고 피드백
9.27	9:00~11:30	미래관 405호	파고다 토익 고득점완성 LC chapter 3, 4 함께 풀고 피드백
10.4	13:30~16:30	과학관 지하1층 카페엔젤 & 면학관 215B	파고다 토익 고득점완성 LC, RC 각각 실전모의고사 1회 함께 풀고 피드백
10.10	13:30~16:30	미래관 3층 창가 쪽 책상 & 면학관 215B	개인과제(파고다 토익 고득점완성 LC (chapter 5,6 풀이))검사& '호주, 영국 발음만 모아놓은 자료집'으로 함께 공부
10.15	13:30~16:30	면학관 215B & 과학관 지하 카페 엔젤	파고다 토익 고득점 완성 LC, RC, 해커스 토익 기출 보카 함께 공부 & 개인과제 검사
10.18	13:30~16:30	면학관 215B	파고다 토익 고득점 완성 LC, RC, 해커스 토익 기출 보카 함께 공부 & 개인과제 검사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소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시은</b> : 혼자 공부하면 헤이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극복하였다는 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혼자 공부했을 경우 시야가 좁아져서 나무를 보지 못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함께 소모임을 통해 공부함으로써 나무도 보는 시야를 확보하는 도움을 받았습니다.</li> <li>▶ <b>차지현</b> : 단순히 같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피드백을 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면서 생각과 학문의 폭을 넓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혼자 단순히 답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닌 서로 설명을 해주며 알고 있는 지식 또한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li> <li>▶ <b>안세정</b> : 제 공부법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막히는 것을 같이 함으로써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적인 부분 외에도 친목도모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은 활동이었습니다.</li> <li>▶ <b>이채윤</b> : 이번 소모임을 통해 여럿이 함께 공부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얻고 혼자였다면 행하지 못했을 계획세우</li> </ul>
-------------------	---

기 그리고 그에 따라 실천하기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함께하는 스터디의 장점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었으며 후에 혼자 더 공부할 때의 분명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종합의견]

▶ LC : 함께 쉬도잉 했을 때에 발음과 억양 까지 자세히 서로 지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오답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②듣고 바로 말로 옮길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 RC : 주어진 시간 75분 내에 OMR 작성까지 완료하도록 훈련하였습니다.  
① PART 5 - 30문제를 12분 내에 푸는 능력 갖추  
② PART 6 - 16문제를 8분 내에 푸는 능력 갖추  
③ PART 7 - 54문제를 54분~55분 내에 푸는 능력 갖추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진 못해도 정답률이 상승했음.

▶ VOCA : 해커스 토익 기출 보기를 함께 암기하였습니다.  
어휘실력이 상승했음을 느낍니다.  
토익 시험에서 어휘관련 문제나 PART 7을 풀 때에 예전보다 모르는 어휘 수가 줄었습니다.

[자랑거리]

토익시험에서 LC 49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RC도 400점대를 받아 총점 900점을 넘었습니다.

[특징]

해이해지지 않도록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며 토익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끝까지 완주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① 토익 : 900점을 달성하였으나 900점대 후반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하기로 계획 세움. 개인 공부 중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서로 연락하여 도움 주기로 함.  
② 토익 이외에 다른 시험, 자격증 등(예: 식품기사 자격증)을 위해 다시 같이 조를 이루어 소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소모임 사진]





비교과 스터디

**보산타임즈**

- **학습과목:** 기자단
- **학습장소:** 미래관, 학생회관
- **학습기간:** 2018년 09월 13일 ~ 11월 29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9.13	16:30~18:30	학생회관	지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이번 학기 스터디에 대한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적인 모임 날짜 및 시간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10.25	16:30~18:30	미래관 301	지도교수님이신 박승민교수님께 뉴스레터 제작에 앞서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자리였다.
11.1	16:30~18:30	미래관 301	지도교수님이신 박승민 교수님께 뉴스레터 제작에 앞서 보건의료산업의 동향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고, 뉴스레터를 기획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11.8	16:30~18:30	미래관 301	지도 교수님과 함께 뉴스레터 제작에 앞서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게 됨. 우선 뉴스레터에 실린 기사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하고, 역할 분담을 하였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 시행될 카드 뉴스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22	16:30~18:30	미래관 301	지난 주 스터디 때 구성한 뉴스레터에 실을 학과행사 기사와 기획 콘텐츠, 역할 분담을 토대로 학생들이 초안을 작성하였다. 같은 담당 팀별로 모여 작성한 후 초안을 점검하고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졌다.
11.29	16:30~18:30	미래관 301	초안 작성 후 교수님께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모여서 기사를 수정하고, 뉴스레터 발행 전 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지난 학기에는 비교과 스터디에 지원하여 참가하였지만, 꾸준히 보고서를 쓰고 사진을 찍는 등 활발히 활동하지 않아서 무의미하게 날렸었다. 이번학기에는 성실하게 스터디를 이행하기로 기자단 단원들과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지고 지원했고, 성공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p> <p>비교과 스터디 진행방식에 따라 오티 주부터 모여서 한 학기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매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p>
--------------------------	---

인지 토론하는 것에서부터, 한 주의 스터디가 끝나면 어떤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고, 어떤 점이 잘 되었고 부족했는지를 피드백을 받는 것, 그리고 스터디 지원비를 통해 부담 없이 회식을 진행 할 수 있었던 점 등 스터디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다.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유익하고, 내년에도 스터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한다면 또 지원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에 참가할 것이다.

비교과 스터디

**상록한국사**

- 학습과목: 한국사
- 학습장소: 미래관, 학생회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4일 ~ 11월 29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4	5시 00분 ~ 6시 00분	(과학)관 (105)호	1일차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고, 미리 4,5,6과를 읽어오고, 같이 모여서는 여러 인터넷 자료들을 찾으며 함께 관련된 설민석 무료 강의를 시청한 뒤, 토론한다.
10/31	5시 00분 ~ 6시 00분	(과학)관 (105)호	3일차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보며 확인하고, 인터넷 무료강의를 통해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은 뒤, 튜터가 조사해온 조선시대 전기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각자 조사해온 조선전기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 토론한다.
11/21	5시 00분 ~ 6시 00분	(과학)관 (105)호	4일차에 배웠던 조선 전기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설민석의 무료강의 조선시대 전기의 문화생활과 정치 상황의 변동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12/6	5시 00분 ~ 6시 00분	(과학)관 (105)호	6일차 사도를 보고 느낀 점을 서로 토론을 통해 공유해보고 근대사회로의 전환이 어떻게 되었는지 서로가 찾은 자료를 돌려보며 읽은 다음 스스로 공부하고 알게 된 내용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여러 회차를 걸쳐 스터디를 하면서 그 전 회차의 스터디를 복습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되짚어보며 문제를 풀어보고 그 후 틀린 문제는 그날의 튜터가 공부를 해와서 설명을 해주어 학우들을 이해 시켜주었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고조선에 걸쳐 조선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정치발전, 경제생활, 사회생활, 문화 발전을 공부하면서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은 공유하고 모르는 내용은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p> <p>또한, 설민석의 강사님의 무료강의를 찾아보며 좀 더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강의 자료는 직접 설민석 강사님에게 문의를 하여 소통하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학습하려고 했다. 이러한 강의 자료는 우리가 자료를 찾는 것보다 훨씬 자료가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있었고, 한국사자격능력시험서보다 많은 내용들이 존재하여 깊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설민석 교수님의 강의가 우리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점이었다.</p> <p>그리고 우리는 한국사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좀 더 입체적인 학습을 하려고 노력했다. 여러 주제를 선정하여 토의를 진행한 적도 있지만 가장 흥미로웠을 때는 주제가 없는 자유 토의였다. 이러한 자유 토의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정말로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역사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새로운 시각을 많이 기를 수 있었다.</p>
--------------------------	---

스터디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역사적 사실들과 우리가 몰랐던 각 시대별 정치, 사회, 문화, 경제들을 알아보면서 내가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번 스터디를 계기로 확실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더 좋았던 점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입체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입장들을 스터디원들과 토의 하면서 좀 더 역사를 깊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의 사건사고들도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하나의 역사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후손의 본보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옛 것을 절 때 버릴 수 없고 그대로 수용을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역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활동사진



기타

우리 조의 특징은 자유 토론이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힘이 생겼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절대적인 능력이고 가치라는 생각이 든다.

비교과 스터디 **신약**

- 학습과목: 신문구독
- 학습장소: 카페, 과학관, 미래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19일 ~ 12월 13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10.19	21:00-23:00	강남역 카페	신문을 읽고 서로의 생각 토의하기 (작은 영화관)
18.10.25	21:00-23:00	미래관	신문을 읽고 서로의 생각 토의하기 (독도의 날, 평양선언 비준)
18.10.26	16:00-19:00	강남역 카페	신문을 읽고 서로의 생각 토의하기 (안중근의사 의거, 사이판 태풍)
18.11.07	18:00-21:00	과학관 105호	신문을 읽고 서로의 생각 토의하기 (중소기업 경제)
18.11.19	18:00-21:00	과학관 105호	신문을 읽고 서로의 생각 토의하기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
18.12.13	21:00-23:00	미래관	신문을 읽고 서로의 생각 토의하기 (미중무역전쟁)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신문 읽는 약대생의 줄임말인 '신약'의 조원들은 스터디 시간에 주로 신문을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과 특성 상 전공과목 공부에 집중하느라 다른 분야 공부에 소홀한 것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그리하여 소모임을 이용하여 저희는 만날 때마다 신문을 한 편 읽어 시사에 관심을 더 갖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스터디원은 각자 한 명씩 한 면을 맡아 소모임 전 날 해당 기사를 읽어왔습니다. 소모임 당일에는 자신이 읽은 기사를 다른 조원들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만약 기사가 찬반 혹은 논란거리를 담고 있었으면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또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사를 읽은 조원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접하고 나니 지적으로 더욱 성장한 것 같아 매우 뿌듯하였습니다. 신문의 경우 행복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신문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주말동안 집에 다녀오며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에 배포되는 e-book 형태의 신문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소는 주로 학교 미래관 분임토의실을 이용하였으나 시험이 끝난 주 금요일에는 서울 카페에 가서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문을 읽으며 다양한 분야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면 기사를 읽으면서 저희는 미래에 약사가 되어서도 사회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며 아픈 환자에 더 공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혼자였으면 어렵고 외로웠을 신문읽기를 동기들과 함께하니 더욱 재미있고 뜻 깊었던 것 같습니다.</p>
<b>기타</b>	<p>만약 내년에도 이러한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는 한국 신문뿐만 아니라 영자 신문도 접하며 외국어 실력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p>



비교과 스터디 **애증의 AED**

- 학습과목: 공모전
- 학습장소: 카페, 과학관, 미래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19일 ~ 12월 13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08.30	16:30	과학관102호	1빅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 및 공모전 준비
18.09.13	16:30	과학관102호	2빅 데이터 분석 강의 공부 및 발표
18.09.18	16:30	과학관102호	3빅 데이터 분석 강의 공부 및 발표
18.09.20	16:30	과학관102호	4빅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 및 공모전 준비
18.09.27	16:30	과학관102호	5빅 데이터 분석 강의 공부 및 발표 선정된 주제에 대한 빅 데이터 수집 확인
18.11.15	16:30	과학관102호	6 빅 데이터 분석강의 공부 및 발표, 선정된 주제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
18.10.04	16:30	과학관102호	7빅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해 결론 논의
18.10.23	16:30	과학관102호	8빅 데이터 공부 및 공모전 준비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실제적으로 예전에 제약회사 인턴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중 하나를 소모임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빅 데이터의 처리와 통계기술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 빅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동기들과 논문을 분석하는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동기를 모았습니다. 논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논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읽고 마지막으로 읽은 정보를 바탕으로 소논문까지 써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조원들의 소감을 통합해보았습니다.</p> <p>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통계는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흔히 아는 표로 제시된 데이터가 통계의 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도 데이터 등 전혀 새로운 형태의 통계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생활에서 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기도 하였다. 추가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AED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통계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어느 분야에서나 꼭 필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단순히 통계를 공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모전 준비를 통해 직접 통계 개념을 적용해보고 데이터 분석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비록 중간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통계 개념을 익히는 것 뿐 만 아니라 실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p> <p>약학통계수업을 수강했지만 아직 통계개념에 대해 잘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번 모임을</p>
--------------------------	--

	<p>통해서 통계개념과 빅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다뤄 본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p>
활동사진	<p>☆ <b>2018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응모 확인 완료</b> </p> <p> 보낸사람 빅데이터캠퍼스 &lt;bigdata@seoul.go.kr&gt; 18.11.09 11:57 주소추가   수신차단</p> <hr/> <p>안녕하세요. 빅데이터캠퍼스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공모전 응모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p> <p>-서울시 2018년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출품함.</p>

비교과 스터디 토스-김지연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행복도서관, 과학관, 북카페 등
- 학습기간: 2018년 11월 14일 ~ 12월 14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14	17~18	차의과학대 행복도서관	부사절 접속사와 등위, 상관 접속사 교재 복습 및 의논
11/29	16~17	차의과학대 과학관	관계사 복습 및 오답풀이
12/11	13:30~5:20	교내 강의실	명사절 접속사 학습 및 오답풀이
12/3	19~20	교내	원급/비교급/최상급 공부 및 의논
12/13	13~15	차의과학대 북카페	가정법과 도치 파트를 공부해오고, 모르는 부분 서로 의논
12/14	14~16	상록학사 셀프주방	복습 및 실전문제 풀이

활동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지연 : 저번 학기에 참여 했을 때도 느꼈지만 동기들과 함께하는 학습 소모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비슷한 눈높이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것도 비슷하고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의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학기에는 토익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많이 헛갈려하고 오답률이 높은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내 약점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li> <li>- 김하정 : 2학년이 되고 나서 과제가 많아져서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스터디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스터디를 하여 향상된 지식을 갖춤으로써 다들 토익 시험을 잘보고 점수가 잘 나오길 바란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스터디를 하고 싶다.</li> <li>- 남소윤 :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함께 공부해 보니 새로 알게 되었고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어떤 점인지 알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심심하지 않고 동기유발도 되었다.</li> <li>- 류수현 : 스터디를 하면서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이 내 수준에 맞게 잘 가르쳐주어서 이해하기가 쉬웠다. 저번 학기엔 토익 700점이 넘는 것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토익스터디를 통해 800점이 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스터디를 하기 전에는 내가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스터디를 통해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다음에도 스터디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박수연</b> : 토익 스터디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토익스터디를 통해 조원들과 함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말 토익 시험과 정기토익점수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li> <li>- <b>이현영</b> : 스터디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 토익은 800점 이상을 맞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li> </ul>
<p><b>기타</b></p>	<p>비교과 소모임을 통해 분반으로 인해 잘 만나지 못했던 동기들과 만날 수 있었고, 모두가 열심히 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스터디에 참여해서 좋은 시간이었다.</p>

비교과 스터디 **토스**

- 학습과목: 토익
- 학습장소: 기숙사
- 학습기간: 2018년 10월 11일 ~ 12월 19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11	9-10pm	기숙사 방	[토익 공부 및 토익 시험 응시 준비 계획] 자신 토익 공부 계획 및 목표점수를 나누고, 함께 공동의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
10.16	9-10pm	기숙사 방	[첫 번째 토익 공부 및 토익 시험 응시 준비] 서로의 학습계획과 공부량을 확인하고, 자신이 공부한 범위에서 질문 받고 싶은 부분을 서로 물어보고 답하며 정확한 공부법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2.5	9-10pm	기숙사 방	[토익시험 후 피드백 및 정보, 자료 공유] 자신이 공부한 범위에서 질문 하고 싶은 부분을 서로 물어보고 답하였다. 토익시험을 본 뒤 팀원들과 피드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토익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12.12	7:30-8:50pm	기숙사 방	책 TOEIC Test 공식실질서 RC 부분을 함께 학습하고, 해커스토익 리스닝 책을 이용하여 part3 대화에서 사용되는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들었다. 미국, 영국, 호주 식 발음으로 세 번씩 듣고 들은 대로 받아쓰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어 원서를 매일 한쪽씩 읽는 것을 계획하였다.
12.17	8:30-9:30pm	기숙사 방	매일 영단어 3회분을 함께 test하고, 틀린 단어는 다시 test를 봐 반복 학습을 하였다. TOEIC Test 공식실질서 RC 부분을 학습하고, LC의 제안, 요청하는 의문문에 대해 공부하였다. 원서를 매일 한 장씩 읽기를 수행하였다.
12.19	8:00-10:40pm	기숙사 방	실전연습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리스닝을 했다. 틀린 문제는 다른 친구가 핵심 키워드를 알려주고 이 부분을 자세히 들어보라고 하여 다시 들어보았다. 모르는 단어, 해석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익 리스닝을 공부하다보면 미국식 발음뿐만 아니라 영국식, 호주식, 캐나다식 발음을 모두 듣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자막 없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한 발음들에 친숙해지는 연습을 했다.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처음으로 같이 룸메이트를 하게 된 친구들이었지만,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토레스터디를 신청하게 되었다.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도움을 주는 스터디를 꾸려나감으로써 토익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전에 했던 스터디들에 비해 토레스터디를 같이 하는 조원들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룸메이트여서 언제든지 편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	--

	<p>영어 공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가르쳐주어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룸메들과 같이 하니 좀 더 집중해서 풀게 되고 틀린 부분까지 확실히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바쁜 학과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서로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스터디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다.</p> <p>특히 영어공부는 벼락치기가 안 되니까 룸메들과 스터디 하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 일정 대로 조원들과 함께 진행되는 스터디다 보니 혼자라면 힘들고 피곤해 놓칠 수 있는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같이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고 안하면 다른 친구들의 의지도 상실시킬 수 있다는 미안함에 더 꾸준히 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넘어가니까 혼자 공부할 때보다 모르는 건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좋았다.</p> <p>이렇게 함께 스터디를 하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스터디를 함께 진행하며 영어 원서 읽기를 계획하였는데, 영어 원서를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읽는 것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실행하기로 다짐했다. 토익 스터디가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같이 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공부해서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서로 지식을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룸메들과 같이 하면서 더 친목이 다져진 것 같고, 다른 스터디 모임보다 모임을 진행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다. 그리고 한 학기가 빨리 끝난 것처럼 토익 스터디도 눈 깜짝할 새에 끝이 났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학과 공부와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어느새 끝이 나있다는 것에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 같다. 이번 학기 룸메들과 함께 영어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참 만족스럽다.</p> <p>전공공부를 하느라 토익공부를 자주 하지는 못했지만 스터디 모임 때문에 조금 더 규칙적으로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종강하고 나서도 스터디 모임에서 하던 것처럼 공부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스터디를 진행한 것처럼 방학 동안에도 룸메들과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와 계획 수행의 여부를 확인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
<p>기타</p>	<p><b>[비교과 스터디 '토스'의 특징 및 자랑거리]</b></p> <p>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스터디를 통해 조금씩 공부를 하지만, 아직도 영어가 어렵고 낯선 것 같다. 영어를 재밌어하고 즐기기에 평가, 성적의 의미로 크게 다가와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다.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만의 고민이 아님을 느꼈고, 함께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큰 도움이 되었다. 너무 낮은 성적에 괴로워하지 않고 함께 노력해서 이겨내 보자는 생각으로 스터디에 임했던 것 같다. 스터디 초반에는 정해진 책으로 영어를 공부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룸메들과 함께 하니 언제든지 영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마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처럼 영어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구해보았다. 영어 책 읽기를 도전하고 자막 없이 외국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를 접하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p> <p><b>[내용 활용 계획]</b></p> <p>앞으로도 영어 원서 읽기와 외국 영화 보기, 유튜브 채널 활용하기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영어를 자주 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영어권 나라에서 살지 않는 만큼 영어를 자주 듣고 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질리지 않고 즐겁게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할 것이다.</p> <p>또한 단기간에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 조원들이 방학동안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토익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기로 계획하였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방학 동안에도 토익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며 win-win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다. 특히 무료로 볼 수 있었던 토익 모의고사를 방학 때도 정기적으로 보고, 성적을 올리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다.</p> <p><b>[활동 사진]</b></p>



지금까지 비교과 스터디 '토스'를 지원해주신 학습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비교과 스터디 **헤움누리**

- **학습과목:** 기자단
- **학습장소:** 과학관, 취업 창업 보육센터
- **학습기간:** 2018년 09월 28일 ~ 11월 23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9.13	16:30~18:30	학생회관	지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이번 학기 스터디에 대한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적인 모임 날짜 및 시간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10.25	16:30~18:30	미래관 301	지도교수님이신 박승민교수님께 뉴스레터 제작에 앞서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자리였다.
11.1	16:30~18:30	미래관 301	지도교수님이신 박승민 교수님께 뉴스레터 제작에 앞서 보건의료산업의 동향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고, 뉴스레터를 기획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11.8	16:30~18:30	미래관 301	지도 교수님과 함께 뉴스레터 제작에 앞서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게 됨. 우선 뉴스레터에 실린 기사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하고, 역할 분담을 하였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 실행될 카드 뉴스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22	16:30~18:30	미래관 301	지난 주 스터디 때 구성한 뉴스레터에 실을 학과행사 기사와 기획 콘텐츠, 역할 분담을 토대로 학생들이 초안을 작성하였다. 같은 담당 팀별로 모여 작성한 후 초안을 점검하고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졌다.
11.29	16:30~18:30	미래관 301	초안 작성 후 교수님께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모여서 기사를 수정하고, 뉴스레터 발행 전 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보건의료산업학과의 대표 기자단으로서 매학기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스터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주기적으로 모이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p> <p>비교과 스터디 진행방식에 따라 오토 주부터 모여서 한 학기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매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토론했는 것에서부터, 한 주의 스터디가 끝나면 어떤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고, 어떤 점이 잘 되었고 부족했는지를 피드백을 받는 것, 그리고 스터디 지원비를 통해 부담 없이 회식을 진행 할 수 있었던 점 등 스터디의 효과를 독특히 볼 수 있었다.</p> <p>내년에도 스터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한다면 또 지원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바이다.</p>
-------------------	---





# 전공 튜터링



전공 튜터링 J호



- 학습과목: 생화학
- 학습장소: 행복도서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2일 ~ 11월 27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11.19	2:00 ~ 4:30	학관	Biosynthesis of amino acid and nucleotide에서 아미노산과 뉴클레오타이드의 합성을 배우기전 Nitrogen Metabolism의 개괄적인 내용과 생체 내에서 Nitrogen의 쓰임, Nitrogen Cycle의 매커니즘과 각 단계, Fixation, Nitrification, Denitrification 그리고 Nitrate Assimilation에 대해 복습하였으며 진행방식으로는 튜터가 튜티에게 생화학 수업 때 배운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해주며 목차를 정해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는 하브루타 방식의 교육 방법을 따라 토론 및 복습을 진행하였다.
18.11.22	2:00 ~ 4:30	학관	Biosynthesis of amino acid and nucleotide이며 크게 보면 20가지 아미노산을 알아보고 각각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pathy way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이며 또한 아미노산 path way 중에서 그 아미노산에 있는 질소, 탄소...등이 어느 것에서 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 공부하였으며 진행방식으로는 튜터가 튜티에게 생화학 수업 때 배운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해주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서로의 암기법을 만들어 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였다.
18.11.27	2:00 ~ 4:30	미래관	Biosynthesis of amino acid and nucleotid에서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단위라는 역할 이외에도 많은 생체분자들의 전구체에 대해 공부해 보았으며, 진행방식으로는 튜터가 튜티에게 생화학 수업 때 배운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해주며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18.11.29	2:00 ~ 4:30	학관	이전 튜터링 시간에 학습하였던 "The Nitrogen Cycle"과 "Biosynthesis of Amino Acids"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해보면서 간단히 넘어갔었던 "Ammonia is incorporated into biomolecules through Glu and Gln"과 "Gln Synthetase is a primary regulatory point in Nitrogen Metabolism" 단원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였으며 진행방식으로는 튜터가 튜티에게 생화학 수업때 배운내용 들을 간략히 설명해주며 목차를 정해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는 하브루타 방식의 교육 방법을 따라 토론 및 복습을 진행하였다.
18.12.3	2:00 ~ 4:30	미래관	"Biosynthesis of Amino Acids and Nucleotides" 의 과정 중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3가지 종류의 Reaction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저번 전공 튜터링 시간에 학습하였던 "Biosynthesis of Amino Acids"와 "Molecules Derived from Amino Acids"의 내용에 이어 "Biosynthesis and Degradation of Nucleotides"에 대해 학습하여보았으며 진행방식으로는 튜터가 튜티에게 생화학 수업 때 배운 내

			용들을 간략히 설명해주며 목차를 정해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는 하브루타 방식의 교육 방법을 따라 토론 및 복습을 진행하였다.
18.12.6	2:00 ~ 4:30	미래관	“Biosynthesis of Nucleotides“ 과정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뉴클레오타이드의 합성과정에서 퓨린 뉴클레오타이드의 De novo pathway에 대해 학습하고 암기하였으며 이 합성과정의 중간체인 nosinate(IMP)와 그로부터 생성되는 Adenylate(AMP), Guanylate(GMP)의 합성과정을 이해하였으며 진행과정으로는 튜터가 튜티에게 생화학 수업 때 배운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해주며 목차를 정해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는 하브루타 방식의 교육 방법을 따라 토론 및 복습을 진행하였다.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b>지선영 :</b> 전공 튜터링을 통해 튜티 또는 튜터로 활동하면서 수업시간에 집중도가 향상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아무래도 내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니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했기에 자연스럽게 강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번져 나간 것 같다. 또한 서로에게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집어주면서 공부하니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꼭 암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시 튜터링을 통해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튜터링을 한 결과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랐으며 성적이 오른 것도 기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튜터링을 통해 가르치는 방법, 공부법, 암기법 등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p>
	<p><b>장윤정 :</b> 학교 동기들과 처음하는 스터디라 기대와 긴장이 많이 되었다. 튜터와 튜티가 되면서 함께하는 학습을 통해 내가 알고 있던 내용보다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되어 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전공 튜터링은 일반 스터디와는 다르게 전공교과를 스터디하는 것이라 전공의 이해어려운 과정들, 외우기 까다로운 용어들을 공부하는데 있어 좀 더 쉬게 접근할 수 있었다. 튜터가 되는 친구의 학습법, 암기법 등을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되어 유익했다.</p>
	<p><b>황민 :</b> 튜터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됐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각자 맡은 부분을 책임감 있게 공부해오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접근하기가 막막하고 어려웠던 생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 좀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어렵게 느껴지는 다른 과목들도 막상 공부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다. 또한 암기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럿이서 암기방법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며 외울 수 있을 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니 혼자 외우려고 노력할 때보다 훨씬 좋은 암기방법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는 자꾸 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고 나태해지기가 너무 쉬웠는데 함께 스터디를 하니 맡은 부분을 공부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도 공부를 해야 해서 좀 더 계획을 실천하는 능력과 책임감이 길러진 것 같다.</p>
	<p><b>김수완 :</b> 학교 수업을 기반으로 한 멘토링 학습을 통해서 전공 수업때 배웠던 내용들을 바로바로 복습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에게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는 하브루타 방식으로 토론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수업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멘토가 되어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는데 조원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주도적으로 수업을 준비해 나갈 수 있었다</p>

우리팀 "J호"의 특징이자 자랑거리는 먼저 엄청 친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서먹서먹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더 잘 가르쳐 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더 잘 챙겨주고 더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의 성적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튜터링에 임하고 더 잘 해보자, 피해 끼치지 말자. 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튜터링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준 것 같다.

\*밑에 사진 첨부함

활동사진



전공 튜터링

**테이핑마스터**



- **학습과목:** 스포츠테이핑과 보조기
- **학습장소:** 행복도서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2일 ~ 11월 21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2	16:30~18:30	미래관 6층 실습실	Ankle joint, Foot joint 상해에 대한 테이핑 요법을 직접 연습해본다.
10/23	20:00~21:30	미래관 4층	Ankle joint taping 복습. lower leg 상해에 대한 테이핑 요법에 대해 알아본다.
10/24	16:30~17:30	미래관 4층	Ankle joint taping 복습. knee joint 상해에 대한 테이핑 요법에 대해 알아본다.
10/31	16:30~18:30	해룡학사 2층 휴게실	Ankle joint taping 복습 및 Hamstring Taping을 진행해본다.
11/7	17:00~18:30	도서관	Ankle joint taping 복습 및 Hamstring taping, Hip joint taping 상해에 대한 테이핑 방법을 실행해본다.
11/21	16:30~18:00	미래관 6층 실습실	Ankle joint 테이핑 복습 및 shoulder joint, elbow joint, wrist joint 테이핑 방법을 알아본다.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두 달에 걸쳐 테이핑 전공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테이핑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테이프도 제대로 뜯지 못했었는데 회 차가 거듭될수록 테이프 뜯는 것은 점점 익숙해졌다. 발목 테이핑을 처음 할 때는 테이핑 순서도 잘 몰랐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점점 시간도 단축되고 제한시간이었던 2분보다 훨씬 단축할 수 있어서 부듯했다. 수업시간에 배운 테이핑 방법을 까먹지 않기 위해 직접 테이핑을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날 때 마다 각 테이핑을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했다. 테이핑 연습을 계속 한 결과 학기 초에 구매해 두었던 테이프가 부족하여 추가로 더 구매했고, 12월 3일에 치러진 테이핑 실기 시험에서 둘 다 별다른 지적 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발목 테이핑에서는 가산점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테이프나 제대로 뜯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던졌었는데 나중에는 “야 이젠 테이프 뜯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게 되었다. 분명히 넉넉하게 샀다고 생각했던 테이프가 부족해졌을 때 정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테이핑 시험 전날에는 만나서 세 시간동안 배웠던 테이핑 요법을 모두 복습하고 각 상해를 진단할 때 하는 테스트 또한 반복하여 연습했다. 테이핑 실기시험 두 시간 전에 미리 만나서 마지막 연습까지 하고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튜터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튜터링을 진행하는 요일도 시간도 계속 들쭉날쭉했었는데 그 일정에 모두 맞춰준 튜터에게 너무 고맙웠다.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들어간 스포츠의학과 의 전공수업에서 파트너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강의 특성상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었는데, 먼저 다가와서 같이 테이핑 하자고 말해주고 함께 튜터링</p>
-------------------	--

을 하자고 제안해준 윤지혜 학생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번 전공 튜터링을 통해 테이핑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것 뿐 아니라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수업에서 교수님은 테이핑은 원래 배워서 남 주는 것이라고 하셨었는데, 실제로 학기 중에 튜터인 이도현 학생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었는데, 그 때 윤지혜 학생이 직접 발목 테이핑을 해줬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테이핑을 2달 동안 연습하면서 팀 이름처럼 테이핑을 마스터 할 수 있었다.

\*위 소감문은 튜티(이도현)의 입장에서 작성했습니다!

활동사진



전공 튜터링

## 민주 믿고 간다.

- **학습과목:** 미생물학, 일반 화학2
- **학습장소:** 해룡학사 2층 휴게실, 행복도서관 등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4일 ~ 12월 09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8.10.04 (목)	20:00~22:00	행복도서관	일반 화학2 13강(용액의 성질)의 전체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새로운 문제를 서로 만들어 푸는 방식으로 복습의 시간을 가짐.
2018.10.11 (목)	20:00~22:00	학관	일반 화학2 14,15강의 전체적인 이론을 정리하고 예제 문제를 풀어보며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짐.
2018.10.12 (금)	20:00~22:00	학관	16,17강을 익히고, 중간고사 직전 배웠던 13,14,15,16,17강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
2018.11.25 (일)	18:00~20:00	해룡학사 2층 휴게실	19강(열역학) 퀴즈를 앞두고, 열역학 이론 정리와 예제 문제를 풀어보며 실전력을 키움. 더 나아가 새로운 계산 문제를 만들어 봄으로써 출제 의도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짐.
2018.12.08 (토)	18:00~20:00	해룡학사 2층 휴게실	20, 23강을 익히고 서로의 이해도를 확인해 보고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다시 바로 잡아주며 학습의 능률을 높이는 시간을 가짐.
2018.12.09 (일)	16:00~18:00	해룡학사 2층 휴게실	24강을 익히고, 기말 고사 직전 배웠던 20,23,24강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

###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b>김민주:</b> 스터디활동을 하면서 조원들의 공부와 나에 대한 공부를 둘 다 잡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스터디를 하면서 조원들의 갑작스런 질문에 나름 완벽히 공부했다 생각했으나 답변을 못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착각이 심했다는 것을 느꼈다.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왜 이렇게 변하는지 항상 질문하며 기존에 단순히 읽고 이해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무식하게 외워버리는 공부법에서 문답형 즉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위해 고민하는 공부법으로 바뀌었다 또한 교수님께서 내가 아는 내용을 설명하면 대충 듣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최대한 교수님설명에 집중하여 교수님의 생각을 읽어내도록 수업을 듣게 되었다 그 결과 이해도가 전과 비교도 안 되게 빨라졌으며 어떤 질문이 나와도 수월하게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시험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미처 외우지 못하는 것들을 제외하면 반사적으로 문제에 대한 답이 생각나 그것에 대해 쓸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들고 확신을 갖고 답을 쓰게 되었다. 이런 향상력 외에 조원들의 이해를 돕고 질문을 답하며 조원들의 실력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매우 뿌듯한 것을 느낄 수도 있었다. 여러 전공 공부를 스터디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부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생겨났고 또 다음에도 스터디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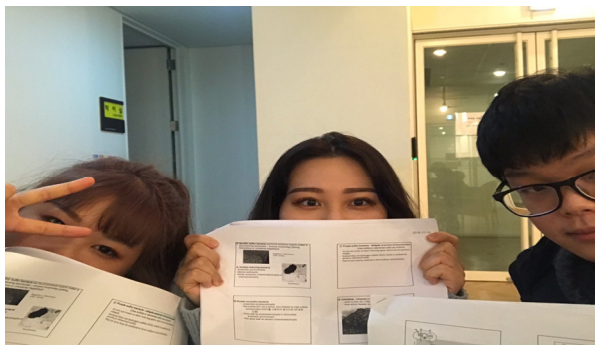


**곽채숙:** 처음 스터디 활동을 해 보았는데, 평소 어려워하던 화학을 다 같이 모여 수업한 내용의 이론을 정리해보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지며 '일반 화학'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예제 문제들을 풀어보고 더 나아가 새롭게도 문제를 서로 출제 해 풀어보며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었다.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혼자 공부를 하다보면 하루 계획 된 학습량을 의지 박약으로 많이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다 같이하는 스터디 활동은 내가 공부해 가지 않으면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미루지 않고 계획된 학습량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는 법도 익힐 수 있었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즐기며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스터디 활동을 시작하면서 종강까지 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공부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많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며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한 학기동안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들며 가끔 공부하면서 힘들거나 지칠 때, 이때 이 시간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다

**조윤주:** 작년 스터디에 이어 이번에도 전공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스터디 방식도 바뀌며 진행하고 생각할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일반화학에 대해 원래 이해도가 낮아 걱정이 많았지만 스터디원들과 토론을 하며 여러 개념을 함께 이해하고 스터디를 진행하니 일반 화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전공에 대한 애정도가 높아졌다. 개념에 대해 무지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하며 서로 가르쳐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소소한 것들까지 모르면 질문을 거쳐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점이 좋았다. 또 튜터만 노력하는 스터디가 아닌 함께 노력하는 스터디를 하게 되어 보람찼고 알찬 스터디였다. 다음 학기에도 스터디를 계속 진행해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아 뿌듯하다.



활동사진 <학관에서 공부 중 배가 고파서 편의점 다녀오던 길에 찰칵>



<기말고사 직전 까만 밤을 하얗게 불태우다 찰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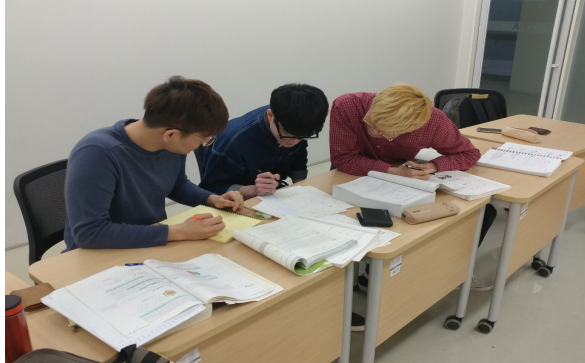
'일반 화학' A+의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한 마음 한뜻으로 스터디 활동을 시작함.

전공 튜터링 **바돌이**

- **학습과목:** 면역학
- **학습장소:** 해룡학사 2층 휴게실, 행복도서관 등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4일 ~ 12월 09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9/27	16:30~19:00	면학관 예비창업자 보육실	Basic Concepts in Immunology
10/4	16:30~19:00	청운학사 105호	Innate Immunity : The First Lines of Defense
10/11	16:30~19:00	청운학사 휴게실	The Induced Responses of Innate Immunity
11/7	16:30~19:00	호스텔 휴게실	Antigen Recognition by B-cell and T-cell Receptors, Molecules of Adaptive Immunity
11/20	16:30~19:00	차의과학대학교 소모임실	The Generation of Lymphocyte Antigen Receptors
11/29	16:30~19:00	청운학사 105호	Lymphocyte Development, Lymphocyte Effector Functions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이번학기 진행한 스터디는 튜터인 송동욱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 과목인 면역학은 바이오공학과 3학년 전공과목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영어로 진행하여 혼자서 하기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특히 영어를 잘하는 송동욱 학생을 필두로 하여 생각보다 수월하게 과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지식을 이렇게 학교 지원 아래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모르는 부분이나 부족한 점을 스터디를 통해 채워나갈 수 있었고 멤버들마다 각기 다른 멘토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전공프린트를 해석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p> <p>이번 스터디는 양이 많고 영어 파트가 많아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원들과 많은 토론을 하며 결국에는 완벽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스터디를 진행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혼자 진행했으면 대충 넘어갈 수도 있던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도와가며 의지하며 진행할 수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p>
<b>활동사진</b>	

전공 튜터링

## 박 터지는 흥터링

- **학습과목:** 해부 생리학
- **학습장소:** 행복도서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2일 ~ 11월 27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8.10.02	14:30 - 16:00	행복도서관	세포와 조직에 대한 간단한 복습과 근골격계 해부학 복습
2018.10.09	14:30 - 16:00	행복도서관	어깨의 해부학과 골반의 해부학 공부
2018.10.23	14:30 - 16:00	행복도서관	팔, 다리 근육계통 복습 및 질의응답
2018.11.13	14:50 - 16:10	행복도서관	신경계 복습 및 암기 확인
2018.11.20	14:50 - 17:50	행복도서관	내분비계통 복습. 이해를 위한 질문법 학습.
2018.11.27	14:50 - 19:00	행복도서관	심장혈관계통 복습 및 추가적인 운동생리학 공부

###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b>박수홍 :</b> 방학 때 했던 스터디가 효과적이어서 이번에는 튜터링을 만들어 진행했다. 재수강을 해야하는 과목이 멘티들과 같이 듣는 해부 생리학이라 겁치는 점도 있고 해부학은 스포츠의학과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생각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보았다. 3학년 2학기라 졸업논문과 다른 과제들에 치여 살며 자투리 시간마다 튜터링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튜터들이 잘 참여해줬고 시험치고 나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번 튜터링을 통해 한 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p> <p><b>김동영 :</b> 처음에는 후배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나도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공부하면서 후배들에게 공유를 하고 기억을 스스로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서 후배들 뿐 만 아니라 내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누군가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주 직업인데 이러한 이론적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이해가 빠를 수 있고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했는데 그로 인해 더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무척 보람찬 멘토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후배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봐도 더 쉽게 알려주고 많은 것을 알려주리라 다짐하는 바이다.</p> <p><b>황지민 :</b> 언제나 진지하게 멘토 역할을 해준 멘토 선배님 덕분에 한 학기동안 즐겁게 공부한 것 같다. 공부에 흥미 없어서 너무 걱정이었는데 열정 넘치는 멘토 선배님을 보며 많이 느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나처럼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후배님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p>
-----------------------	--

**김현진** : 해부학은 입학하기 전과 1학기 때 틈틈이 해두어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생리학부분에서 많이 해맸었다. 그러나 멘토 선배님이 생리학 부분을 이해가 되게 잘 가르쳐주시고 해부학 부분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았다.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과 튜터링 이후에도 따로 만나 해부생리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서 꼭 시험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부를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정재철** : 학기 중에 바빠서 못할 줄 알았는데 스터디를 우선순위로 두니까 시간이 생겼다.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전운재** : 이번에 멘토링이 아니었다면 과연 인체 해부 생리학이라는 과목을 무사히 공부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번 멘토링은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튜터링의 장점은 방학 때부터 해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점이다. 또한, 서로 챙겨주는 튜터링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해부학이라는 과목을 일차적으로는 시험 성적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가져서도 쓸 수 있는 지식 겸비를 위해 열심히 참여한 게 특징이다. 인터넷 기사에서 5대5의 성비와 여러 학번이 섞인 집단에서 스터디 효과가 가장 컸다는 결과를 보고, 적용시켜 보았는데 효과적이었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챙겨주고 멘토인 나(박수홍)뿐만 아니라 다른 두 선배들도 후배들을 위해 공부해오고 알려주려 했고, 후배들도 열심히 따라오며 참여해줬다.

전공과목인 인체 해부생리학에서 쓰는 책을 중점적으로 공부했고 책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해주는 유튜브나 다른 전공 서적의 자료들도 가져와서 활용하였다. 학습법으로는 질문을 위주로 되새기는 방법을 썼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아직 시험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 잘 쳤다는 소식을 들어 만족스러운 멘토링이었다.

활동사진




전공 튜터링 탐구

- 학습과목: 일반화학
- 학습장소: 행복도서관
- 학습기간: 2018년 10월 02일 ~ 11월 27일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8. 10. 3	2018. 10. 2 4:00~6:00	학생식당	일과 열, 열용량
2018. 10. 10	2018. 10. 5 12:30~2:30	도서관	엔탈피
2018. 11. 8	2018. 11. 5 12:30~2:30	학생식당	증기압력
2018. 11. 22	2018. 11. 19 12:30~2:30	학생식당	증기압력, 상평형, 용해도
2018. 11. 27	2018. 11. 23 12:30~2:30	학생식당	상평형, 콜로이드, 총괄성
2018. 12. 5	2018. 12. 4 12:30~2:30	학생식당	몰농도와 몰랄농도 계산법, 약산과 약염기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b>연형준</b> - 2학기만큼 더욱 열심히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학기는 없을 것 같다. 비록 부족하게 멘토링을 하였지만, 그래도 튜터로서 튜터를 믿고 따라와 준 부원들에게 감사하다.</p> <p><b>안민석</b> - 학습을 하는데 학교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인 화학을 계속해서 학습함으로써, 이후에 학습하게 될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을 배울 때도 많은 도움일 될 수 있는 기초 밑거름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영수증 제출일이 한정이 되어 있고, 환급날짜도 느린 것이 너무 아쉬웠다. 현금 영수증은 환급 제도나간 이해가 되지만, 저 부분은 조금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p> <p><b>황동연</b> - 튜터로서 몰농도를 몰랄농도로 바꿀 때의 노하우와 같이 튜터가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일과 열에 대한 개념과 같이 튜터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튜터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 그리고 수업시간에 놓친 개념들을 쉽게 얻을 수 있어서 가치 있는 소모임이었고, 예제를 같이 풀면서 이런 예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다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어서 일반화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다. 또한, 전공튜터링을 하면서 이 친구들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p>
------------	---

	<p>는 것이 학습법 소모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싶다.</p> <p><b>종합의견</b> - 튜터로써는 더욱 열심히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질 수 있고, 튜터로써는 자신이 모르고 있던 많은 정보, 전공시험의 성적, 친구, 맛있는 음식, 2학년 때 배우는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의 기초 밑거름이 되는 기본 지식 등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학습법 소모임의 장점들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영수증 제출일이 한정되어있는 점, 한글날짜가 느린 점은 아쉬웠다고 생각된다.</p>
<p>활동사진</p>	



# 영웅 리더스





리딩 리더스

시럽자



- **팀원** : 임혜영, 손유나, 신다영, 김은혜, 김소인, 김성연, 김선우, 박희정
- **독서명** :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8년 9월 28일	20시 00분 ~ 22시 00분	과학관 105호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 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이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나 현재 나와 있는 신약과 자신이 개발해보고 싶은 신약, 각자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2018년 10월 4일	15시 00분 ~ 17시 00분	과학관 105호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집을 읽고 마음에 드는 시를 하나씩 뽑아 낭송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고 드는 생각들을 나누어보았습니다. 또 시인이 이러한 표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을까 해석해보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17시 00분 ~ 19시 00분	과학관 105호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읽고 기아문제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책 세권을 읽고 동기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책 3권 읽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리딩리더스를 하며 책도 읽게 되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도 알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학기 중엔 바쁘다는 핑계로 책도 읽지 않는데 오히려 책을 읽으니 더 삶의 여유를 돌아보게 되고,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읽으니 지식도 더 넓어지고 진로를 계획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자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다방면으로 지식을 쌓고 의견도 나누고 힐링도 할 수 있었던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

리딩 리더스 **책속에 살어리랏다.**

- **팀원** : 박수린, 임가연
- **독서명** : 자기 앞의 생,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우리에게겐 언어가 필요하다.
-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11월10일	오후 2사~5시	현암도서관	'자기 앞의 생'을 읽고 서로가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거 진정한 사랑 그리고 느낀 점 공유하기
11월24일	오후 7사~8시	현암도서관	세계사를 같이 한 번씩 훑어보면서 현재까지의 역사들을 다시 보는 기회를 가졌다.
12월19일	오후 2사~5시	현암도서관	각자가 읽은 책을 소개하고 느낀 점 서로 말하기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서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으로 첫 번째로 읽었던 '자기 앞의 생'이다. 자기 앞의 생은 큰 주제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생을 담으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인간은 언제가 죽는다. 죽기 전까지의 삶을 살면서 과연 진정한 사랑을 몇 번일까? 우리들은 정말 근본적인 것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고 모임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p> <p>이렇게 학기 중에 공부도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각자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좋다. 어떻게 보면 소모임을 통해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읽는 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매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해 책을 읽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다.</p>
-------------------	--

리딩 리더스 **하리보**

- **팀원** : 박정민, 김유정
- **독서명** : 이기적인 유전자, 침묵의 봄, 종의 기원
-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10월 31일	6시-8시	현암기념관 북카페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토론
11월 21일	6시-8시	현암기념관 북카페	침묵의 봄을 읽고 토론
12월 4일	6시-8시	현암기념관 북카페	종의 기원을 읽고 토론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생명과학의 책을 위주로 읽어 왔다. 우리가 생명과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더니 꽤나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된 활동 인 것 같다.
-------------------	---



#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 팀원 : 박지민, 이혜선
- 시청 영화 : I feel pretty, 완벽한 타인, 뷰티인사이드
-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8.10.31	10시 00분 ~ 13시 20분	학교 내 '카페 엔젤'	<p>수요일 오전 수업이 휴강 되면서 함께 영화 볼 시간이 생겨 일찍 학교에 와서 평소에 관심이 있던 영화 '아이 필 프리티'를 다운받아 학교 내에 있는 '카페 엔젤'에서 커피를 마시며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를 다 감상한 후 피자를 먹으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p> <p>이 영화는 요즘에 대두되는 외모지상주의를 소재로 한 영화로 제목에서부터 나 예쁜 것 같아 라는 착각에서 오는 웃음을 주는 반면 'I am pretty'와는 달리 예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보이며 영화의 성격을 보인다.</p> <p>외모콤플렉스를 가진 주인공인 르네 베넷은 아름다움이 곧 경쟁력이라고 하는 뷰티 업계에서 종사하는데 그래서인지 유독 사이즈나 외모에 민감해 언제나 예쁜 것을 추구한다.</p> <p>하지만 본인은 예쁘지 않다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절대 사랑하지 못하는 르네는 살면서 자신이 겪은 불행한 일들이 모두 자신의 못난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p> <p>영화 속 르네는 계속해서 예쁨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 내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영화 [빅]에서 소원을 빌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다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분수로 찾아가 동전을 던지며 예뻐지고 싶다고 소원을 빌지만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실망한 르네는 기대한 자신을 한심해 하며 집으로 돌아간다.</p> <p>하지만 변화는 다음날 살을 빼기 위해 등록한 사이클 센터로 사이클을 타러 갔다가 사고로 머리를 다치면서 찾아온다. 바로 자신이 예뻐 보이는 것으로 실제로는 바뀐 것이 없지만 머리를 다친 르네에게는 본인이 예뻐 보이는데</p> <p>이 영화에서는 다른 영화에서처럼 여주인공의 외적인 면을 바꾸는メイク 오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정신적인 면을 바꾸며 르네의 소원이 이뤄진다.</p> <p>르네는 예쁜 사람들 틈에서 안 예쁜 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열등감에 시달렸지만 혼자만의 세계에서 소원이 이뤄진 르네는 예쁜 사람들 틈에서 예쁜 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자신감으로 하루를 즐긴다.</p> <p>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의 단골 소재인 외모에 열등감 넘치는 여자 주인공</p>

			<p>공이 등장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성을 바라본다.          여성의 가치가 외모, 커리어, 배우자가 아닌 내가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자신감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설정으로 단지 외모가 예쁜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남자도 없고, 비포 애프터 변함없이 처음과 끝까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감만 추가된 여주인공이 있을 뿐이다.</p> <p>“We don't need to be pretty. Because I am just me!”          - 르네의 연설 중에서 -</p> <p>“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너무 집착해서 자신의 근사한 점들을 놓쳐버리거든요. 당신은 자신을 잘 알고 세상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아요.”          - 극 중 에단의 대사 -</p> 
<p>2018.11.11</p>	<p>13시 00분 ~ 15시 00분</p>	<p>메가박스 강남점</p>	<p>영글클럽 2회차 활동으로 어떤 영화를 감상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요즘 한창 이슈 되고 있는 영화 ‘완벽한 타인’을 보기로 하여 강남역에 위치한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감상한 후 강남역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p> <p>완벽한 타인은 이탈리아의 영화 ‘perfect strangers’의 리메이크로 가벼운 코미디 안에 의미와 질문을 담고 있어 처음에는 소리 내어 웃다가 점점 웃음이 가 사라지는 영화였다.</p> <p>40년 지기 친구들과 서로의 와이프가 한 친구의 집에 집들이를 오게 되고 식사를 하던 중에 예진의 제안으로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핸드폰에 오는 모든 문자, 전화 등을 공개하는 게임을 하게 되면서 이 영화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p> <p>처음에는 모두가 망설이지만 뒤통수까지 못하다는 관한 의심을 살까 떨떠름하게 승낙을 하고 게임이 진행된다.</p> <p>처음에는 서로의 핸드폰에 장난도 치면서 정말 가볍게 제안한 게임다운 모습이 그려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게임을 통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모를 은밀하고 다양한 비밀들이 핸드폰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오</p>



			<p>면서 처음 가볍게 게임을 제안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결말로 흘러간다.</p> <p>식사를 하기 전 40년 지기 친구들은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라고 이야기 했었지만 게임이 진행되면 될수록 각자의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점차 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p> <p>한 공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전개되고, 화려한 액션씬이나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미를 가진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휴대폰이라는 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색다른 설정 덕분에 흥미를 가지기에 충분했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이 더해져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봤다</p> <p>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반전 결말까지 단순히 웃고 넘길만한 가벼운 코미디 영화가 아니라 스토리가 탄탄하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흥미로운 영화였다.</p> <p>“너희들의 눈빛을 보니까 말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 극 중 영배의 대사 -</p> <p>“사람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개인의 하나. 그리고 비밀의 하나.” - 마지막 나레이션 -</p>
<p>2018.11.21</p>	<p>12시 00분 ~ 15시 00분</p>	<p>학생회관 내 ‘토프레스’</p>	<p>영글클럽 마지막 활동인 3차 활동을 어떤 영화로 마무리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인 ‘뷰티인사이드’와 이름이 같은 영화 ‘뷰티인사이드’를 함께 감상하기로 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영화 ‘뷰티인사이드’를 노트북에 다운받아 토프레스에서 음료를 시켜 음료를 마시면서 영화를 감상하고 다음 수업이 있는 강의실로 옮겨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영화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p> <p>영화 뷰티인사이드 속 남자주인공 우진은 평범한 남학생이었다.</p> <p>그러던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이후 우진은 자고 일어나면 나이,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겉모습이 계속 바뀌게 된다. 이러한 탓에 우진은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자신의 엄마 말고 유일한 비밀을 알고 있는 절친인 상백이와 가구디자인 하는 일을 한다. 어느 날 이수를 보고 반하게 된 후 멋진 모습이 되었을 때 이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잠을 참으며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지하철에서 우연히 잠이 들게 되고, 나중에 자신의 비밀을 이수에게 털어놓는다. 이수는 우진을 이해하고 그의 내면을 사랑하기로 한다. 그러나 매일 바뀌는 모습에 적응하기 힘들고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히게 된 이수는 정신과 약까지 먹게 되고 둘은 이별하게 된다. 이 후, 자신이 진정으로 그를 사랑함을 깨닫고 이수는 우진이 있는 체코까지 가고 둘은 체코에서 재회한다.</p> <p>이 전에는 없었던 참신한 설정과 아름다운 영상미와 음악들이 돋보이는 영화라는 점에서는 추천할 만하지만 극 중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갈등부터</p>

		<p>다시 재화하기까지의 스토리가 개연성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았다. 또 영화의 제목이자 이 영화의 주제라고 생각하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진실한 사랑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쉬웠다. 어떠한 모습이든 그의 내면을 사랑하는 이수의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배우들만 중요하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 영화의 주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p> <p>“같이 먹었던 거, 같이 갔던 곳, 같이 갔던 식당 반찬까지 다 기억하는데,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나.”</p> <p>“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은 걸까, 날마다 같은 모습을 하고 날마다 다른 마음으로 흔들렸던, 어쩌면 매일 다른 사람이었던 건 네가 아니라 나였던 게 아닐까.”</p> <p style="text-align: right;">- 극 중 이수의 대사 -</p>  
--	--	--

활동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b>이혜선</b> : 평소에는 영화를 그냥 보는 것에 그쳤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았던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영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화를 보는 시각과 안목이 넓어지게 된 것 같아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으며 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이 전에 보고 싶었던 영화들을 부담 없이 자유롭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b>박지민</b> : 평소에도 영화나 연극 등 문화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영글클럽을 하기 전에는 영화를 보러 나가는 것에 대해 귀찮음이 더욱 커 영화를 보러 나가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영글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된 후 영글클럽을 통해 영화를 감상하고 친구들과 그 영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즐거움이 귀찮음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p> <p>4학년이 되기 전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추억들을 만든 것 같아 참여하기 좋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p>
-------------------	---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 **팀원** : 김은빈, 김재은, 박예지, 이지원, 이혜진, 허유미, 홍신영
- **시청 영화** : 미쓰백, 포레스트 검프, 굿윌헌팅,
-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11/1	19:30~21:20 21:20~22:00	의정부태흥 CGV	<p>미쓰백(2018. 15세 관람가)</p>  <p>마침 참여자 전원이 미쓰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의정부 태흥 CGV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만장일치로 미쓰백을 관람하게 되었다.</p> <p>아동 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 인터라, 전반적으로 어둡고 진중한 두려움을 줄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관객의 트리거를 자극하고 공포와 분노를 이끌어내는 영화였다. 하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이면을 무엇보다 잘 표현했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선 또 다른 사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영화 내의 메시지는 사회에 만연한 아동 폭력과 같은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p> <p>대중이 분노하고 있는 사법 체계와 안일한 태도를 제대로 꼬집고 있으며, 동시에 스토리보드가 여자를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의 참여자들은 영화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p>
11/22	16:10~16:40	본교 소통실	<p>포레스트 검프(1994, 12세 관람가)</p> 

			<p>“이 영화 재밌어”라는 조원의 한 마디로 결정된 2차 모임의 영화. 코미디 장르로 포장한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야기라는 말에 더욱 기대와 매력을 느꼈던 영화였던 것 같다.</p> <p>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남들과는 조금 덜떨어진 한 소년이 성장하는 이야기로, 성장 스토리의 영화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클리셰가 스토리보드의 전반을 차지했다. 그래도 성장하는 이야기를 관객에게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매력 포인트가 있었기에 성공이 가능했던 영화라고 생각한다.</p> <p>그러나 위와는 별개로 이 영화는 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영화였다. 주인공을 굳이 지능을 낮게 설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영화는 주인공의 인생을 보여준 게 아니라, 주인공의 인생을 주변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묘사한다.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풀어나가는 걸 1인칭 서술로 연출을 잡았으면 그것에 충실했어야 한다고 본다.</p> <p>워낙 조원 개인들이 추구하는 영화의 가치가 다르다 보니, 영화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이었다. 코미디답게 재미있는 영화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마냥 좋은 영화도 아니라는 코멘트로 모임을 마무리하긴 했으나, 토론과 모임을 위해 볼 만한 영화는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p>
11/29	17:20~18:00	본교 도서관	<p>굿 윌 헌팅(1998. 2016 재개봉, 15세 관람가)</p>  <p>1학기의 상담학개론 수업에서 듣게 된 영화. 해당 조의 조원이 모두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학생이며, 상담에 대한 흥미가 높았기에 마지막 모임의 영화로 자연스럽게 선택되었다.</p> <p>영화의 내용보단 까다로운 내담자와 직면했을 때,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상담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지 등 학과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했다. 모임에서의 토론 또한 상담자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 인간중심 상담의 의의 등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진행되었다.</p> <p>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 개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 경험하게 되며, 이 활동을 이어가는 조원들</p>

			또한 마찬가지이다. 특히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 지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한다. 영글 클럽 3차 모임은 조원 개인의 생각들과 함께 자신의 비전과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다.
--	--	--	--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같은 학과의 동기로서 친구로서, 다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했던 한 친구의 프로그램 신청으로 영글 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과 분리 문제와, 개개인의 사정 때문에, 1학과와 비슷하게 별다른 의미도 없이 학기가 흘러갈까 염려하던 도중에 발견했던 것이 바로 영글 클럽이라 하더라.</p> <p>확실히 우리는 강의의 과제로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사적으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만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서로의 취향을 얘기하며, 취미를 공유하고, 개개인을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 영글 클럽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p> <p>3번뿐인 짧고 간소한 모임이었지만, 다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을 뿐만 아니라, 영화를 매개로 해 각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주제에 대해 토론할 때 어떤 것을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지를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대학교의 1학년 밖에 되지 않은 동기끼리 장소를 정해 모임을 가지고, 서로의 시간을 양보하면서 문화생활을 하는 경험이 어디 흔하겠는가? 한 학기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을 들였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학교의 또 다른 활동을 참여할 동기가 생겼고,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 조원들끼리 모여 색다른 모임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치 있는 활동이 아니었나 싶다.</p> <p>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서술하자면, 활동 이후 일괄 지급 형태와 오직 현금으로 지원비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 활동의 최소 회기에 맞춘 적은 지원금 정도가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학교가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은 정말 좋았다. 그리고 단순히 영화 관람에 그치지 않고, 영화를 주제로 토론을 펼쳐나갈 기회를 마련해주는 점도 마찬가지이다.</p> <p>2학기 말에 급하게 진행된 감이 있지만, 한 달 동안 모임에 따라와 준 조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또 영글 클럽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영화와 함께 변화한 조원들을 마주하고 싶다. 팝콘과 나초도 챙기고</p>
<p><b>기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 영화 : 미쓰백, 포레스트 검프, 굿 윌 헌팅</li> <li>· 스포일러 방지를 위하여 영화의 자세한 스토리는 적지 않음.</li> <li>·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은 전부 공식 포스터이며, 활동사진은 조원의 의견을 수용해 첨부하지 않았음.</li> <li>· 위의 날짜와 시간, 장소는 영글 클럽 보고서 작성을 위한 토의, 논의 모임 기준으로 작성함. (11/1 모임 제외)</li> </ul>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 **팀원:** 김성민, 서승수, 유승원, 장희수, 조석현
- **시청영화:** 베놈, 아이언맨3, 어벤져스
-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8년 10월 13일	15시 20분 ~ 19시 17분	CGV 의정부	베놈 영화 시청
2018년 11월 13일	14시 ~ 16시 30분	청운 기숙사 101호	아이언맨 3 영화 시청
2018년 11월 27일	14시 ~ 16시 30분	청운 기숙사 101호	어벤져스 영화 시청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통학생도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와 대학이라는 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공통적인 주제를 만들어주고 활동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 **팀원:** 김다솜, 최예진, 최은석, 황새잎
- **시청영화:** 맘마미아2, 완벽한 타인, 허스토리
-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10월 31일	6시 30분~8시 30분	도서관 북카페	CHA세대 프로그램 '맘마미아2'감상, 영화내용 토론 및 보고서 작성
11월 5일	6시 25분~8시 30분	양주 메가박스	영화 '완벽한 타인'감상 및 저녁식사, 영화 내용 토론 및 보고서 작성
11월 14일	7시~9시	해룡학사 523호	영화 '허스토리'감상 및 저녁식사, 영화 내용 토론 및 보고서 작성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먼저 우리 팀의 팀명은 미.간. 이다. 미술치료 상담심리학과와 간호학과가 합쳐져서 미.간. 이라는 팀명을 정하게 되었다. 우리 팀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항상 영화를 볼 때면 코미디 영화나 공포영화처럼 평소 좋아하던 장르의 영화나 흥행한 영화를 봤는데 그저 영화를 보는 그 순간이 즐겁고 그 후에 남는 것은 별로 없었다. 우리 팀은 영화 감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은 사고를 하고 싶어서 영글클럽을 신청하게 되었다. 각자가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도 다르고 바쁜 학교생활에 치여 약속을 잡았지만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약속이 미뤄지는 경우도 많았고 계획이 뒤틀리는 일도 있었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고 영화를 결정했다.</p> <p>영글클럽 활동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수확물은 영화를 문화의 개념으로만 보던 과거의 사고를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 영화를 볼 때는 단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영화를 보던 경우가 대다수 였다. 하지만 영글클럽 활동을 통해서 영화 속 공감할 점이나 비판할 점에 대해 찾아볼 수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을 하며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 깊게 사고하며 편협한 사고를 버릴 수 있게 되었다.</p>
<b>기타</b>	<p>사실 우리 팀 모두가 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바쁘다, 귀찮다는 핑계를 대며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 영글클럽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공부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며 잠시 머리도 식히고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도 했다. 또한 영글클럽을 하면서 본 영화들은 우리의 삶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성소수자 문제, 기부장적 사회, 스마트폰 중독, 위안부 문제 등)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좋아하고 그로 인한 교훈을 얻고 싶은 학생들에게 영글클럽 활동을 꼭 추천하고 싶다.</p>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 **팀원:** 신은소, 윤시은, 조세연
- **시청영화:** invisible guest, 인셉션, 인터스텔라
-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8.10.28	pm9:00 ~ pm11:30	학교 소통실	'invisible guest'를 감상하고 우리 동아리가 지향하는 영화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다행히 모두의 취향이 비슷해서 순식간에 결정할 수 있었다.
2018.11.13	pm7:00 ~ pm10:30	학교 소통실	'inception'은 오픈 엔딩으로 마무리 된 영화이다. 우리는 이를 감상하고 각자가 어떤 엔딩을 상상하였는지 이야기해보았다. 그리고 우리 나름 대로의 결말을 상상해보았다.
2018.12.07	pm9:00 ~ pm11:30	학교 소통실	'interstella'는 inception과 같은 감독이 제작한 영화이다. 이를 기반으로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에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여 다들 연출가의 관점에서 영화의 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처음 목적은 학교 밖으로 잘 나가지 못 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첫 영화를 보고 진지하게 방향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invisible guest는 영화 속에서 있었던 근거만으로는 영화의 결말을 추리하기 힘든 영화이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데, 이를 통해 '뇌를 자극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inception은 집중하면 어느 정도 추리는 할 수 있지만 발상의 전환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현재 세상은 3차원까지 증명되었다. interstella는 4차원 그 이상이 담겨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것에 대해 증명할 수 없지만 조금은 예상할 수 있는 기회였다.</p> <p>이번 활동을 하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인 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항상 같은 굴레로 진행되는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p>
-------------------	---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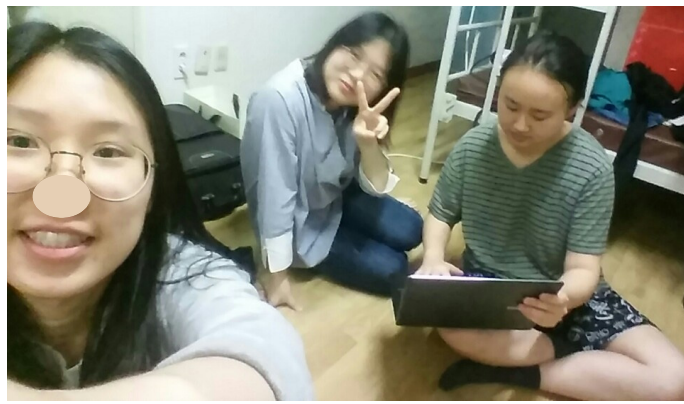
- **팀원:** 김영인, 이찬미, 진선민
- **시청영화:** 엠펙러즈 클럽,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고독한 스승
-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10/9	PM 19 : 00	분당학사 404호	엠펙러즈 클럽을 시청하였으며, '슈트럭 나한테'("업적이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야망과 정복이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내면가꾸기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결과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성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하였다.
10/22	PM 18 : 00	차의과학대학교 분당학사	Pay it forward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을 시청하였으며, 교육의 역할(ex)교육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하였다. 또한 자율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인 추상적인(가이드라인 없는) 자율적 교육방식이 허용되어도 되는 것인지를 토론했다.
11/25	PM 20 : 00	분당학사 404호	lean on me (고독한 스승)을 시청하였으며, 자유란 이름으로 방임적 형태에 가까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강압적 교육(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규율과 훈계를 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이번 활동에서 우리가 본 영화는 심오한 철학적인 이야기, 그 중에서도 교육철학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였다. 이는 점에서 의의가 있던 것 같다. 교육철학(教育哲學, 영어: philosophy of education)은 교육학의 영역 중 교육을 왜 해야 하느냐,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느냐에 관한 영역으로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는 영역이다.</p> <p>무엇보다 그냥 영화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영화가 주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들(ex)결과주의적 성향에 대한 찬반토론, 자율적인 교육방식의 허용여부에 대한 찬반논의)에 대한 토론&amp;토의가 있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이는 철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자세인 '현상의 본질적인 추구와 원리적 이해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향 모색과 목표설정을 위해 심각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노력하는 자세'를 잘 반영한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팀원 셋은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지금껏 교육을 받아온 상황에서 얻은 느낌과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이러한 토론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본질적 철학이론이 바탕이 된 팀원 간의 사실적/경험적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은 자칫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이해만이 계속되고 원리적인 탐구에는 소홀한 토론이 될 가능성을 줄여주었다.</p> <p>따라서 이러한 훌륭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영화가 있었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 물질적 재원을 마련해 준 것은 '영글클럽'이 없었으면 불가</p>
-------------------	---

	<p>능하였을 것이다. 그만큼 이번 영글클럽 활동은 아주 유익했고 다음에도 꼭 참여해보고 싶은 활동이다. (20162109 김영인)</p> <p>지금까지는 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활동 중 항상 교과 스터디 활동에만 참여해왔다. 내게 있어서 영글클럽은 생각지 못한 활동이었는데 이번 학기에 동기들과 기회가 되어 이렇게 영글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총 3번의 활동을 하며 본 영화는 다 '교육'과 관련된 스토리의 영화였다. '교육'이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교육을 빼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 사람이 성장해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에 시청한 'Emperor's club, Pay it forward, Lean on me'라는 세 영화는 각각 교육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매번 다른 관점의 사고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실 평소에 영화를 볼 때는 아무생각 없이 장면 하나하나 의미를 두지 않고 스토리가 흘러가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시청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볼 장면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며 영화를 보니 비판적 사고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었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생각 또한 공유하며 나눌 수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편협한 시각을 좀 더 넓은 방향으로 넓혀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간호학과 3학년 2학기. 빠듯한 이론 수업과 박센 임상 실습으로 인해 지칠 법한 이번 학기에서 영글 시간은 내게 오직 영화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쉬어가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하고 싶다. (20162170 진선민)</p> <p>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나에게 처한 입시 환경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다.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방식에 따라 불만사항이 있어도 이를 거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입시 과정을 거쳤다. 대학교에 와서는 교육에 관해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영글클럽을 통해 친구들과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 3가지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정답을 요구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원의 의견에 경청하면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p> <p>영화 'Pay it forward'에서 자율적인 교육방식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서 토론처럼 진행되었다. 무엇이든 토론을 하게 되면 이분법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을 가진다. 이번에도 찬반의 중간에서 균형을 이룬다면 최적의 방안이겠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낀다. 학생들을 이끄는 방식이 강제적이어서도 안 되고 마냥 풀어주는 방식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율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서로가 지킬 수 있는 규칙과 선을 가지고 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 하나가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지도자에 따라 각각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른 만큼 지도자가 책임감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교육은 나오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가 아닌, 교육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20162155 이찬미)</p>
<p><b>활동사진</b></p>	<p>[특징 및 자랑거리]</p> <p>교육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3가지의 영화를 보면서 토의, 토론, 논의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토론 위주의 과제가 있을 때면 아직은 낯설고 미숙했다. 이제는 3번의 훈련을 통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원들 모두가 똑 부러지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배울 수 있었다.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떤 자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토의 활동 후 피드백을 통해 잘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도 나눠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p>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 **팀원:** 이예진, 김형진, 장승완, 오선유
- **시청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신비한 동물 사전 2, 성난 황소
-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8.11.06	2시간 30분	의정부 태흥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감상
2018.11.12	3시간	강익실, 송우리	GS에서 다과 구매하여 강익실에서 영화내용에 관한 토론 후 송우리에 나가서 저녁식사함
2018.11.20	4시간	메가박스, 강남점	모두 1편을 본 상태여서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 2 그린델왈드의 범죄'를 감상하고 저녁식사와 함께 감상평 나눔
2018.11.23.	3시간	하계 CGV	영화 '성난 황소' 감상하고 카페에서 영화감상평 나눔
2018.12.14	2시간	개별 자택	종강 후라서 실습 등 각자의 활동으로 직접적 대면의 모임이 어려워서 그룹 콜을 통해서 각자의 감상평과 소모임 활동에 관한 이야기 나눔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b>이예진 :</b> 항상 영화는 킬링타임 용이라 생각하고 지나쳤었고 성난황소 또한 보편적인 클리셰를 가진 영화였지만, 소모임을 통해서 친구들과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깊은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숨겨진 뜻들을 찾아가다 보니 모든 영화들이 각자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p> <p><b>김형진 :</b> 보헤미안 랩소디를 볼 때, 그 시대를 모르는 나 또한 영화를 보면서 전율이 느껴졌는데, 젊은 세대로서 쿤에게 열광하던 그 시절을 보내오신 부모님께서는 감회가 더욱 클 것 같아, 영화를 보고 난 후 집에 가져다주 부모님께 추천해 드리고 예매해 드렸다. 우리 뿐 만 아니라 부모님과도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 준 좋은 기회였다.</p> <p><b>오선유 :</b> 다른 과 학생들과 더 깊게 알아가서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학교에서 더 많아졌으면 좋았다.</p> <p><b>장승완 :</b> 교학상장하니 팔목상대이며 동심협력하니 포덕취의로다.</p> <p><b>종합의견 :</b> 소모임에 처음 활동하였는데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친구들과 진지하게 새로운 문화 활동이라는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 즐거웠다.</p>
<b>활동사진</b>	<p>소모임 활동에 관한 공지 전에 각자의 영화적 취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행복도서관에 있는 넷플릭스를 사용하여 영화감상 후 토론을 하였다.</p>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토익 시작했으니 끝을 보자



- 소모임 분류: 어학준비
- 학습장소: 본가, 카페 등
- 학습기간: 2018년 12월 26일 ~2019년 01월 26일
- 학습일지

소모임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8.12.26.	2	미금역 스타벅스	1. 단어시험 2. 문제풀기 3. 오답 및 단어정리 4. 계획점검
2019.01.04	2	소희네 집	1. 단어암기 2. 단어시험 3. 과제 확인 및 과제내기 4. 문제 풀기(Part6) 5. 풀이법 공유
2019.01.08	2	미금역 스타벅스	1. 단어암기 2. 단어시험 (명사어휘) 3. 실전 모의1 part7풀기 4. 풀이법 공유 5. 다음 과제 정리
2019.01.15	2	소희네 집	1. 단어암기 2. 단어시험 3. 과제 확인 및 과제내기 4. 실전 모의2 Part7풀기 5. 풀이법 공유
2019.01.26	2	서현역 스타벅스	1. 단어암기 2. 단어시험 3. 앞으로 스테디에 대한 이야기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b>박소희</b> 겨울 방학 때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하려고 마음먹는다. 나도 마찬가지로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방학을 하니 늘어지고 게을러지게 되었다. 하려고 했던 건 눈에 안보이고 핸드폰이며 군것질 거리가 눈에 보였다. 그런 나를 그래도 붙잡아 준 것이 토레스터디가 아닌가 싶다. 만나서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어도, 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단어를 외우게 해주고 나아가 영어공부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현이랑 독서도 하기로 했다. 기회가 된다면 정현이와 2월 달에도 만나서 서로 계획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이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다.</p> <p><b>민정현</b> 팀명처럼 토익 시작했으니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소희언니와 소모임을 시작했다. 총 5회, 10시간 토익 스터디 모임을 통해 서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매번 스터디 시작할 때 서로 해온 숙제를 검사하고 단어암기 시험을 보았다. 숙제를 해오지 못한 사람은 음료사기 벌칙이 있어서 항상 숙제를 열심히 하려고 했다. 만나서 시간을 정해 놓고 실천처럼 문제를 풀어보았고 서로 틀린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각자 문제 풀이 방식에 대해 공유하였다. 나의 경우 파트7을 풀 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소희언니에게 시간을 단축하는 팁을 듣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 파트 5의 시제 문법부분이 약했는데 소희언니에게 오답이유와 문제를 푼 방식에 대해 해설을 들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할 수 있었다. 이제 토익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스터디 활동을 열심히 한 만큼 보람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p>
------------------------------	--

<p><b>학습목표 달성 결과물</b></p>	<p>19.02.10 첫토익시험 예정.</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2급러들의 1급 도전기



- 소모임 분류: 어학준비
- 학습장소: 본가, 카페 등
- 학습기간: 2018년 12월 26일 ~2019년 01월 26일
- 학습일지

소모임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1.05	오전 10시 30분 ~ 오전 11시 30분	일반통화를 이용, 자택	1급 필기 1과목~ 2과목에 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한 궁금증, 및 질문, 진도사항 체크
2019.01.12	오전 10시 30분 ~ 오전 11시 30분	일반통화와 화상통화 진행, 자택	1급 필기 2과목~ 3과목에 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한 피드백, ox 문제 해결, 인터넷 강의 질문 공유, 진도사항 체크
2019.01.19	오전 11시 ~ 오후 1시	화상통화 진행, 자택	1급 필기 진도 확인(컴퓨터 일반, 스프레드 시트 일반), 실기 1주차 인터넷 강의 진도 계획 및 실행
2019.01.22. (중간점검)	오후 10시~	일반통화, 자택	필기 3과목에 대해 질문 -> 1급 필기 시험 방향성 잡기, 실 기 진도 맞추기, 모르는 내용 질문하기, 심화내용 암기
2019.01.26	오전 11시 ~ 오후 1시	화상통화 진행, 자택	1급 필기 최종 진도 확인(데이터베이스 일반) 및 시험 응시, 결과 발표 후 시험 점수 공유 및 조언, 실기 2주차 인터넷 강의 진도 계획 및 실행
2019.01.29. (최종점검)	오후 8시 ~ 오후 9시	일반통화, 자택	1급 실기 시험 관련하여 문자로 주고 받기 어려운 내용을 통 화로 설명, 해결방법 공유 및 실기 시험날짜 정하기

###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작년 2018년도 동계방학 때 &lt;컴퓨터활용능력 2급&gt;을 뚫었지만 2급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여 1급을 가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리고 동계방학이 다가오고 그 기간 동안 소모임을 한다는 것은 자격증 공부에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간을 보니 약 한 달간의 여정이었고,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과연 한 달 만에 취득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다.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기로 결심했다.</p> <p>플랜을 계획해보니 역시 컴퓨터활용능력 1급은 필기, 실기 전체를 고려했을 때 1개월 플랜은 무리였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 소모임을 진행하는 동안이라도 필기 과목을 공부하여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자는 목표를 정하고 진행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합격' 이라는 결과를 손에 거머질 수 있었다.</p>
------------------------------	---

‘소모임’이라는 동기 부여 체제가 없었다면 아마도 동계 방학 내내 집에서 머무르며 생산성 없는 삶을 살았을 지도 모른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동계 방학이라는 시간에 누구는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누구는 더 나태하게 살아간다. 우리는 후자가 되기 싫었다. 젊은 나이, 도전하고 싶은 나이, 혈기왕성한 나이에 누구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싶었다. 엄청 대단하고 큰 목표는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나가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동계방학 소모임은 견고하게 쌓여간 모래성 같은 존재였다.

우리는 12월 26일을 시작으로, 중간점검, 최종점검의 시간을 포함하여 총 6번의 스터디를 가졌다. 집이 멀고 방학 중 서로의 일이 바빠 만나서 진도를 체크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서로가 집에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일반전화와 화상전화(페이스톡)으로 스터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대신 서로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카톡으로 진행상황을 꾸준히 보고해주기로 하였고, 그 결과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실기 준비까지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 방학이 시작된 후, 자칫하면 헛되이 보낼 수도 있는 시간을 친구와 함께 동계방학 소모임을 통해 보람차게 보낸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갈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존감이 높아졌고,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오히려 개강 후 중간고사가 기대가 되기도 하였다. 사회에 나가면서 앞으로도 수많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전문적으로 갖춰야할 것들이 더 많아 지겠지만, 컴퓨터 활용능력 1급으로 그 첫 단추를 메꿨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내가 해내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한 번도 내가 스스로 계획을 잡고, 목표를 잡고 해본 것이 없어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서툴렀지만, 한 달 간의 경험으로 마무리 할 때쯤 되니 한층 발전한 내 모습을 보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또 한 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느꼈다.

우리는 2월 초반에 끝이 나버려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과 동시에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기 부여가 사라져버렸다는 아쉬움, 그리고 그 동기 부여 없이도 나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 두 가지 감정이 서로 공유되면서 앞으로도 뭐든지 꾸준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동계방학 소모임이 막을 내리지만, 2월 중순 즈음에 실기 시험을 응시해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최종 합격하기로 다짐했다. 우리에게 올바른 정신과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2019 동계방학 소모임을 꽤 오래 기억할 것 같다.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차팜아이



- 소모임 분류: 공모전준비
- 학습장소: 카페
- 학습기간: 2018년 12월 28일 ~2019년 01월 26일
- 학습일지

소모임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8.12.28	10:00-18:00	강남역	전체적인 방향 및 주제설정
19.01.02	12:00-18:00	강남역	사업계획서 작성
19.01.08	10:00-18:00	강남역	1차 합격 뒤에 PPT 제작
19.01.16	12:00-18:00	강남역	PPT 발표 연습 및 PPT수정

### 활동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b>선기</b> :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캡스톤디자인 수업 중에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진행한 공모전이라는 의미가 깊었다. 실제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예를 들면 시장에 대한 명확한 설정 등의 확실하지 않은 조사로 발표에서 많은 지적을 당했고 실패하였다. 이번 공모전을 바탕으로 다음 공모전에서는 더욱 확실한 목표설정과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p> <p><b>김민지</b> : 이번 공모전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비록 아쉬운 결과였지만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 다른 공모전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방학동안 열심히 함께 힘 쓴 '차팜아이' 팀원들에게 고맙다.</p> <p><b>우나현</b> :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공모전이라는 기회를 통해 피드백을 받으며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추후에 기회가 생기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 싶다.</p> <p><b>임경진</b> : 외부 공모전은 처음 준비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간의 협동심뿐만 아니라 제 3자의 피드백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다면 또 도전해보고 싶다.</p>
-----------------------	--

<p><b>학습목표</b></p> <p><b>달성</b></p> <p><b>결과물</b></p>	<p>제약회사 화이자(Pfizer)에서 주최하는 &lt;제 3회 Pfizer Essential Health 디지털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gt; 1차 합격</p> <p>안녕하세요? [제 3회 PEH 디지털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사무국입니다.</p> <p>&lt;제 3회 PEH 디지털 오픈 이노베이션&gt; 서류 심사를 합격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REDACTED]</p> <p>[REDACTED] 영단을 전달 부탁드립니다.</p> <p>(*일반인이 포함될 팀은 팀원 중 의사자격이 있는 분은 따로 회신 주실 때 표기 부탁드립니다.)</p> <p>[REDACTED]</p> <p>장소 : 로즈 강남 2호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59 백암빌딩 3층)</p> <p>인터뷰 심사 시간 : 20분</p> <p>인터뷰심사는 약 7분 이내의 간단한 팀 아이디어 소개 후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 집니다. 발표 형식은 자유이며, PPT 등의 자료도 사용 가능합니다. 발표 자료는 심사 당일 전해주시면 됩니다.</p> <p>추가로, 서류 심사 시 논의되었던 <b>팀들</b> 자문 <b>feedback</b> 전달 드립니다.</p> <p>인터뷰 심사 이전에 Idea의 보완 및 수정에 반영하여 참석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오니 준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p> <p><b>팀명 : 차필아이</b></p> <p><b>팀들 자문 결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시행가능성(O / △ / X) : O</li> <li>■ 비교 : 의약품 제품을 수록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은 의료기기(UV 살균기능)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li> </ul> <p>다시 한 번 서류 심사 합격을 축하드리며, 남은 인터뷰 심사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디지털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사무국 드림</p>
---	---

- 소모임 분류: 공모전준비
- 학습장소: 카페
- 학습기간: 2019년 01월 11일 ~2019년 01월 29일
- 학습일지

소모임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1.11	5시간	강남역 인근 카페	논문 분석, 읽은 논문의 한계점에 대한 토론
2019.1.15	5시간	판교역 인근 카페	논문 분석, 분석틀 용어에 대한 정리, 논문 내용에 대한 토론
2019.1.23	5시간	차의과학대학교 과학관	논문 분석, 지난 학술제 아쉬운 점 되돌아보기
2019.1.29	5시간	강남역 인근 카페	논문 분석,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기

활동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활동보고서에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CHAcademy는 약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문헌 분석과 평가 능력을 기르고, 앞으로 있을 추계 학술제를 대비하고자 총 네 번에 걸쳐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사실 팀원 모두 3학년 2학기 '의약정보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해, 논문을 여러 편 읽어 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팀원 모두가 느꼈기에 학습소모임을 결성하여 부족한 점을 채우고자 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p> <p>우선 논문을 읽고 분석한 시간을 측정하여 팀원들 간의 편차를 줄이려고 노력했으며, 분석틀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기 중에는 바쁘고 시간을 내기 어려웠기에 방학을 이용한 충분한 스터디 시간 확보는 팀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번 동계방학 학습소모임을 하면서 지난 학술제를 돌아보게 되었다. 부족한 점을 메꾸고 팀원들이 다시 한 번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다.</p> <p>논문을 주기적으로 읽은 덕에 읽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팀원들 간의 논문 분석틀 점수 편차도 많이 줄어들었기에 앞으로 있을 학술제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p> <p>팀원들이 어려워했던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 문제는 계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학술제에 제출할 CHAcademy의 논문을 읽을 독자들을 위해 전문 용어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면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는 따로 정리해두었고, 개강 후 교수님을 찾아 뵙고 여쭙볼 것이다.</p> <p>또한 아직까지 논문을 한 번 읽고 전반적인 내용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있을 스터디 때 논문을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p>
-----------------------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Reading Ability\_CHAcademy

- 소모임 분류: 공모전준비
- 학습장소: 카페
- 학습기간: 2019년 01월 02일 ~2019년 01월 23일
- 학습일지

소모임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9.01.02	14:00-16:00	포천 102호	Comparison of the Efficacy of a Gabapentinoid with an Opioid Versus an Opioid Alone in Patients with Spinal Cord Stimulation 읽고 분석 후 토론
19.01.09	16:00-18:00	강남역	Comparison between intravenous morphine versus fentanyl in acute pain relief in drug abusers with acute limb traumatic injury 읽고 분석 후 토론
19.01.16	13:00-15:00	포천 102호	Comparison of Opioid Prescribing Patter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rimary Care Physicians' Attitudes and Perceptions 읽고 분석 후 토론
19.01.23	18:00-20:00	강남역	Comparison of the Efficacy of a Gabapentinoid with an Opioid Versus an Opioid Alone in atients with Spinal Cord Stimulation 읽고 분석 후 토론

###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b>장윤지</b> : 몇 번을 걸쳐 논문을 읽고 토론을 하는 모임을 진행하다보니 확실히 논문 읽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논문을 읽는 시간도 단축되고 또 논문들의 단점과 장점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논문소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져 논문 분석 스킬을 향상시켜 추계 학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p> <p><b>이영미</b> : 그래도 이전에 몇 편의 논문을 읽어서 그런지 이전보다 읽는 속도의 측면이나 분석하는 측면에서 훨씬 수월했다. 이번 약연입 과정을 통해 논문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는데, 지속적인 스터디를 통해 논문 읽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학기 중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만큼 조금씩 미리미리 대비를 하여 올해는 꼭 좋은 결과를 내기로 팀원들끼리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p> <p><b>김소연</b> : 연습하다보니 논문을 읽는 것이 이전보다 좀 더 용이해졌다. 그리고 논문의 한계점 등을 토론하다보니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고 시야가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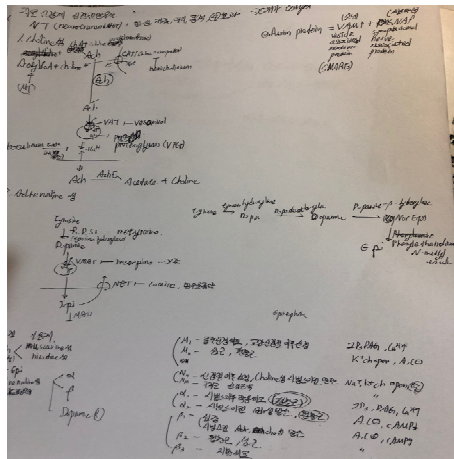


**임경진 :** 처음 논문을 읽을 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르는 내용도 많아 답답했는데, 팀원들끼리 헛갈렸던 내용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토론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논문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느껴졌다. 다음번에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홍선기 :**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논문을 읽고 분석하여서 원하는 자료를 추출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중요함에도 실제로는 논문에 익숙하지도 분석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방학소모임을 통하여서 2019년 추계 약학회나 추계 약사회에 제출할 논문에 적합한 스킬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습목표  
달성  
결과물

1. 논문 간략 요약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SOL(Supreme, Oustanding, Limitless) 브레인

- 소모임 분류: 전공심화
- 학습장소: 카페
- 학습기간: 2018년 12월 28일 ~2019년 01월 16일
- 학습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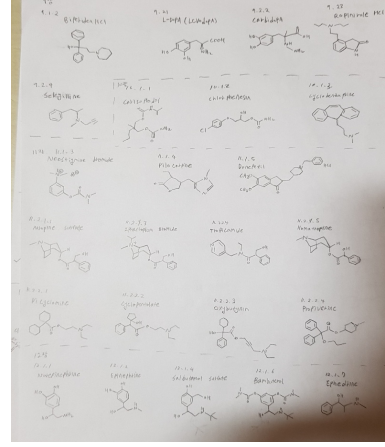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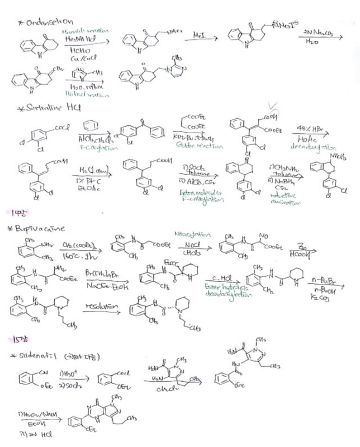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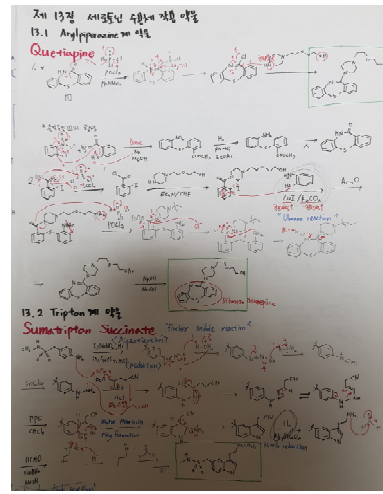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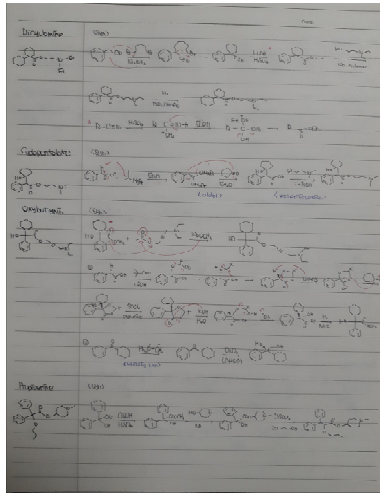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2.28	12:30~13:30 18:00~19:00	차바이오컴플렉스	의약품합성학 Ch 09,10 -파킨슨씨병 약물과 근육이완약물 중에서도 기말고사에서 특히 더 어려웠던 selegilin의 합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짚고 넘어감
1.3	18:00~20:30	차바이오컴플렉스	의약품합성학 Ch 11~16 -각 단원별로 하나의 약물을 골라 전합성을 하도록 하였고, 구조에 대해서는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만들어두었던 카드를 활용하여 서로 퀴즈를 내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1.10	18:00~20:30	차바이오컴플렉스	의약품합성학 Ch 21 -당뇨병치료약물에 대해서 공부하였음. 4-1을 대비하기 위한 예습인 만큼, 합성과정 자체보다는 어떠한 약물들이 있으며 구조와 명명은 어떻게 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함
1.16	19:00~21:00	서현역 카페	의약품합성학 Ch24 -항히스타민약물에 대해서 공부하였음. 지난번 스터디에서 너무 구조 위주의 학습을 진행하였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 스터디에서는 합성과정도 미리 예습을 해보기로 함. 역시 예습이기 때문에 합성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각자가 생각해 온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구글링을 통해 찾아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나갔음.

###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b>김상욱</b> : 학기 중에 어려웠던 합성학을 동기들과 미리 공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함께 배우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부뒀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학기에는 조금 더 높은 성적을 기대해볼까 합니다.</p> <p><b>박예람</b> : 이전 학기에 시험공부를 하면서 구조만 미리 외워놓아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학습지원센터의 이러한 좋은 기회를 통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b>이영미</b> : 선배들로부터 4학년이 되면 공부양이 엄청 많아진다 하여 뜻이 맞는 동기들과 함께 미리 예습을 시작하였습니다. 때로는 방학 중에 왜 공부를 하고 있어야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분명 지금 미리 공부한 것들이 학기 중에 빛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b>정진규</b> : 지금 미리 공부했던 것처럼 학기 중에도 동기들과 서로서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며 함께 공부해나간다면 힘들다는 4학년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	--

<스터디를 위해 각 팀원들이 미리 준비해 온 노트필기 자료>

학습목표  
달성  
결과물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static\_ch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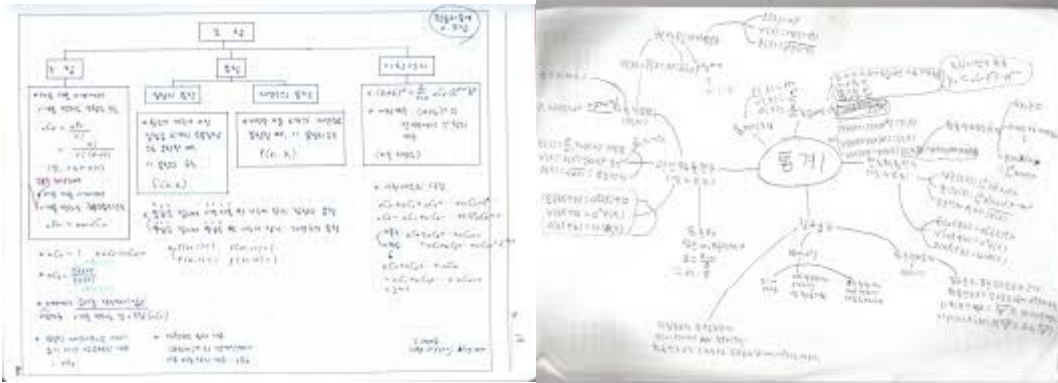
- 소모임 분류: 자격증 준비
- 학습장소: 포천 202호
- 학습기간: 2019년 01월 02일 ~2019년 01월 17일
- 학습일지

소모임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9.01.02	14:00-16:00	포천 202호	교재 공부 후 스스로 정리 및 모여서 모르는 것 토론
19.01.07	12:00-16:00	포천 202호	교재 공부 후 스스로 정리 및 모여서 모르는 것 토론
19.01.12	13:00-15:00	포천 202호	교재 공부 후 스스로 정리 및 모여서 모르는 것 토론
19.01.17	18:00-20:00	포천 202호	교재 공부 후 스스로 정리 및 모여서 모르는 것 토론

###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b>임경진</b> : 항상 통계가 지금의 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무에 있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대로 공부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함께 공부를 하면서 헛갈리던 개념들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 스스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진도를 나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나를 채찍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p>
	<p><b>홍선기</b> : 이전까지는 통계는 잘 모르기에 분석된 자료만 보았고 논문에 나오는 자료들도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하였다. 하지만, 통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검증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을 기반으로 나중에 서울시 공모전에 나갈 때 기반 지식으로 분석하여서 제출한 계획입니다.</p>
	<p><b>최문혁</b> : 많은 것을 배우며 통계이론을 차곡차곡 적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통계스터디는 나의 통계역량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많은 도움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선배님들에게 참 감사하다.</p>
	<p><b>김소연</b> : 혼자서 했다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많이 밀렸을 것이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덕분에 이번 겨울방학 때 통계 개념을 다시 찬찬히 복습할 수 있었다.</p>
	<p><b>조해람</b> : 모르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 무척 뜻 깊은 시간이었다. 통계 기초 지식과 엑셀을 통한 분석방법에 대해 능숙해져서 만족스러웠다</p>
	<p><b>김영진</b> : 통계는 앞으로 우리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를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학문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되었다.</p>

학습목표  
달성  
결과물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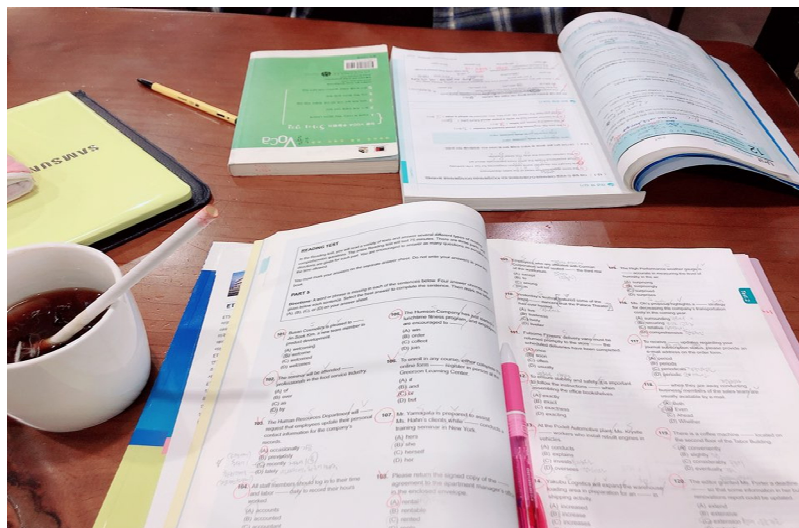
## 갑돌이와 갑순이

- 소모임 분류: 어학 준비
- 학습장소: 증산정보 도서관, 카페
- 학습기간: 2019년 01월 05일 ~2019년 01월 26일
- 학습일지

소모임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년 1월 5일	14사~17시	증산정보 도서관, 카페	리딩 CHAPTER 1 리스닝 PART 1 보카 DAY1~2
2019년 1월 12일	14사~17시	증산정보 도서관, 카페	리딩 CHAPTER 2 리스닝 PART 2 보카 DAY3~4
2019년 1월 19일	14사~17시	증산정보 도서관, 카페	리딩 CHAPTER 3 리스닝 PART 3 보카 DAY5~6
2019년 1월 26일	14사~17시	증산정보 도서관, 카페	리딩 CHAPTER 4 리스닝 PART 4 보카 DAY7~8

###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평일에 개인공부시간을 갖고 주말에 스터디메이트와의 합동공부를 통해 내가 부족한 점에 대해 상대에게서 도움을 얻고 또 상대의 부족한 점을 내가 가르쳐주고 채워줌으로써 우리가 공부해보고자 했던 분야에 대해 한층 깊이 생각해보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스터디 메이트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일상도 서로 나누며 더욱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p> <p>스터디를 하게 되며 자칫 방학 내내 공부와는 거리가 멀어질 뻔 했던 나를 그나마 붙잡아 줄 수 있는 소중한 모임이 된 것 같아 4주간의 성취도를 보면 부듯했다. 교재의 많은 부분이 남았지만, 앞으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은 것 같다. 방학 중이라 학기 중보다는 적게 스터디 모임을 가졌지만, 그래도 1주일에 한 번의 스터디 덕분에 2월에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공부한 후 3월에 토익 시험을 보는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다.</p>
------------------------------	---



학습목표  
달성  
결과물

3월 16일 토요일 토익시험 응시 예정.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구구영**

- 소모임 분류: 어학 준비
- 학습장소: 미래관 Job 카페
- 학습기간: 2018년 12월 21일 ~2019년 01월 04일
- 학습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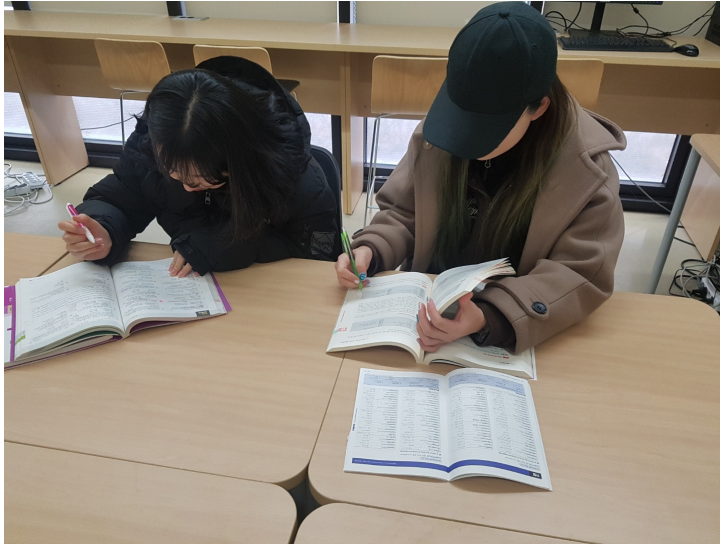
소모임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8.12.21 (금)	PM 01:00 ~ PM 04:00	미래관 Job cafe	각자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공부를 진행 (방식은 비슷 : 시간에 맞춰 문제풀기, 부족한 어휘보충을 위한 단어암기 등)
2018.12.28 (금)	PM 01:00 ~ PM 04:00	미래관 Job cafe	각자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공부를 진행 (방식은 비슷 : 시간에 맞춰 문제풀기, 부족한 어휘보충을 위한 단어암기 등)
2018.12.31 (월)	PM 01:00 ~ PM 04:00	미래관 Job cafe	각자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공부를 진행 (방식은 비슷 : 시간에 맞춰 문제풀기, 부족한 어휘보충을 위한 단어암기 등)
2019.01.04 (금)	PM 01:00 ~ PM 04:00	미래관 Job cafe	각자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공부를 진행 (방식은 비슷 : 시간에 맞춰 문제풀기, 부족한 어휘보충을 위한 단어암기 등)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b>[김경민]</b> : 덕분에 방학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다보면 계획 했던 데로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날짜를 잡아서 친구와 함께 하면서 계획을 잘 지켜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르는 것을 서로 질문하고 알려주면서 서로 배우고 상부상조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토익은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친구와 하다 보니 정직하고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는 연습도 잘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매일 과제 체크를 받음으로서 미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소모임을 가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 팀이 2명으로 구성한 것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같이 하다보면 시끄럽고 집중력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다음에도 소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p> <p><b>[오현지]</b> : 가장 좋았던 것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한다는 점이였다. 혼자 하다보면 솔직히 나태해지고 생각했던 양 보다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동기와 함께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겪지 않았다. 같은 종류의 과목을 공부하</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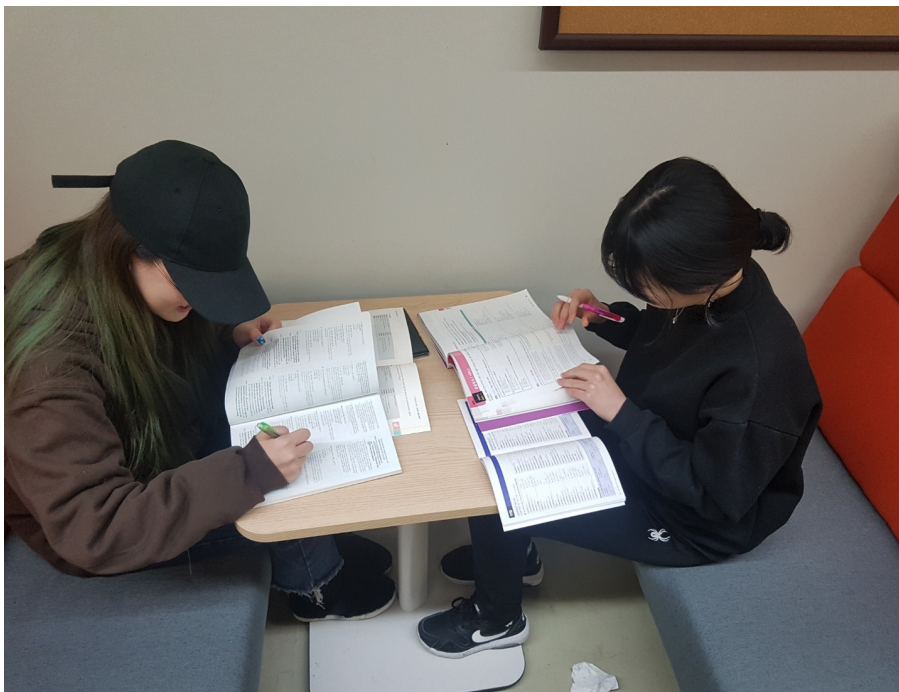


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경쟁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정해진 양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혼자 했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문제들을 서로에게 물어가며 보다 나은 풀이 방법으로 문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1회차)

학습목표  
달성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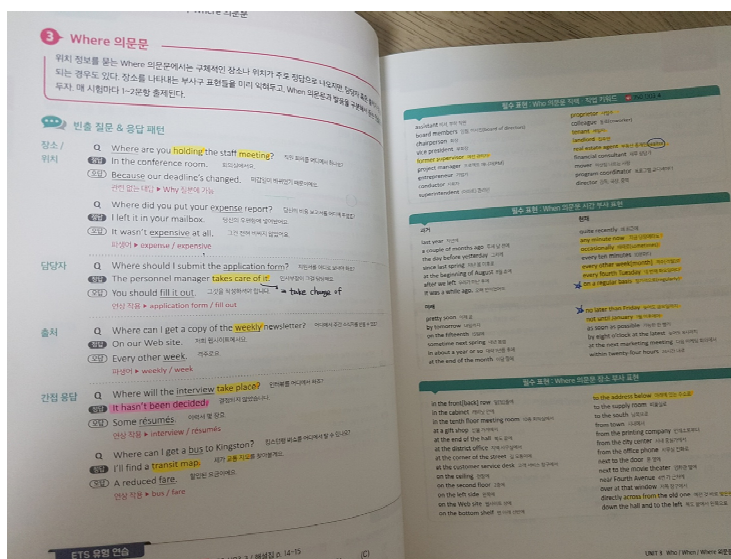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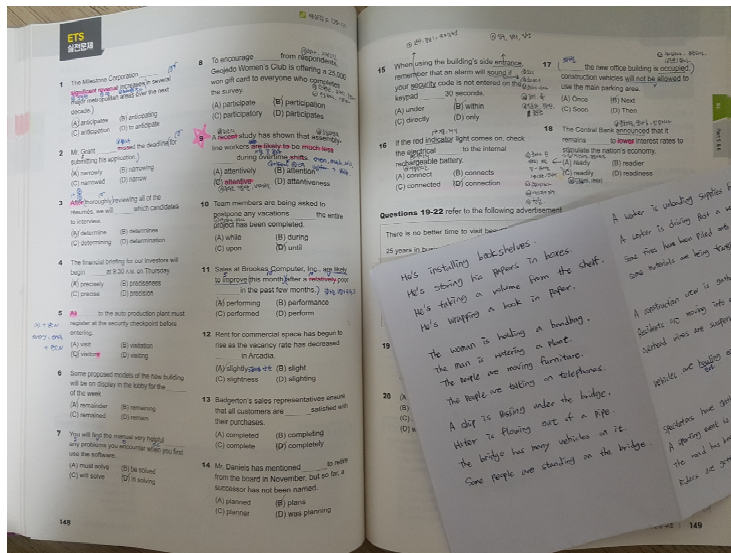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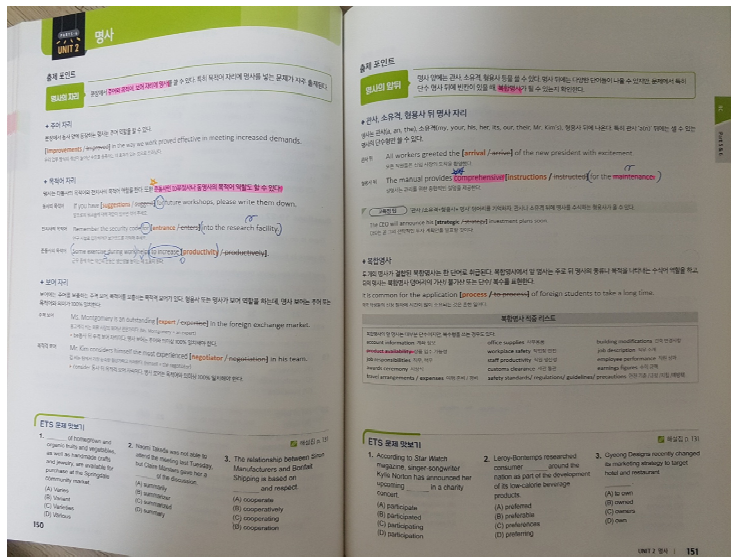
(2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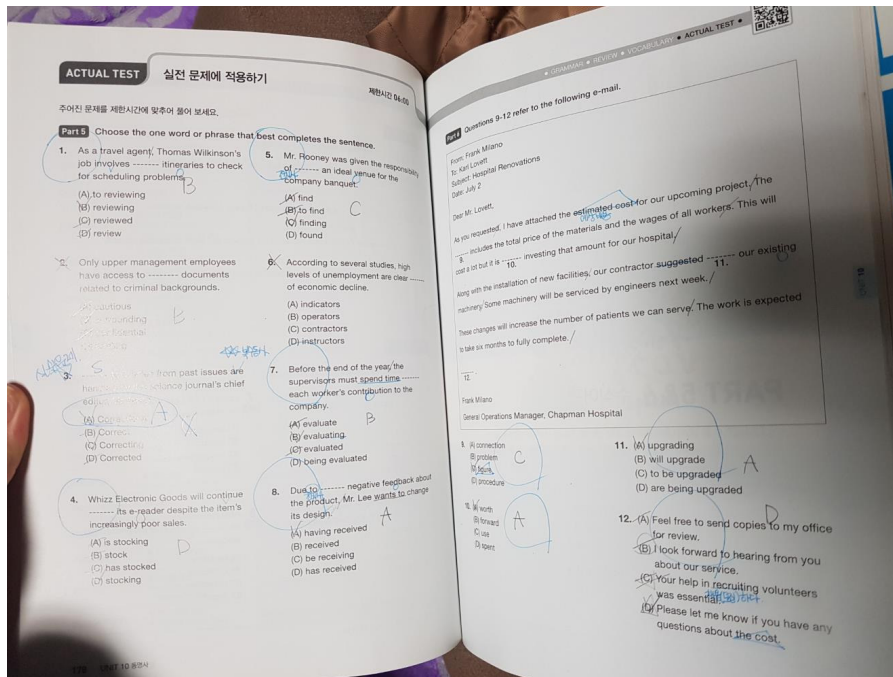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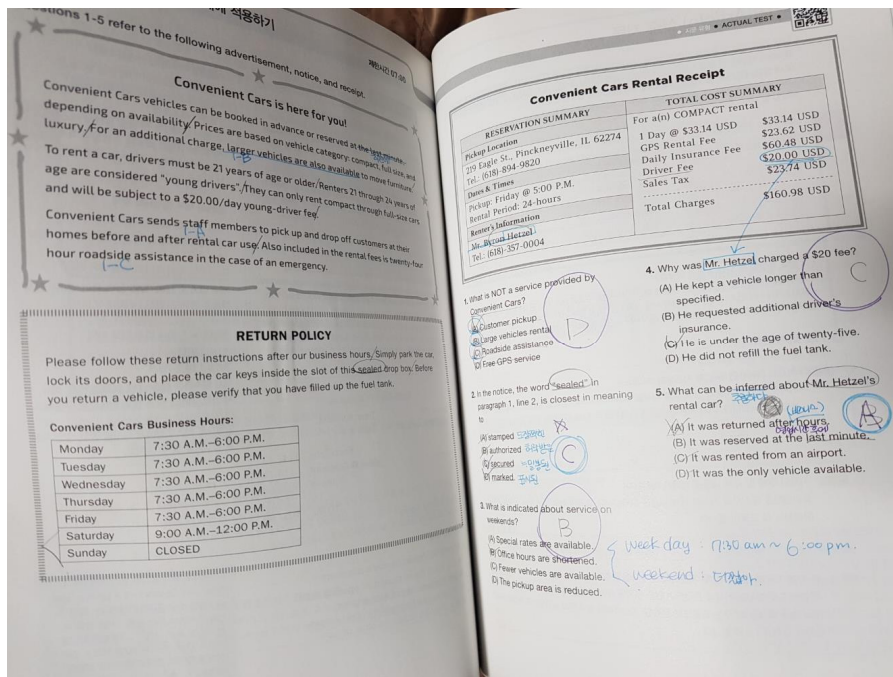
(3회차)



(4회차)



(공부결과물 경민)



(공부결과물\_현자)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식품기사 끝내자

- 소모임 분류: 자격증 준비
- 학습장소: 카페
- 학습기간: 2019년 01월 11일 ~2019년 01월 31일
- 학습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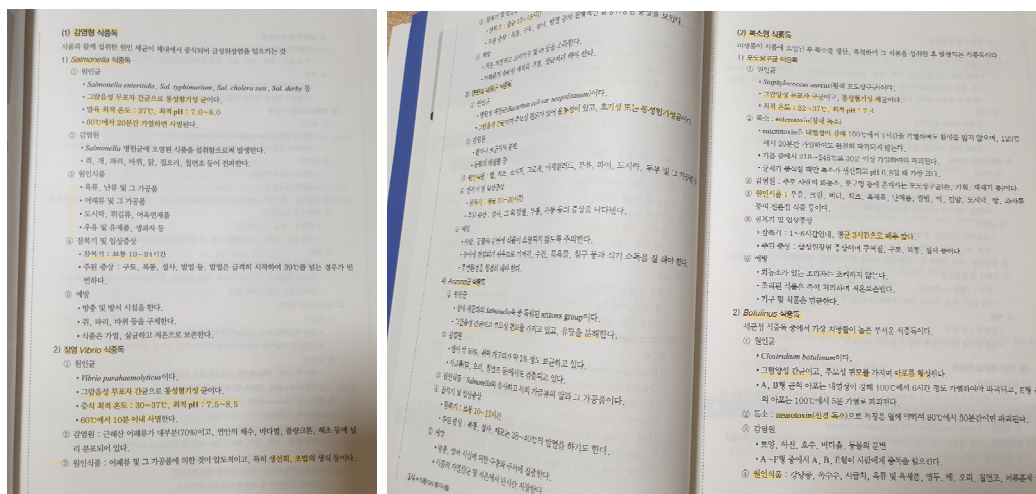
소모임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1	12:30~14:00	카페	식품위생학 이론, 문제풀이 해설
1/18	12:30~14:00	카페	식품가공학 이론, 문제풀이 해설
1/25	12:30~14:00	카페	식품화학 이론, 문제풀이 해설-1
1/31	12:30~14:00	카페	식품화학 이론, 문제풀이 해설-2

### 활동소감

자격증 시험이 3월 3일인 관계로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는 과정과 학습 활동 내용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본 팀의 학습 목표는 3월 달에 있을 1차 식품기사 필기고사 합격을 위해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을 학습하고 예상문제를 풀고 서로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외웠던 부분을 구두 테스트 하는 방법으로 학습하였습니다.

#### - 식품위생학

#### 학습목표 달성 결과물



Date . . . . . No. . . . .

**<식육류 분류>**

세균성	감염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세레티우스, 리스테리아, 시겔라, 장염비브리오
	독소	보툴리سم, 항색모다상균
	복합	세키투스(네토), 장구균, 원충
바이러스성	공기 접촉 등등의 경로로 섭취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1간염 A바이러스, 아드노바이러스, 잔균미아인 것

- <HACCP 7원칙>**
- 위해요소분석 (HACCP) - Hazard Analysis
  - 중요관리점 결정 (CCP)
  - 위제기준 설정
  - 요니터링 방법 수립
  - 개인조치 방법 결정 - 2번의 불과가 초과 되었을때 2번...
  - 검정결과 수립 - HACCP 프로그램
  - 문제와 기록하기
- HACCP 14절 중 4번 기록한

**150+ 식품가정서**

411 수질오염이 수돗물 제조에 미치는 영향은?

412 물이 많은 소독 시 용수의 용기용량 초과로 인한 영향이 있는 물질을 포함한 수질오염 물질은?

413 수돗물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414 4차 정수처리 시설의 목적은?

415 크레올(creol)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16 선택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17 살균제의 살균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단위는?

418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수질지수는?

419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수질지수는?

420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수질지수는?

421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수질지수는?

422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수질지수는?

423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수질지수는?

424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수질지수는?

- 식품가공학

**주류 및 식육가공**

001 국의 기온 조정을 도정하는 원리에 속하지 않는 단말은?

002 다음에 발효 도정도가 가장 큰 것은?

003 쌀도 도정도가 45% 인 쌀을 순서로 나열한 것은?

004 쌀 1,000kg을 도정한 결과 거 44kg, 쌀미 16kg을 얻었다. 이 쌀의 도정률은?

005 현미로 도정할 때 쌀겨 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006 현미의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른 영양성분의 변화 중 옳지 않은 것은?

007 쌀의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른 영양성분의 변화 중 옳지 않은 것은?

008 쌀의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른 영양성분의 변화 중 옳지 않은 것은?

009 쌀의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른 영양성분의 변화 중 옳지 않은 것은?

010 쌀의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른 영양성분의 변화 중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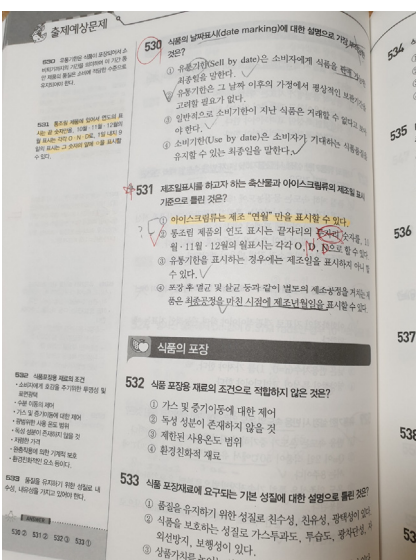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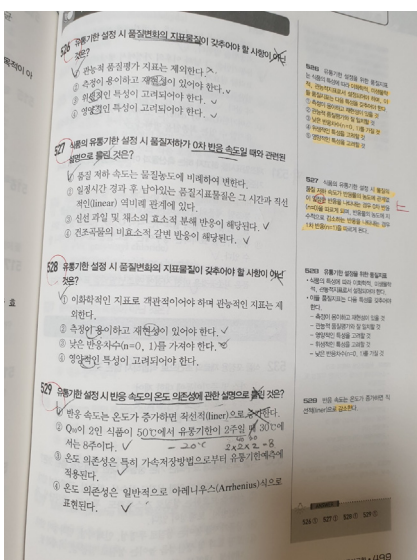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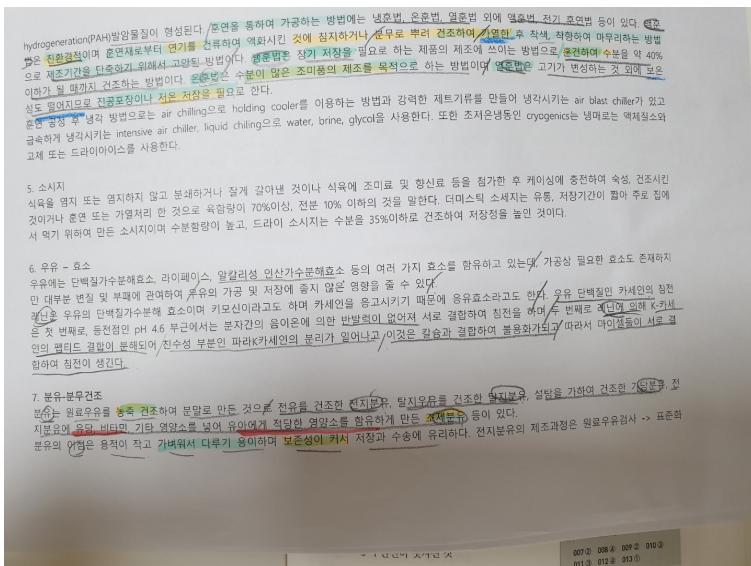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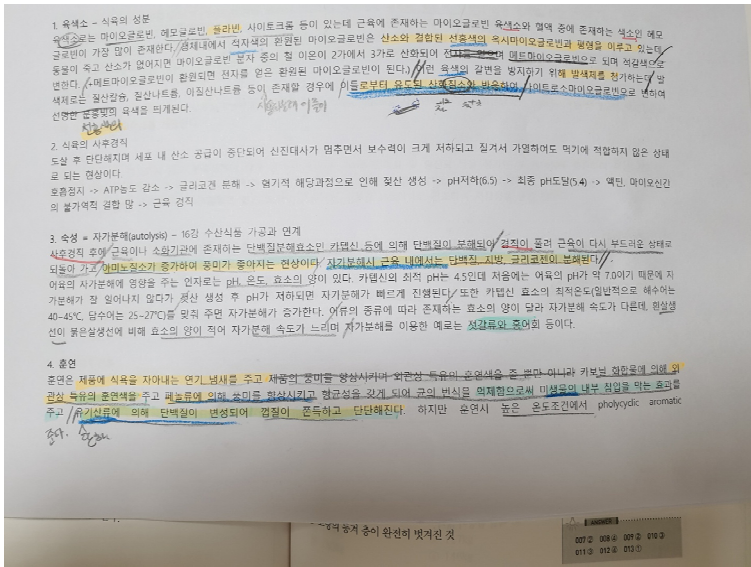
011 쌀의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른 영양성분의 변화 중 옳지 않은 것은?

012 쌀의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른 영양성분의 변화 중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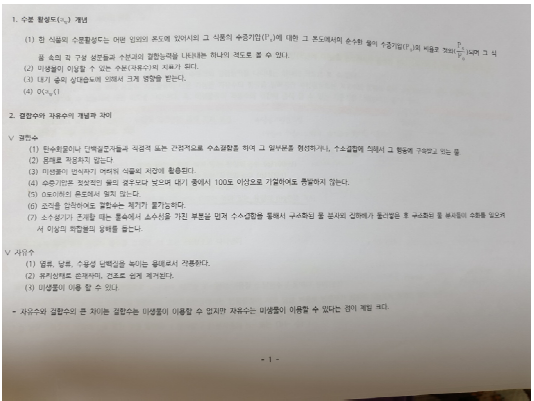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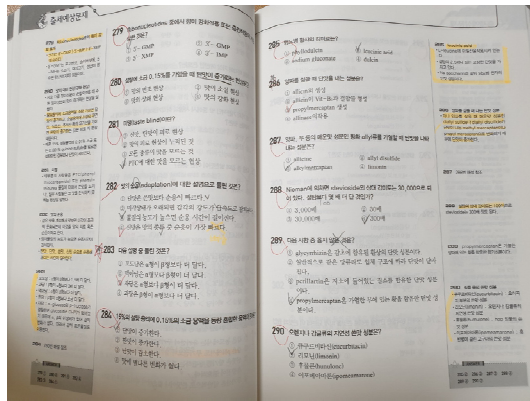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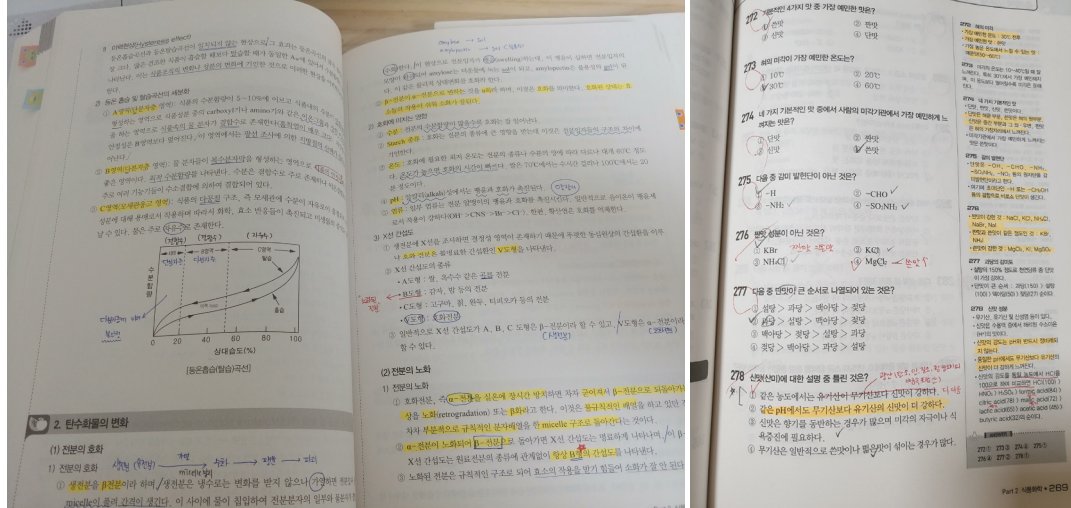
013 쌀의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른 영양성분의 변화 중 옳지 않은 것은?

014 쌀의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른 영양성분의 변화 중 옳지 않은 것은?

015 쌀의 도정도가 증가함에 따른 영양성분의 변화 중 옳지 않은 것은?



- 식품화학



**식품화학 기말고사 준비**

1. 유지의 자동산화 과정 서술

유지의 전체 산화는 정상적인 산화수 산화제물(hydroperoxide, 안정성 가진 1차 산화생성물)의 계속된 산화, 분해로 인하여 최종 또는 2차 산화생성물 생성

**유지반응** : 자유 라디칼 및 라디칼쌍이 형성되는 과정

$$R-H \rightarrow R\cdot + H\cdot$$

$$R-C=C \rightarrow R\cdot + \cdot C=C$$

$$R-C=C + O_2 \rightarrow R-C(OO\cdot)=C\cdot$$

$$R-C(OO\cdot)=C\cdot + O_2 \rightarrow R-C(OO)_2-C\cdot$$

**유지반응의 연쇄반응**

유지반응의 라디칼 + 유지분자  $\rightarrow$  안정화된 환원물 + 알킬라디칼 (연쇄반응)

**알킬라디칼이 된 것을 산소가 반응하면 peroxy radical 생성**

알킬라디칼 + 산소  $\rightarrow$  peroxy radical

**peroxy radical이 또 다른 유지분자의 수소원을 받아 hydroperoxide가 되고 수소원자 개는 유지분자는 새로운 알킬라디칼이 된**

또 다른 유지분자 + peroxy radical  $\rightarrow$  새로운 알킬라디칼 + hydroperoxide

**결과적으로** : 연쇄반응에서 일부 상당부분 환원이 큰 라디칼들이 서로 결합하여 이중, 삼중 결합체를 형성(이 중화제물인 라디칼이 산에 의해 연쇄반응을 계속)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영미있는 영미팀

- 소모임 분류: 전공심화
- 학습장소: 판교
- 학습기간: 2019년 01월 02일 ~2019년 01월 19일
- 학습일지

소모임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9.01.02	온라인	온라인/판교	약물학 예습 및 정리 후 질의 응답
19.01.04	온라인	온라인/판교	약물학 예습 및 정리 후 질의 응답
19.01.11	온라인	온라인/판교	약물학 예습 및 정리 후 질의 응답
19.01.14-19	온라인	온라인/판교	약물학 예습 및 정리 후 질의 응답

### 활동소감

<b>소감 및 종합 의견</b>	<p><b>영미 :</b> 그동안의 공부와는 다르게 정말 '약대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나는 과목이어서 그런지 훨씬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비해 미리 하는 예습인 만큼 최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맛보기 정도만 해도 큰 수확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다보니 처음 기대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예습이다 보니 조금은 벅찬 부분도 있었지만 선배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 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고 이외에 심도 깊은 내용은 향후 수업을 들으면 채워갈 것입니다. 지금의 예습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학기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지원센터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기 중에도 미리 준비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p> <p><b>유영은 :</b> 지금껏 수업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을 하는 스터디 활동은 많이 해 왔지만 예습을 하는 스터디는 처음 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습을 하는 스터디가 처음이고 또 아직 배우지 않은 과목이다 보니 약간의 부담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원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과목의 특성상 암기할 부분이 많다 보니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약에 대한 직접적인 학문을 공부한다는 생각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스터디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더 많은 학우들이 저와 같은 좋은 경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b>홍선기 :</b> 학기 중에 공부한 것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 이를 통해 5학년 과목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보람있었습니다. 단순히 스터디만 했다면 나태해지고 진도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습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하여 꾸준히 모여서 설정한 진도를 완료하려고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계획한 범위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p> <p>하지만 방학 중에 각자가 집으로 가서 주거지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려니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외로 모임을 할 때에 지출비용이 큰 부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p>
-----------------------	---

약물학 1학기 중간고사범위까지 연습, 정리 및 질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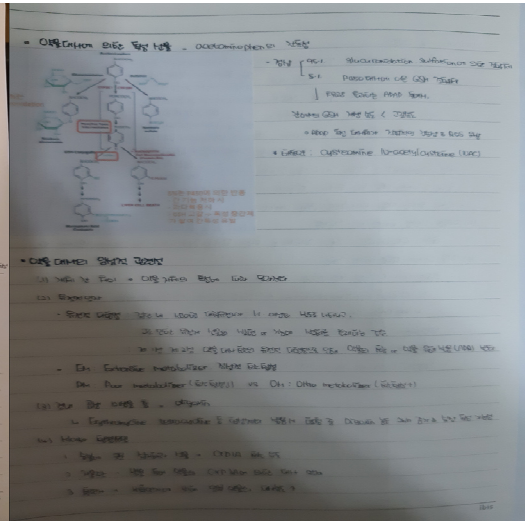
학습목표 달성 결과물

ChOC Drug Review

• 1월 19일 목요일

(1) 1월 9일

약	특	용	대	경	비
CYP2D6	약물 대사 효소	Genetic - Polymorphic (to-metabolism rate)	Pharmacokinetics	Drug metabolism rate	Drug metabolism rate
CYP3A4	약물 대사 효소	Pharmacokinetics	Pharmacokinetics	Drug metabolism rate	Drug metabolism rate
DDP	Drug-Drug Interaction	Drug-Drug Interaction	Drug-Drug Interaction	Drug-Drug Interaction	Drug-Drug Interaction
UGT1A1	Drug-Drug Interaction	Drug-Drug Interaction	Drug-Drug Interaction	Drug-Drug Interaction	Drug-Drug Interaction
TDMT	Drug-Drug Interaction	Drug-Drug Interaction	Drug-Drug Interaction	Drug-Drug Interaction	Drug-Drug Interaction



ChOC

I. 약: 약의 특성, 약의 개발 단계

- 개발
  - Pharm (Pharm. obj.) (산제)
  - 약제 개발 단계: 신약개발, 임상시험, 허가
- 의학 약제 (Medical. pharm. obj.)
  - 약제 개발 단계: 임상시험, 허가
- 의약품 (Pharm. obj.)
  - 개발 단계: 신약개발, 임상시험, 허가

① 고온 환경은 약성 성질에서 득점률 40% 이상이다.

② 약성 약물이 함유된 약제 개발은 신약개발, 임상시험, 허가 과정이다.

③ 약제 개발 단계는 신약개발, 임상시험, 허가 과정이다.

유영운

1월 19일 오후 10:14 · 2명 읽음

질문 - 정소율이 일정한 약물과 그렇지 않은 약물의 차이점은 무엇 인가?

가장 먼저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망

1월 19일 오후 11:44

정소율이란 몸에서 약물이 제거되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거되는 속도가 일정하다. 라는 의미인데... 간략하게 예를 들면... 약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약물의 제거는 간과 신장을 통해서 일어나므로 이를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a라는 약물은 b라는 효소를 통해서 c로 대사가 일어난다고 가정하자. 근데 a나 c가 b의 효소 발현량에 영향을 미친다면 a의 제거속도(정소율)는 대사가 일어날 수록 감소/증가하므로 정소율이 일정하지 않음!

망

1월 19일 오후 11:46

@망 결론 약물의 제거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약물과 아닌 약물임

등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전공이 안 되면 동영스쿨

- 소모임 분류: 전공심화
- 학습장소: 고대 구로병원 스포츠의학센터
- 학습기간: 2019년 01월 02일 ~2019년 01월 24일
- 학습일지

소모임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년 01월 02일	2시간	고대구로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의학용어 공부 및 연부조직 힐링 프로세스
2019년 01월 11일	2시간	고대구로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임상운동세미나(교정운동)
2019년 01월 17일	2시간	고대구로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스트레칭
2019년 01월 24일	2시간	고대구로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재활 프로그램 개인 발표

### 활동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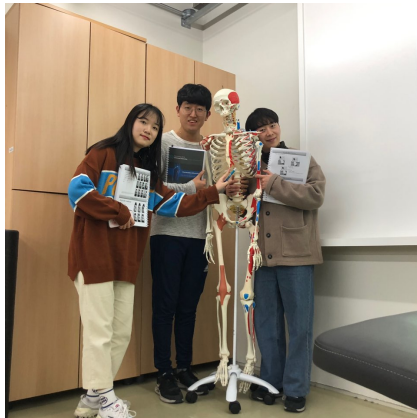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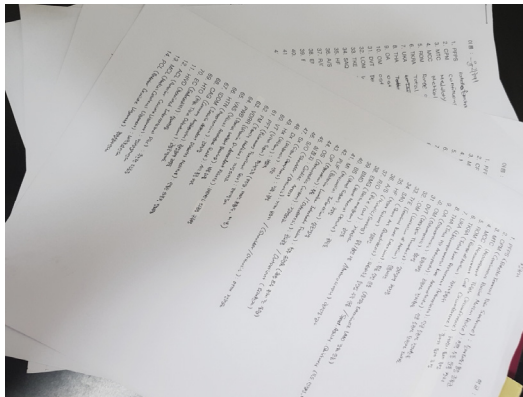
<b>소감 및 종합 의견</b>	<p>고대구로병원에서 스포츠의학과 전공 실습 과목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 때 같이 나온 인원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터디의 목표는 병원에서 진행되는 스터디 이외 시간에 저희들끼리 전공에 대한 이해, 혹은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실전에 보다 더 잘 접목시키기 위한 공부를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보고서로 제출 한 것 이외에도 여러 번의 스터디를 하긴 했으나 병원 특성상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증빙 자료를 많이 남길 수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총 4회의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p> <p>1회 차에는 기본적인 병원 업무 적응을 위해서 의학용어 및 약어들을 공부하였으며, 운동치료총론 10장 연부조직 힐링 프로세스를 공부했습니다. 연부조직 힐링 프로세스를 공부하면서 환자가 어떤 식으로 회복해 나가고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처치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스스로 환자의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큰 틀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p> <p>2회 차에는 병원에 허락을 받고 스포츠의학과 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운동 세미나를 듣기 위해 일주일 간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임상운동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교정운동에 관한 것이었고 의사, 물리치료사, 스포츠의학과 출신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스포츠의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3회 차에는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처치 등의 실습 및 스트레칭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때 배운 것 이외에 병원 현장에서 필요성을 직접 느낀 이후에 진행하는 거라 훨씬 집중도도 높았고 현장에 일하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시간을 따로 내주시고 밀착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전원 완벽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p>
-----------------------	--

4회 차에는 그동안 병원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총 동원하여 스포츠의학 센터 내에 실장님과 선생님들 앞에서 한 명씩 자신이 맡은 주제에 대한 재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ppt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번 실습 및 스터디를 통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학점을 위한 공부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의 본래 목적은 병원 실습 적응과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병원 업무에도 잘 적응하였고, 스터디를 진행하기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으로 스포츠의학이라는 저희 전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터디를 계기로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학습목표  
달성  
결과물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토익 끝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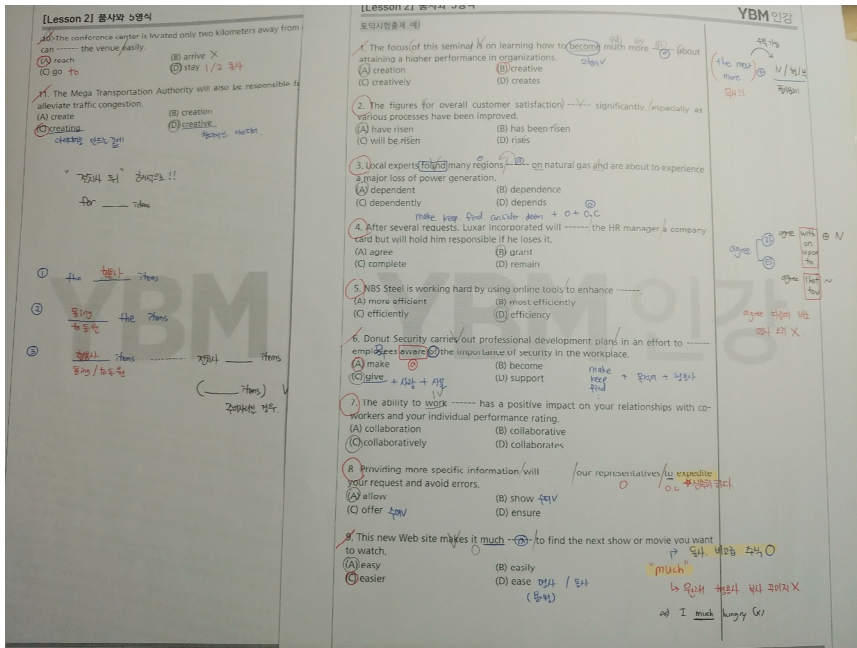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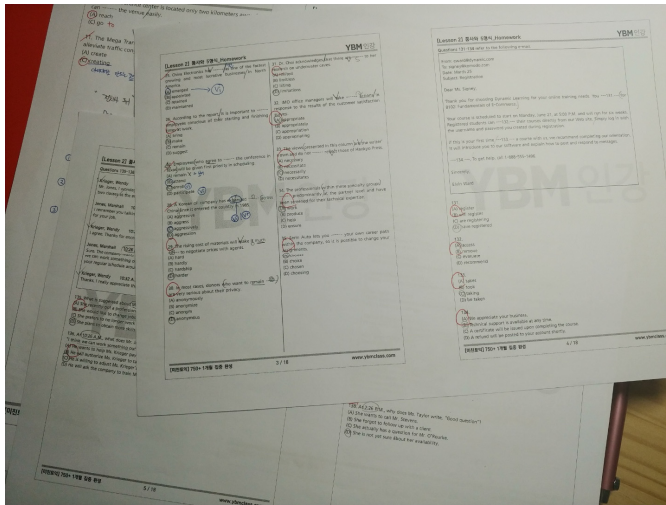
- 소모임 분류: 어학 준비
- 학습장소: 카페
- 학습기간: 2019년 01월 11일 ~2019년 01월 30일
- 학습일지

소모임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1	2:00 ~ 4:30	카페	품사와 형식에 대한 학습 및 개념 암기와 문제풀이
1/18	2:00 ~ 4:30	카페	대명사, 부사에 대한 개념정리와 문제풀이
1/25	2:00 ~ 4:30	카페	to부정사, 동명사 및 관계대명사에 대한 개념정리와 문제풀이
1/31	2:00 ~ 4:30	카페	수동태, 시제, 전치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중요 개념과 숙어 암기 및 최종 모의고사 풀기

###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이번 방학동안 인터넷 강의를 바탕으로 토익 공부를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토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제일 기초인 문법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기로 하였다.</p> <p>물론 많은 문제를 풀어보며 문제의 유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법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에 대한 암기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었고 더 쉽게 유형을 익힐 수 있었다.</p> <p>또한 혼자하면 자기와의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였을 텐데 친구와 함께 하게 되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 만나 공부를 하다 보니 4일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서 더 의미 있었다.</p> <p>학습방법은 매주 들어야할 강의를 각자 듣고 문제를 풀 다음 만나서 4일 동안 풀었던 문제들 중에 모르는 문제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또한 서로 암기한 것을 체크해주고 퀴즈를 내며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였다. 내가 아는 것을 친구에게 설명해줌으로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아 학습 효과가 더 증대되었다.</p>
------------------------------	--

학습목표 달성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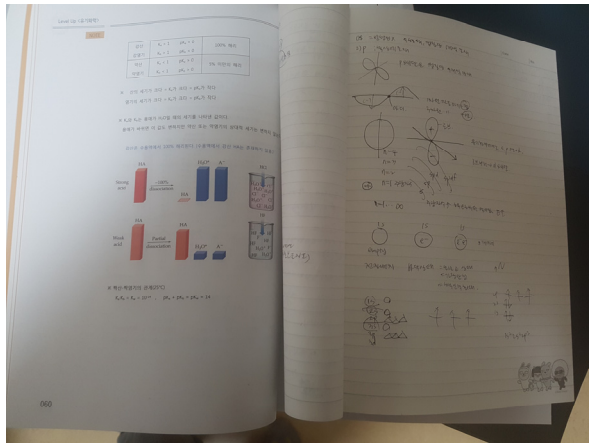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화학플러스

- 소모임 분류: 카페, 행복도서관 등
- 학습장소: 카페
- 학습기간: 2019년 01월 05일 ~2019년 01월 28일
- 학습일지

소모임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월 5일	2019년 1월 5일 4시 00 분 ~ 7시 00분	노원 투썸플레이스	유기화학의 기본인 구조와 결합 그리고 입체 화학에 대해 공부한다.
1월 12일	2019년 1월 12일 12시 00분 ~ 3시 00분	노원 투썸플레이스	알켄의 기본적인 구조와 실험의 반응 그리고 합성의 과정에 대하여 공부하고 암기한다.
1월 21일	2019년 1월 21일 6시 00 분 ~ 9시 00분	차의과학대학교 해룡학사 2층 휴게실	카복실산과 나이트릴의 관계와 카복실산 유도체에 대해 공부하고 일반화학의 카복실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1월 28일	2019년 1월 28일 5시 00분 ~ 7시 30분	차의과학대학교 행복도서관	구조 결정을 분석하는 방법: 질량분석법과 적외선 분석법 핵 자기 공명분석법의 대해 공부한다.

### 활동소감

<p><b>소감 및 종합 의견</b></p>	<p>이번 동계방학동안 다음 학기에 수강할 유기화학을 미리 예습을 하여 더 뜻 깊고 알찬 동계방학을 보낸 것 같다.</p> <p>특히 유기화학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번 방학에 미리 공부함으로써 학기 중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그냥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면 항상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번 스터디를 통해 강제성도 부여하면서 함께 공부하니 더욱 효율적인 공부가 이루어진 것 같다.</p>
<p><b>학습목표 달성 결과물</b></p>	





2018학년도 2학기 학습지원센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발행일 : 2019년 2월  
발행인 : 김억환  
발행처 : 차의과대학교 학습지원센터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전화 : (031) 850-8950  
이메일 : chactl@cha.ac.kr  
팩스 : (031) 543-2397  
홈페이지 : <http://ctl.cha.ac.kr>